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신명기

DEU · 오경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34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신명기 1장

DEU-001 · 오경 · 히브리어

설교가 회고로 연다. 호렘에서 출발한 길이 다시 호렘 앞에서 멈춘 자리로 되짚어진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현재 무대는 한 자리 — "요단 저쪽 광야"(1절). 그 안에 회고의 무대들(호렘·광야·가데스 바네아)이 펼쳐진다.
- 지명이 소품처럼 깔린다: 슝·바란·도벨·라반·하세롯·디사합(1절), "호렘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룻길"(2절).
- 시간 표지가 정확하다: "사십 년째 되는 해 열한째 달 초하루"(3절). 광야 사십 년의 끝자락.
- 재판 단위가 소재로 깔린다: 천부장·백부장·오십부장·십부장(15절), 재판의 규칙(16-17절).
- 책의 첫 단어가 devarim(말씀들). "엘레 하데바림"(eleh hadevarim, 1절)으로 발화의 모음임을 표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다시 들려주는 회상의 어조로 열린다. 참가자 다수가 "한 사람이 무리 앞에 서서 말하는" 연설 장면을 공유함.
- 지명의 행렬과 정확한 날짜가 길을 손가락으로 짚는 인상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것은 모세가 요단 저쪽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 말씀의 시작 선언.
-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 멈춰 있던 시간으로 닫힘.
- 6절 "랍 라켄"(rav lakhem, 충분하다/오래 머물렀다)의 출발 명령과 46절의 "오래 머물렀다"가 양 끝에서 마주 본다.
- 말의 시작으로 열려, 멈춤의 시간으로 닫히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 단독, 1인칭("내가"). 청자: "온 이스라엘".
- 회고 속 인물: 여호와 / 두령과 재판장 / 정탐꾼 열둘 / 백성.
- 모세의 짐 토로: "나 혼자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9절), "너희의 무거운 짐과 다툼"(12절).
- 재판장 세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13-15절), 규칙 "외모를 보지 말라"(lo takkiru panim,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17절).
- 백성의 사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 멸하려 하신다"(27절) — 구원을 미움으로 뒤집어 씌움.

- 모세의 반응: "두려워 말라"."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싸우시리라"."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셨다"(29-31절). 그래도 "믿지 않았다"(3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요단 동편, 말씀의 시작 — 무대와 날짜
- 컷 2 (6-8절): 호렙의 명령 — "충분하니 떠나라"
- 컷 3 (9-18절): 짐을 나눔 — 두령·재판장, 재판 규칙
- 컷 4 (19-33절): 가데스 바네아 정탐·보고·거부·원망
- 컷 5 (34-46절): 진노, 광야로 돌이킴, 무모한 진격과 패배, 가데스에 머물
- 마주 봄: 컷 2 "떠나라" ↔ 컷 5 "머물렀다"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devarim(דְּבָרִים) — 말씀들. 책 이름의 어원. "엘레 하데바림"(1절).
- dabar(דָּבָר) — 말씀/말하다. 1:3절.
- Horeb(הֹרֵב) — 호렙. 2:6·19절 회고의 출발점.
- rav lakhem(רַבְּלַחְמֵיכֶם) — "너희에게 충분하다/오래다"(6절). 출발 신호.
- panim(פָּנִים) — 얼굴/낯. "낯을 알아보지 말라"(lo takkiru panim, 17절).
- shaphat(שָׁפַט) — 재판하다. 재판장 세움 단락.
- ra'ah(רָאָה) — 보다. 정탐 단락에 반복.
- Anaqim(אַנָּקִים) — 아낙 자손, 거인 족속(28절). 9장에서 재등장.
- midbar(מִדְבָּר) — 광야. 무대의 바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1인칭 회고 담화 — 사건 기록이 아니라 모세의 입으로 "다시 말함".
- 출발 명령("떠나라", 6절) ↔ 멈춤("머물렀다", 46절)의 틀 구조.
- 거부할 때 "올라가라", 마음을 바꿔 올라갈 때 "올라가지 말라"(41-43절)의 박자 어긋남.
- 들어감의 주체 전환: 거부한 세대 → 그 자녀(3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종주권 조약의 "역사 서언" 형식 — 종주가 과거의 은혜를 회고하며 충성을 요구. 신명기 1장의 회고적 여는 결과 병행 관찰.
- 고별 연설(farewell speech) 장르 — 죽음을 앞둔 지도자가 무리에게 남기는 회고적 권면. 모세의 1인칭 화법과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 ↔ 출 18:13-26 (재판장 세움의 첫 기록)
- 신 1 ↔ 민 13-14 (정탐과 불신앙 사건의 원래 기록)
- 신 1 ↔ 민 11:11-17 (모세의 짐을 나눔)
- 신 1 ↔ 신 9:1-2 (아낙 자손과 대적)

- 신 1 ↔ 민 20:12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야 사십 년의 끝자락,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지난 길을 되짚는다. 호렙에서 "충분하니 떠나라"는 명령이 길을 열었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누어 두령과 재판장을 세웠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열들을 보내 땅을 살폈으나, 백성은 좋은 보고를 듣고도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장막에서 원망했다. 모세의 격려에도 믿지 않았고, 진노가 내려 이 세대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하며 자녀가 들어가리라는 말씀과 모세 자신의 들어가지 못함이 함께 회고된다. 뒤늦게 뉘우쳐 무모하게 올라간 백성은 패하여 돌아오고, 결국 가데스에 여러 날을 머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충분하다, 떠나라 — 출발 명령으로 여는 회고"
- 초벌 부제: "호렙에서 떠난 길이 가데스에 멈춰 선 채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종주권 조약 역사 서언 + 고별 연설 장르 + 지명·날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7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가 신정론·심리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37절 "너희 때문에" 모세의 들어가지 못함은 도덕·인과 단정으로 끝지 않고 어휘·배치만 기록.
- 종주권 조약 형식은 배경 자료로만 표시하고 본문 해석으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장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들려주는 한 목소리로, 호렙의 출발 명령으로 열려 가데스의 멈춤으로 닫히는 회고다.

한 문단: 본문은 "이것은 그 말씀들이라"는 발화의 선언으로 열린다. 광야 사십 년의 끝자락,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1인칭으로 지난 길을 되짚는다. 호렙에서 "충분하니 떠나라" 명령이 길을 열었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누어 재판장을 세웠으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백성이 믿지 못해 돌아섰다. 출발의 명령과 멈춤의 시간이 한 장 안에서 마주 보고, 들어감의 주체가 세대에서 자녀로 옮겨 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현재 무대는 요단 동편 한 자리(1절). 그 안에 호렙·광야·가데스의 회고 무대가 펼쳐짐. 소품 — 지명의 행렬, 정확한 날짜(3절), 재판 단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사건이 아니라 회상의 어조. 한 사람이 무리 앞에 서서 말하는 연설 장면. 지명과 날짜가 길을 짚는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것은 ... 선포한 말씀이니라"(1절). 끝 —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46절). 출발 명령(6절)과 멈춤(46절)이 마주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화자 모세 단독(1인칭), 청자 온 이스라엘. 회고 속 여호와·재판장·정탐꾼·백성. 백성은 구원을 미움으로 뒤집어 읽음(2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말씀의 시작(1~5). 컷 2 호렙의 명령(6~8). 컷 3 짐을 나눔(9~18). 컷 4 정탐·거부(19~33). 컷 5 진노·패배·머물(34~4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다시 말함"의 까닭. "너희 때문에"의 관계(37절). 정보 — devarim(말씀들), rav lakhem(충분하다), 박자 어긋남(41-43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출발 명령→짐 나눔→정탐과 거부→진노→무모한 진격과 패배→가데스에 머물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충분하다, 떠나라". 초벌 부제 — "호렙에서 떠난 길이 가데스에 멈춰 선 채로".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요단 동편 회고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떠나라 하신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다시 들려주는 목소리:** 본장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1인칭으로 되짚는다. 같은 사건이 두 번째로 적히며, 책 자신을 "말씀들"이라 부른다.
- 결 2 — 출발과 멈춤의 마주 봄:** 6절의 "충분하니 떠나라"와 46절의 "오래 머물렀다"가 양 끝에 걸린다. 떠나라는 명령으로 연 길이 멈춤으로 닫힌다.
- 결 3 — 들어감의 주체 전환:** 거부한 세대가 아니라 자녀가 들어간다(39절). 약속의 땅 앞에서 주체가 한 세대 뒤로 옮겨 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9:1-2 (아나 자손과 대적의 회고가 다시 나옴). 본장의 정탐 회고와 같은 결.
- 다른 권 — 출 18:13-26 (재판장 세움의 첫 기록). 민 13-14 (정탐과 불신앙의 원래 기록). 민 20:12 (모세의 들어가지 못함).
- 정경 흐름 — 오경의 마지막 책이 앞선 사건을 회고로 다시 여는 결은, 율법이 한 번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다시 말해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이것은 그 말씀들이라"는 발화의 선언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충분하니 떠나라"는 출발 명령에서 멈춘다.
- 멈춤 2: 좋은 땅을 보고도 돌아서는 거부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회고가 불신 바로 앞에 놓인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떠나라 하신 자리와 머무른 자리의 사이를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다시 들려주는 목소리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본문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회고다
- [x] 책이 자기를 "말씀들"이라 부르며 연다
- [x] "충분하니 떠나라"가 길을 연다
- [x]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나눈다
- [x] 좋은 땅 앞에서 믿지 못해 돌아선다
- [x] 들어감의 주체가 세대에서 자녀로 바뀐다
- [x] 출발 명령과 멈춤이 양 끝에서 마주 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회고.

미해결 질문

신명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같은 정탐 사건을 본장이 "다시" 회고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이미 다른 곳에 기록된 일이 모세의 1인칭으로 되풀이됨.

- 본문은 그 되풀이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27절)라는 백성의 말은 어디서 온 것인가?

- 구원의 인도를 멸함의 미움으로 뒤집어 읽음.
- 본문은 그 뒤집힘의 심리·내력을 설명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모세가 "너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37절)는 회고는 무엇을 뜻하는가?

- 모세 자신의 일을 백성의 거부 단락 한가운데 끼워 넣음.
- 다른 곳의 기록(민 20장)과의 관계는 본장이 길게 풀지 않음. 해석은 뒤로.

Q4. 거부할 때 "올라가라", 올라갈 때 "올라가지 말라"(41-43절)의 어긋남은?

- 같은 행위(올라감)가 때에 따라 정반대 명령을 받음.
- 박자의 어긋남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5.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31절)의 회고가 거부 직전에 놓인 까닭은?

- 가장 따뜻한 표현이 가장 큰 불신 바로 앞에 배치됨.
- 배치의 효과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들어감의 주체가 세대에서 자녀로 바뀌는(39절)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 거부한 세대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들어감.
- 주체 전환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장

DEU-002 · 오경 · 히브리어

건드리지 말고 지나라. 형제의 땅을 비껴가는 발걸음 끝에, 처음으로 싸우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행군 동선을 따라 이동한다: 세일 산을 도는 광야 → 모압·암몬 경계 → 헤스본 앞 싸움터.
- 지명이 소품처럼 깔린다: 세일·에돔·엘랏·에시온게벨·아르·세렛 시내(nachal Zered)·압복 강·헤스본.
- "발바닥으로 밟을 만한 땅도 주지 않겠다"(5절) — 발의 한 걸음만큼도 주지 않으심을 강조.
- 시간 표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14절), 한 세대(dor)의 끝.
- "양식과 물을 돈으로 사라"(6·28절) — 거저 빼앗지 않고 값을 치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 산을 여러 날 도는 정처 없는 공기로 열려, "돌이켜 나아가라"에서 풀리고, 끝에 "치라"로 어조가 바뀐다.
- "건드리지 말라"의 조심스러운 반복과 지명의 행렬이 지도를 펼친 인상을 만든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가 돌이켜 ...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 도는 것으로 시작.
-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니" — 손대지 않은 곳을 짚으며 닫힘.
- 3절 "사브 라켄"(sav lakhem, 돌이켜 나아가라)이 1장 6절 "충분하니 떠나라"와 짝.
- 도는 것으로 열려 비껴 감으로 닫히되, 가운데 시훈 정복(31-36절)이 박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여호와와의 말씀 인용 포함). 등장: 에돔(에서 자손)·모압·암몬(롯 자손)·헤스본 왕 시훈.
- 세 민족이 모두 "친족/형제"(achim)로 묶임. 명령이 같은 결로 세 번 반복: "다투지 말라"."기업으로 주지 않았다"(yerushah)·"내가 주었다"(nathan).
- 괄호 같은 각주: 옛 거인 족속(엠 사람·호리 사람·르바임·삼숨땀)의 축출 내력(10-12·20-23절).
- 시훈에게 "화평의 말"로 사절(26절) → 거절 →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qashah, 3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세일을 도는 광야, "돌이켜 나아가라", 에돔을 비껴 감
- 컷 2 (9-15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거인 족속 각주, 삼십팔 년이 다 참
- 컷 3 (16-23절): 암몬을 건드리지 말라, 또 다른 거인 족속 각주

- 컷 4 (24-30절): 시혼에게 화평의 사절, 거절, 완악해짐
- 컷 5 (31-37절): "치라", 헤스본 정복, 암몬 땅은 비껴 감
- 경계: 컷 1~3 "건드리지 말라" ↔ 컷 4~5 "치라"가 시혼에게서 갈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av lakhem(סַבְּ לַחֶמֶךָ) — 돌이켜 나아가라(3절). 방향 전환의 명령.
- Seir(סֵעִיר) / Edom(עֲדוֹם) — 에서(Esav) 자손의 땅.
- achim(אָחִים) — 형제/친족. 에돔을 가리킴(4·8절).
- nathan(נָתַן) — 주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5·9·19절).
- yerushah(יְרוּשָׁה) — 기업/소유. 세일·아르를 기업으로 주심.
- nachal Zered(נַחַל זֶרֶד) — 세렛 시내(13-14절). 세대의 분기점.
- dor(דּוֹר) — 세대(14절).
- Sichon(סִיחֹן) / Cheshbon(חֶשְׁבֹּן) — 헤스본 왕 시혼.
- qashah(קָשָׁה) — 굳게/완악하게 하다(30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건드리지 말라"(세 친족) → "치라"(시혼)의 전반/후반 대비.
- 친족 단락마다 거인 족속 축출의 각주가 괄호처럼 삽입됨.
- "내가 주었다"(nathan)의 반복 — 비껴 갈 땅도 "주신 땅"으로 규정.
- 삼십팔 년·세렛 시내·세대의 끝이 한 지점에서 겹침(14-1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요단 동편 민족들과의 경계 통과 시 길·물·양식의 값을 협상하는 관행 — 6·28절 "돈으로 사라"와 병행 관찰.
- 고대 근동 정복 기록의 정형 — 왕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내고, 거절 시 교전하는 형식. 시혼 단락(26-36절)과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 ↔ 민 20:14-21 (에돔이 길을 막음)
- 신 2 ↔ 민 21:21-31 (시혼과의 싸움 원래 기록)
- 신 2 ↔ 창 36장 (에서/에돔 족보)
- 신 2 ↔ 창 19:36-38 (모압·암몬의 기원)
- 신 2 ↔ 신 9:1-3 (땅으로 들어감의 약속)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우리가 세일 산을 정처 없이 돌던 중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형제 에돔의 땅은 발 한 걸음도 받지 않고 값을 치르며 비껴 가고, 모압과 암몬의 땅도 친족의 기업이라 건드리지 않는다. 그 사이 세렛 시내를 건너며 거부했던 세대가 삼십팔 년 만에 다 지나간다. 마침내 헤스본 앞에서 시혼에게 화평의 사절을 보내나 거절당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제야 처음으로 "치라"는 명령이 떨어져 헤스본을 점령하지만, 암몬 땅은 여전히 비껴 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건드리지 말라가 치라로 바뀌는 자리"
- 초벌 부제: "비껴 감 한복판에 박힌 한 번의 정복"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경계 통과 협상 관행 + 정복 기록 정형 + 지명·세대 시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0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가 자유의지·예정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거인 족속 각주는 배경 정보로만 표시하고 본문 의도로 확정하지 않음.
- "형제/친족" 명령의 윤리화는 보류하고 어휘·반복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장은 형제와 친족의 땅을 차례로 비껴 가게 하다가, 거절한 한 왕 앞에서 처음으로 "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회고다.

한 문단: 본문은 세일 산을 정처 없이 도는 광야로 열린다. "돌이켜 나아가라"는 명령이 다시 길을 열고, 에돔·모압·암몬은 친족의 기업이라 발 한 걸음도 받지 않고 값을 치르며 비껴 간다. 그 사이 세렛 시내를 건너며 거부했던 세대가 삼십팔 년 만에 다 지나간다. 마침내 헤스본 왕 시훈이 화평의 사절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진 자리에서 비껴 가던 발이 멈추고 첫 정복이 박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행군 동선이 무대 — 세일을 도는 광야→모압·암몬 경계→헤스본 싸움터. 소품 — 지명의 행렬, 강, 값, 삼십팔 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정처 없이 도는 공기로 열려, "돌이켜 나아가라"에서 풀리고, 끝에 "치라"로 어조가 바뀐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1절). 끝 — "암몬 족속의 땅 ...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니"(37절). 도는 것→비껴 감, 가운데 시혼 정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여호와 말씀 인용), 에돔·모압·암몬(친족), 시혼. 세 친족엔 "주지 않았다", 시혼은 "완악해짐"(qashah, 3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에돔 비껴 감(1~8). 컷 2 모압·세대의 끝(9~15). 컷 3 암몬 비껴 감(16~23). 컷 4 시혼의 거절(24~30). 컷 5 헤스본 정복(31~37).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비껴 갈 땅도 "주신 땅". 시혼 거절과 완악함의 관계. 정보 — sav lakhem(돌이켜 나아가라), 거인 족속 각주, 세렛 시내의 세대 분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도는 광야→돌이킴→세 친족을 비껴 감→세대의 끝→시혼의 거절→첫 정복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건드리지 말라가 치라로 바뀌는 자리". 초벌 부제 — "비껴 감 한복판에 박힌 한 번의 정복".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형제의 땅을 비껴 가는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비껴 갈 땅과 들어갈 땅을 가르시는 경계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주신 땅의 두 얼굴:** 비껴 가야 할 친족의 땅도 "내가 주었다"(nathan)로 규정된다. 받을 땅만이 아니라 비껴 갈 땅도 같은 동사로 주어진다.
- 결 2 — 비껴 감과 치라의 경계:** 세 친족에겐 "건드리지 말라", 시혼에겐 "치라". 그 경계가 한 왕의 거절에서 그어진다.
- 결 3 — 한 세대가 지나가는 강:** 세렛 시내를 건너는 일에 삼십팔 년과 한 세대의 끝이 겹친다(14-15절). 회고가 시간의 매듭을 한 지점에 묶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9:1-3 (땅으로 들어감의 약속이 이어짐). 신 1장 (거부한 세대의 회고가 여기서 세대의 끝으로 맺힘).
- 다른 권 — 민 21:21-31 (시혼 싸움의 원래 기록). 창 19:36-38 (모압·암몬의 기원). 창 36장 (에서/에돔 족보).
- 정경 흐름 — 친족의 기업을 존중하며 비껴 가는 결은, 정복의 본 줄기 밖에서도 땅이 "주어진 것"으로 다루어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정처 없이 도는 광야의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돌이켜 나아가라"는 방향 전환에서 멈춘다.

- **멈춤 2:** 형제의 땅에 밭 한 걸음도 받지 않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시혼의 거절 앞에서 명령이 "치라"로 바뀌는 순간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비껴 갈 땅과 들어갈 땅의 경계를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손대지 말 자리와 들어갈 자리를 분별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도는 것으로 열려 비껴 감으로 닫힌다
- [x] 형제·친족의 땅을 건드리지 않는다
- [x] 비껴 갈 땅도 "주신 땅"으로 규정된다
- [x] 값을 치르고 지나간다
- [x] 거부한 세대가 세렛 시내에서 다 지나간다
- [x] 시혼의 거절에서 "치라"로 명령이 바뀐다
- [x] 첫 정복(헤스본)이 비껴 감 한복판에 박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경계.**

미해결 질문

신명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비껴 가야 할 친족의 땅까지 "내가 주었다"고 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에돔·모압·암몬의 기업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반복 규정됨(5·9·19절).
- 본문은 그 규정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시혼이 길을 내주지 않은 것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30절)의 관계는?

- 거절과 완악함이 한 절에 함께 놓임.
- 본문은 그 관계를 길게 풀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거인 족속 축출의 각주(10-12·20-23절)는 왜 끼어드는가?

- 본 줄기 밖의 내력이 괄호처럼 삽입됨.
- 그 삽입의 의도는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정보로 보존.

Q4. "건드리지 말라"와 "치라"를 가르는 경계는 무엇인가?

- 친족의 땅은 비껴 가고, 시혼의 땅은 치라 하심.
- 그 가름의 기준이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양식과 물의 값을 치르라(6·28절) 하신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 지나가되 거저 빼앗지 않고 값을 치름.
- 그 결의 뜻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삼십팔 년·세렛 시내·세대의 끝이 한 지점에서 겹치는(14-15절) 까닭은?

- 한 강을 건너는 일과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 일이 겹쳐 적힘.
- 그 겹침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장

DEU-003 · 오경 · 히브리어

정복과 분배가 끝나고, 후계자에게 손을 얹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산에 오른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두 단계: 앞은 바산·에드레이 싸움터, 뒤는 요단 동편 전체의 분배 지도. 끝은 비스가 산꼭대기.
- 소품 "철 침상"(eres barzel, 11절) — 옥의 침상 치수(길이 아홉 규빗·너비 네 규빗)까지 기록됨.
- 옥(Og)이 "르바임의 남은 자"(refa'im)로 회고됨.
- 분배 지명: 길르앗·바산·아르곱·르우벤·갓·므낫세 반·마길·야일.
- 소재 "무장한 자"(chaluts, 18절) —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싸우는 조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승전 보고의 빠른 리듬으로 열려, 분배의 차분한 목록을 지나, 끝에 강 건너편을 바라만 보는 가라앉음으로 닫힌다.
- 참가자 다수가 "승리→분배→격려→좌절"의 네 박자를 공유함. "철 침상" 각주에서 눈이 멈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 옥이 마주 나와" — 또 한 번의 싸움으로 시작.
- 29절: "벤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 한 골짜기에 머문 채 닫힘.
- 23절 "간구하기를"(va'etchanan)이 끝부분 전환점. 모세의 간구와 거절이 끝에 박힘.
- 정복으로 열려 멈춤으로 닫히되, 한 사람의 간구·거절이 결말을 이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여호와 말씀 인용 포함). 등장: 바산 왕 옥·두 지파 반(르우벤·갓·므낫세 반)·여호수아·여호와.
- 두 지파 반의 조건(18-20절): 처자·가축은 성읍에 두되, 무장한 용사는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함께 싸움.
- 여호수아 격려(21-22·28절): "네 눈이 본 것을 다 행하셨다", "두려워 말라", "강하게 하라"(chazaq ve'ematz).
- 모세의 간구(23-25절): "건너가 그 좋은 땅을 보게 하소서". 응답(26-27절): "듣지 아니하시고",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ra'ah).
-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26절) — 1장 37절과 같은 표현의 두 번째 등장.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옥과의 싸움, 에드레이, 모든 성읍 차지

- 컷 2 (8-11절): 차지한 땅의 범위, 옥의 철 침상 각주
- 컷 3 (12-17절): 두 지파 반에게 땅 분배
- 컷 4 (18-22절): 무장하고 앞서 건넌의 조건, 여호수아 격려
- 컷 5 (23-29절): 모세의 간구·거절,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 골짜기에 머물
- 나눔: 컷 1~4 채움(정복·분배·위임) ↔ 컷 5 막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Og(אֹג) / Bashan(בָּשָׁן) — 바산 왕 옥과 그 땅.
- refa'im(רֵפְאִים) — 르바임, 거인 족속. 옥이 그 남은 자(11절).
- eres barzel(אֶרֶץ בַּרְזֶל) — 철 침상(11절). 치수까지 기록.
- nachalah(נַחְלָה) — 기업/유산. 분배의 단어.
- chaluts(חָלוּץ) — 무장한 자(18절).
- chazaq ve'ematz(חָזַק וְעָמַץ) — 강하고 담대하라. 위임의 정형 어구(28절).
- va'etchanan(וַאֲעִתְחָנָן) — 내가 간구하기를(23절). 은혜를 구함.
- ra'ah(רָאָה) — 보다(27절). "네 눈으로 보라".
- Pisgah(פִּיִּסְגָּה) — 비스가 산꼭대기(27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채움"(정복·분배·위임, 1-22절) ↔ "막힘"(모세의 간구·거절, 23-29절)의 대비.
- "너희 때문에"(26절)가 1:37의 회고를 다시 부름 — 반복되는 표현.
- 모세의 막힘(27절)과 여호수아의 건넌(28절)이 바로 붙어 배치됨.
- "보라"(ra'ah)와 "건너지 못하리라"가 한 호흡에 놓임 — 봄은 허락, 건넌은 막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정복한 적의 거대 유물 치수를 과시 기록으로 남기는 관행 — 옥의 철 침상 각주(11절)와 병행 관찰.
- 후계자 위임 의례의 정형 어구("강하고 담대하라") — 여호수아 격려(28절)와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 ↔ 민 21:33-35 (옥과의 싸움 원래 기록)
- 신 3 ↔ 민 32장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분배)
- 신 3 ↔ 신 31:1-8 (여호수아 위임 재진술)
- 신 3 ↔ 신 34:1-6 (모세의 죽음과 비스가)
- 신 3 ↔ 민 27:12-23 (여호수아 안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무리가 바산으로 올라가 옥과 싸워 그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아르논에서 헤르몬까지의 땅을 손에 넣는다. 그 사이 옥의 철 침상이 치수와 함께 각주처럼 기록된다. 차지한 땅을 르우벤·갓·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두 지파 반에게는 무장하고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함께 싸우라는 조건을 둔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

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는 용기를 넣는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건너가게 해 달라 간구하다 거절당하고, 비스가에서 사방을 보되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받는다. 무리는 벨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
- 초벌 부제: "봄은 허락되고, 건넌은 다음 사람에게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거대 유물 치수 기록 관행 + 위임 정형 어구 + 분배 지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6절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와 모세의 막힘이 인과·신정론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는 도덕 교훈화하지 않고 어휘·배치만 기록.
- 철 침상 치수는 배경 정보로만 표시하고 본문 의도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장은 정복과 분배와 후계자 위임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끝에, 정작 그 길을 이끈 한 사람이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산에 올라 바라만 보는 회고다.

한 문단: 본문은 바산 왕 옥과의 또 한 번의 싸움으로 열린다.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옥의 철 침상이 치수까지 기록되며, 요단 동편 땅이 두 지파 반에게 나뉜다. 무장하고 앞서 건너라는 조건이 붙고, 여호수아에게 용

기가 부어진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건너가게 해 달라 간구하다 거절당하고, 비스가에서 사방을 보되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받는다. 채움과 막힘이 한 장 안에서 마주 보고, 한 사람의 막힘 바로 뒤에 다른 사람의 건넌이 놓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단계 무대 — 바산·에드레이 싸움터, 요단 동편 분배 지도, 끝의 비스가. 소품 — 옥의 철 침상(eres barzel, 치수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승전의 빠른 리듬→분배의 차분함→강 건너편을 바라만 보는 가라앉음. "승리→분배→격려→좌절"의 네 박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바산으로 올라가매 옥이 마주 나와"(1절). 끝 — "벤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29절). 정복으로 열려 멈춤으로 닫힘, 끝에 간구·거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옥·두 지파 반·여호수아·여호와. 여호수아엔 용기, 모세 자신은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2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옥과의 싸움(1~7). 컷 2 땅 범위·철 침상(8~11). 컷 3 분배(12~17). 컷 4 조건·여호수아 격려(18~22). 컷 5 간구·거절·머뭇(23~2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다 채운 뒤의 막힘. "다시는 말하지 말라"의 단호함. 정보 — va'etchanan(간구), refa'im(르바임 옥), chazaq ve'ematz(위임 어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옥과의 싸움→땅 차지→분배→조건·위임→간구·거절→골짜기에 머뭇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 초벌 부제 — "봄은 허락되고, 건넌은 다음 사람에게로".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보게만 하시는 그 자리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뭇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채움과 막힘:** 정복·분배·위임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끝에, 한 사람만 막힌다. 가장 많이 준 자리에서 자신은 받지 못한다.
- 결 2 — 봄과 건넌의 분리:**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27절)에서 봄은 허락되고 건넌은 막힌다. 두 동사가 한 호흡에 놓인다.
- 결 3 — 막힘과 위임의 붙어 있음:** 모세의 막힘(27절) 바로 뒤에 여호수아의 건넌(28절)이 온다. 한 사람의 멈춤이 다른 사람의 출발과 맞닿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37 ("너희 때문에"의 첫 등장). 신 31:1-8 (여호수아 위임 재진술). 신 34:1-6 (비스가에서의 죽음).
- 다른 권 — 민 21:33-35 (옥 싸움의 원래 기록). 민 32장 (두 지파 반 분배). 민 27:12-23 (여호수아 안수).
- 정경 흐름 — 이끈 자가 약속의 땅 문턱에서 건너지 못하고 후계자에게 넘기는 결은, 한 사람의 사명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또 한 번의 싸움으로 열리는 첫 문장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옥의 철 침상 치수가 각주처럼 박힌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다 나누어 주는 분배의 목록에서 멈춘다.
- 멈춤 3: "보라, 그러나 건너지 못하리라"는 응답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다 채워진 자리의 막힘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건너지 못한 채 바라보는 산꼭대기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또 한 왕(옥)을 치고 땅을 다 차지한다
- [x] 옥의 철 침상이 치수와 함께 기록된다
- [x]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눈다
- [x] 무장하고 앞서 건넌의 조건이 붙는다
- [x]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부여된다
- [x] 모세의 간구가 거절당한다
- [x] 봄은 허락되고 건넌은 막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문턱.

미해결 질문

신명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다 채워진(정복·분배·위임) 뒤에 정작 이끈 사람이 막히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땅을 다 나눠 주고도 모세 자신은 건너지 못함.
- 본문은 그 역설의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간구를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26절)고 단호히 거절하신 까닭은?

- 간구와 단호한 거절이 한 단락에 함께 놓임.
- 본문은 그 단호함의 내력을 길게 풀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막으시면서도 "보라"(27절) 하신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 건넌은 막고 봄은 허락하는 두 가지가 한 자리에 놓임.
- 그들의 관계는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너희 때문에"(26절)가 1:37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 같은 표현이 회고 속에서 반복됨.
- 반복의 뜻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정보로 보존.

Q5. 옥의 철 침상 치수(11절)가 본 줄기에 끼어드는 까닭은?

- 승전 한복판에 한 물건의 규모가 각주처럼 기록됨.
- 그 삽입의 의도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모세의 막힘(27절)과 여호수아의 건넌(28절)이 붙어 배치된 것은?

- 한 사람의 막힘 바로 뒤에 다른 사람의 위임이 놓임.
- 그 배치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4장

DEU-004 · 오경 · 히브리어

불 가운데서 음성은 들렸으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들음과 봄의 사이에서 권고가 시작된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현재 무대는 요단 동편. 그 안에서 호렘 산(불타는 산, 음성이 들린 곳)이 가장 큰 회고 무대로 펼쳐짐.
- 소품 "불"(esh) —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11절), 24·33·36절에 반복. 24절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esh okhlah, El qanna).
- "형상"(temunah)과 "음성"(qol)의 대비 — 음성은 들리고 형상은 보이지 않음(12·15절).
- 형상 목록(16-19절): 남자·여자·짐승·새·기는 것·물고기·해·달·별 — 하늘·땅·물을 훑음.
- 끝의 도피성 셋(베셀·라못·골란)과 율법 베푼 장소(벧브올 맞은편 골짜기) 표지(41-4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회고에서 권고로 어조가 전환됨. "이제 들으라"로 듣는 이에게 바짝 다가섬.
- 불의 뜨거운 질감과 "보지 못하고 들었다"의 대비. 끝의 도피성 단락은 결이 다르게 떨어져 있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아 이제 ...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 "들으라·행하라"의 부름.
- 권고 본체의 끝(40절):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 지킴과 장수.
- 41-49절: 도피성 셋과 "이는 모세가 베푼 율법이니라"(44절) — 다음 단락의 표제처럼 닫힘.
- 1절 "들으라"가 shema. 6장 쉼마와 같은 어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회고하는 모세 → 권면하는 모세). 청자 "이스라엘". 회고 속 호렘의 그날 백성.
- 상황 세 겹: 들으라·행하라(1-8절) / 잊지 말라·자손에게 가르치라(9-14절) / 형상을 만들지 말라(15-24절). 이어 흠어짐과 돌아옴의 미래(25-31절).
- "삼가 조심하라"(shamar) — 규례를 지키라와 마음을 지키라에 함께 쓰임(9절).
- "지혜와 지식"(chokmah·binah, 6절) — 율법이 바깥 민족에게 지혜로 보임(6-8절).
- "불 가운데서 말하는 음성을 듣고도 산 백성"의 유일함을 물어보라(32-40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들으라·행하라", 규례가 지혜로 보임
- 컷 2 (9-14절): 호렘을 잊지 말라, 자손에게 가르치라, 불·음성·언약
- 컷 3 (15-24절): 형상을 만들지 말라(목록), 소멸하는 불·질투하는 하나님

- 컷 4 (25-40절): 흠여짐과 돌아옴, 호렙의 유일함, 지키라·장수하라
- 컷 5 (41-49절): 도피성 셋, "이는 모세가 베푼 율법이니라"
- 결의 차이: 컷 1~4 권고 본체 ↔ 컷 5 표제/부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hema(שמע) — 들으라/들었다(1절). 신명기의 부름.
- esh(אש) — 불. 호렙 무대의 핵심 소품.
- qol(קול) — 음성/소리. 불 가운데서 들린 것(12절).
- temunah(תמונה) — 형상/모양(12·15절). 보이지 않은 것.
- pesel(פסל) — 새긴 우상/형상(16·23·25절).
- shamar(שמר) — 지키다/삼가다(9절 등).
- El qanna(אֱלֹהֵי קַנָּא) — 질투하는 하나님(24절).
- chokmah(חכמה)·binah(בִּינָה) — 지혜·지식(6절).
- ir miklat(עֵיר מִקְלָט) — 도피성(41-4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음성은 들림(qol) ↔ 형상은 보이지 않음(temunah)"의 대비가 형상 금지의 근거(15절).
- "들으라"(1절) → "잊지 말라"(9절) → "삼가라"(15절)로 동사가 권고를 끌고 감.
- 흠여짐(경고)과 돌아옴(약속)이 한 단락에 함께(25-31절).
- 권고 본체(1-40절)와 도피성·표제(41-49절)의 결이 다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신상 제작 관행 — 신을 형상으로 빚어 섬기는 보편 문화. 4:15-19의 형상 금지가 그 문화와 거리를 두는 결로 병행 관찰.
- 종주권 조약의 권고 단락 — 규례 준수와 충성을 명하는 화법. 1-8·40절의 권고와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4 ↔ 출 19-20 (호렙의 불·음성, 십계명)
- 신 4 ↔ 출 32장 (금송아지 — 형상의 위반)
- 신 4 ↔ 신 5장 (십계명 재진술)
- 신 4 ↔ 신 6:4 (쉐마)
- 신 4 ↔ 민 35:9-15 (도피성 제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회고를 멈추고 권면으로 돌아선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규례를 듣고 행하라. 더하지도 빠지도 말라." 그는 호렙의 그날로 데려가 잊지 말고 자손에게 가르치라 한다. 산이 불타고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으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한다. 여호와와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이시다. 그는 미래의 흠여짐과 돌아옴을 내다보고,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도 산 백성의 유일함을 물어보게 한 뒤, 규례를 지키면 땅에서 오래 살리라 권한다. 끝으로 요단 동편에 도피성 셋을 구별하고, "이는 모세가 베푼 율법이니라"로 다음 단락의 문을 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들었으나 보지 못한 그날"
- 초벌 부제: "음성은 들렸으나 형상은 보이지 않은 호렘"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신상 제작 관행 + 조약 권고 화법 + 도피성 지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24절)이 신관·교리 단정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형상 금지를 도덕·우상론으로 끝지 않고 "음성은 들림·형상은 안 보임" 대비만 기록.
- 흠어짐·돌아옴의 미래(25-31절)는 예언 해석으로 확정하지 않고 단락 구조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4장은 회고에서 권고로 돌아서며, 불 가운데서 음성은 들렸으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한 사실을 형상 금지의 근거로 삼는 권면이다.

한 문단: 본문은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는 부름으로 어조를 회고에서 권고로 바꾼다. 모세는 호렘의 그날을 잊지 말고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며, 그날 음성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한다. 그는 미래의 흠어짐과 돌아옴을 내다보고,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도 산 백성의 유일함을 물어보게 한다. 권고의 끝에 도피성 셋과 "이는 모세가 베푼 율법이니라"는 표제가 다른 결로 덧붙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요단 동편 안에 호렘 산이 다시 펼쳐짐. 소품 — 불(esh), 음성(qol)과 보이지 않은 형상(temunah), 끝의 도피성.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회고→권고로 어조 전환. "이제 들으라"로 다가섬. 불의 질감과 "보지 못하고 들었다"의 대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스라엘아 이제 ... 듣고 준행하라"(1절). 권고 끝 — "지키라 ... 장구하라"(40절). 41-49절 도피성·표제는 결이 다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권면하는 모세, 이스라엘, 호렘의 그날 백성. 들으라·잊지 말라·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권고로 엮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들으라·지혜(1~8). 컷 2 호렘을 잊지 말라(9~14). 컷 3 형상 금지(15~24). 컷 4 흠어짐·돌아옴·유일함(25~40). 컷 5 도피성·표제(41~4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보지 못함"이 금지의 근거. 권고 속 모세의 막힘(21-22절). 정보 — shema(들으라), temunah·qol 대비, 도피성(ir miklat).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으라→호렘을 기억하라→형상을 만들지 말라→흠어짐·돌아옴→유일함→지키라·장수→도피성·표제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들었으나 보지 못한 그날". 초벌 부제 — "음성은 들렸으나 형상은 보이지 않은 호렘".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불타는 호렘 앞에서 음성만 들려오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형상으로 붙잡으려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들음과 봄의 갈림:** 불 가운데서 음성(qol)은 들렸으나 형상(temunah)은 보이지 않았다(12·15절). 이 한 사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권고의 뿌리가 된다.
- 결 2 — 회고가 권고로:** "들으라"(shema)로 어조가 바뀐다. 지난 일을 들려주던 목소리가 이제 듣는 이에게 바짝 다가선다.
- 결 3 — 흠어짐과 돌아옴:** 경고와 약속이 한 단락에 함께 놓인다(25-31절). 심판을 내다보면서도 돌이켜 찾으면 만나리라 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5장** (십계명 재진술이 곧 이어짐). **신 6:4** (쉐마가 다시 울림). **신 1:3장** (모세의 막힘이 다시 회고됨).
- 다른 권 — **출 19-20** (호렘의 불·음성, 십계명). **출 32장** (금송아지). **민 35:9-15** (도피성 제도).
- 정경 흐름 — 보이지 않으시되 들리시는 분을 형상 없이 섬기라는 결은, 정경 전체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이제 들으라"는 부름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호렘의 그날을 잊지 말라는 권고에서 멈춘다.
- **멈춤 2:**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이라는 근거에서 멈춘다.

- **멈춤 3:** 흠여짐 끝에 "돌이켜 찾으면 만나리라"는 약속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들음과 봄의 사이를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형상 없이 음성을 듣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어조가 회고에서 권고로 바뀐다
- [x] "들으라"로 듣는 이에게 다가선다
- [x] 불 가운데서 음성은 들리고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 [x] "보지 못함"이 형상 금지의 근거다
- [x] 호렘을 잊지 말고 자손에게 가르치라 한다
- [x] 흠여짐과 돌아옴이 한 단락에 함께 놓인다
- [x] 권고 끝에 도피성·표제가 다른 결로 붙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들음.

미해결 질문

신명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15절)이 형상 금지의 근거가 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봄이 없었다는 사실이 만들지 말라는 권고로 이어짐.
- 본문은 그 연결의 논리를 길게 풀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음성(qol)은 들렸으나 형상(temunah)은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 들음과 봄이 한 사건에서 갈림.
- 그 갈림의 뜻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권고 한복판에 모세 자신의 막힘(21-22절)이 다시 끼어드는 까닭은?

- "너희 때문에 ...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가 권면 속에 또 나옴(1:3장에 이은 세 번째 결).
- 그 반복의 뜻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정보로 보존.

Q4. 흠여짐(경고)과 돌아옴(약속)이 한 단락(25-31절)에 함께 놓인 것은?

- 심판과 자비가 같은 호흡에 들어 있음.

• 그 공존의 결은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도피성 단락(41-49절)이 권고 끝에 갑자기 붙은 까닭은?

- 권고의 결과 다른 제도·표제가 부록처럼 박힘.
- 그 배치의 의도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다른 민족이 보고 지혜롭다 하리라"(6-8절)는 바깥의 시선은 무엇을 남기는가?

- 율법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일 것이라는 시선.
- 그 시선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5장

DEU-005 · 오경 · 히브리어

언약은 우리와 맺으셨다. 불의 음성을 건디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에게 중개를 맡긴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현재 무대는 요단 동편, 그 안에서 다시 호렘 산. 1-21절 열 마디 낭독, 22절부터 백성이 불을 두려워해 물러선 장면.
- 소품 "두 돌판"(22절), 그리고 불·구름·흑암.
- 열 마디 = "아세렛 하데바림"(asarah devarim, 열 말씀). "대면하여"(panim be-fanim, 4절).
- 시간 표지 "오늘"(hayom, 1:3절) — 호렘의 일을 현재로 당겨옴.
- 안식일 단락의 넓은 목록: 남중·여중·소·나귀·나그네(1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익숙한 열 마디가 다시 들려옴. "우리"."오늘"이 옛 언약을 현재로 끌어당김.
- 전반의 차분함과 후반(백성의 떨림)의 흔들림이 대비. 4장의 불·구름이 다시 깔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 "들으라·배우라·지키라".
- 33절: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 날이 길리라" — 행함과 삶으로 닫힘.
- 가운데 백성의 떨림(23-27절)과 모세의 중개, 여호와의 응답(28-31절)이 박힘.
- 1절 "들으라"가 shema. 4장에 이어 6장 쉼마로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 회고 속 여호와·떨던 백성. 후반 백성이 직접 발화(27절).
- 열 마디 안의 인물: 부모·이웃·종·짐승·나그네 — 관계가 촘촘.
- 상황 두 단계: 열 마디 낭독(6-21절) ↔ 중개의 청원(23-27절).
- 안식일 동사 "지키라"(shamor) — 출 20장의 "기억하라"(zakhor)와 다름. 근거도 "종 됨·인도하심"(15절)으로 출 20:11의 창조와 다름.
- 부모 공경에 약속 "네가 잘 되고 ... 오래 살리라"(lema'an yitav, 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들으라", "오늘 우리와" 언약, 호렘의 대면
- 컷 2 (6-15절): 열 마디 앞부분 — 다른 신·형상·이름·안식일
- 컷 3 (16-21절): 열 마디 뒷부분 — 부모·살인·간음·도둑·거짓·탐심

- 컷 4 (22-27절): 불의 음성, 백성의 두려움, 모세에게 중개 청함
- 컷 5 (28-33절): 여호와와의 응답,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 나눔: 컷 1~3 들려오는 말씀 ↔ 컷 4~5 반응과 응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berit(ברית) — 언약. "오늘 우리와 세우신"(2-3절).
- asarah devarim(אסרה דברים) — 열 말씀.
- shamor(שמור) — 안식일을 지키라(12절). 출 20장은 zakhor(기억하라).
- panim be-fanim(פנים בפנים) — 대면하여(4절).
- esh(אש)·qol(קול) — 불·음성. 호렙의 소품.
- hayom(היום) — 오늘(1·3절). 언약의 현재화.
- yare(יירא) — 두려워하다. 백성의 떨림(5·25절).
- lema'an yitav(למען יטב) — 네가 잘 되도록(16절).
- eved(עבד) — 종. "애굽에서 종이었더니"(1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오늘 우리와"(3절)의 현재화 — 회고를 오늘의 언약으로 다시 놓음.
- 열 마디(말씀) ↔ 백성의 떨림·중개(반응)의 두 단계.
- 안식일 동사·근거가 출 20장과 다름 — 같은 열 마디의 다른 결.
- "들으라·배우라·지키라·행하라"의 동사 사슬(1·33절)이 틀을 이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종주권 조약의 본문(stipulations) — 봉신의 의무 조항. 십계명이 언약 조항으로 회고되는 결과 병행 관찰.
- 중보자(mediator) 형식 — 신적 음성과 백성 사이에 한 사람이 서서 전함. 모세의 중개(22-31절)와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5 ↔ 출 20:1-17 (십계명 원래 기록)
- 신 5 ↔ 출 24:3-8 (언약 체결)
- 신 5 ↔ 신 4:10-13 (호렙의 불·음성)
- 신 5 ↔ 신 6:4-9 (쉐마·가르침)
- 신 5 ↔ 히 12:18-21 (호렙의 두려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 "들으라" 하고, 이 언약이 조상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워진 것임을 짚는다. 그는 호렙에서 불 가운데 들린 열 마디를 다시 낭독한다 — 다른 신·형상·이름·안식일·부모·살인·간음·도둑·거짓 증거·탐심. 그 음성이 너무 커서 백성이 떨며 모세에게 다가가 "당신이 들으시고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청한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옳다 하시고, 모세를 곁에 세워 모든 명령을 가르치게 하시며,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복을 받아 날이 길리라"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
- 초벌 부제: "불의 음성 앞에서 한 사람을 세운 백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조약 본문 형식 + 중보자 형식 + shamor/zakhor 차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안식일 동사·근거의 출애굽기 차이가 율법 비교·교리 프레임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오늘 우리와"의 현재화는 적용 설교로 끝지 않고 어휘 반복(hayom)만 기록.
- 중개의 청원은 중보자 신학으로 확정하지 않고 장면 구조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5장은 호렙의 열 마디를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으로 다시 놓고, 불의 음성을 견디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에게 중개를 맡기는 회고다.

한 문단: 본문은 "들으라"는 부름과 함께, 이 언약이 조상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워진 것임을 짚는다. 모세는 호렙에서 불 가운데 들린 열 마디를 다시 낭독하는데, 안식일 계명의 동사와 근거가 출애굽기와 조금 다르게 놓인다. 그 음성이 너무 커서 백성이 떨며 모세에게 중개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그 말을 옳다 하시며 그를 곁에 세워 가르치게 하신다. 들음과 떨림과 중개와 행함이 한 장에 엮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요단 동편 안에 호렙 산이 다시 펼쳐짐. 소품 — 두 돌판, 불·구름, "오늘"(hayom), 안식의 넓은 목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익숙한 열 마디가 다시 들려옴. "우리·오늘"이 현재로 당김. 전반의 차분함과 후반의 떨림 대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스라엘아 들으라 … 지켜 행하라"(1절). 끝 — "그 길로 행하라 … 날이 길리라"(33절). 가운데 떨림·중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여호와·떨던 백성. 열 마디 낭독 ↔ 중개의 청원. 안식일 동사 "지키라"(shamor)·근거 "종 됨"이 출 20장과 다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연기	컷 1 "오늘 우리와"(1~5). 컷 2 열 마디 앞(6~15). 컷 3 열 마디 뒤(16~21). 컷 4 떨림·중개 청원(22~27). 컷 5 응답·행하라(28~3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오늘 우리와"의 현재화. 두려움의 청을 받으심. 정보 — asarah devarim(열 말씀), shamor/zakhor 차이, 안식일 근거의 차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들으라→"오늘 우리와"→열 마디 낭독→백성의 떨림·중개 청원→응답→그 길로 행하라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 초벌 부제 — "불의 음성 앞에서 한 사람을 세운 백성".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불타는 산 아래 떨던 백성 가운데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옛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우셨다는 한 마디를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오늘 우리와"**: 언약이 조상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워진 것이라 한다(3절). 회고가 현재의 언약으로 다시 놓인다.
2. **결 2 — 다시 놓인 열 마디**: 안식일 계명의 동사("지키라")와 근거("종 됨")가 출애굽기와 다르다. 같은 열 마디가 신명기의 결로 다시 놓인다.
3. **결 3 — 떨림과 중개**: 불의 음성을 견디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에게 중개를 맡기고, 그 청이 받아들여진다(27-28절). 직접 들음이 중개를 통한 들음으로 옮겨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4:10-13 (호렙의 불·음성의 회고). 신 6:4-9 (쉐마와 가르침으로 이어짐).
- 다른 권 — 출 20:1-17 (십계명 원래 기록). 출 24:3-8 (언약 체결). 히 12:18-21 (호렙의 두려움).
- 정경 흐름 — 신적 음성과 백성 사이에 한 사람이 서는 결은, 정경 전체가 중개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들으라"는 부름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조상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라는 현재화에서 멈춘다.
- 멈춤 2: 다시 들려오는 열 마디에서 멈춘다.
- 멈춤 3: 떨며 중개를 청하는 백성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오늘 세워진 언약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불의 음성 앞에 떨며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언약이 "오늘 우리와" 세워진 것으로 놓인다
- [x] 열 마디가 다시 낭독된다
- [x] 안식일의 동사·근거가 다르게 놓인다
- [x] 불의 음성을 백성이 견디지 못한다
- [x] 백성이 한 사람에게 중개를 맡긴다
- [x] 그 청이 받아들여진다
- [x]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언약.

미해결 질문

신명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립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조상과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우신 언약"(3절)이라는 현재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 관찰 사실: 옛 언약을 현재 세대로 끌어당김.
- 본문은 그 끌어당김의 신학을 길게 풀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안식일 계명의 동사("지키라")와 근거("종 됨")가 출 20장과 다른 까닭은?

- 같은 열 마디인데 옮겨 적으며 동사와 근거가 달라짐.
- 본문은 그 차이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두려움에서 나온 백성의 중개 청원을 "옳도다"(28절) 받으신 까닭은?

- 떨며 물러선 청을 인정하심.
- 그 인정의 결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29절)이라는 탄식 같은 말은 무엇을 남기는가?

- 명령 한복판에 안타까움이 섞임.
- 그 결의 뜻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정보로 보존.

Q5. 불의 음성을 견디지 못한 백성이 한 사람에게 중개를 맡긴 것은?

- 직접 들음에서 중개를 통한 들음으로 옮겨감.
- 그 옮겨감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부모 공경에만 "네가 잘 되고 오래 살리라"는 약속이 붙은 까닭은?

- 열 마디 중 한 계명에 결과 약속이 따라옴.
- 그 약속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6장

DEU-006 · 오경 · 히브리어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한 마디가 마음에서 자녀에게로, 집의 문설주에까지 새겨진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현재 무대는 요단 동편 설교 자리. 그 말 안에서 미래의 "집"(앉고 눕고 일어나는 일상)으로 옮겨감.
- 소품이 몸과 집에 붙음: 손목에 매는 것(totafot), 미간의 표, 문설주(meuzah)와 바깥문(8-9절).
- "부지런히 가르치라"(shinnantam, 7절) — 반복해 날카롭게 새김의 어감.
- 시간 표지 하루 전체: "앉았을 때·길을 갈 때·누울 때·일어날 때"(7절).
- 받게 될 갖춰진 것: 세우지 않은 성읍·채우지 않은 집·파지 않은 우물·심지 않은 포도원(10-11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한가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가 박혀 다른 말을 끌어당김. "마음·뜻·힘을 다하여"가 세 번 쌓임.
- 일상의 결(하루)과 풍요의 경고가 깔리고, 끝에 아이의 질문·답의 문답이 박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는 곧 ... 가르치게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 가르침의 표제.
- 25절: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 행함으로 닫힘.
- 한복판에 쉼마(4-5절)가 박힘 — 가장 짧고 강한 한 문장.
- 4절 첫 단어 shema(들으라), "에하드"(echad, 한 분/유일), 5절 "사랑하라"(ahav).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 청자 이스라엘. 새 인물 "자녀"(banim) — 가르침의 대상. 후반 "아들"이 직접 발화(20절).
- 상황 세 겹: 사랑하고 새기라(4-9절) / 풍요 속에 잊지 말라(10-19절) / 자녀의 질문에 답하라(20-25절).
- 한 말씀의 번짐: 마음(6절)→자녀(7절)→손·이마(8절)→문(9절).
- "마음·뜻·힘"(levav·nefesh·meod, 5절) — 셋이 겹쳐 온전함을 이룸. meod는 보통 부사인데 명사처럼 쓰임.
- 경고의 표지 "맛사에서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16절). 답의 형식: 규례의 답이 구원 이야기(20-2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가르침의 표제, 경외·지킴의 복
- 컷 2 (4-9절): 쉼마 — 들으라·한 분·다하여 사랑하라, 새기고 매고 기록하라
- 컷 3 (10-15절): 갖춰진 좋은 땅, 배불러도 잊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
- 컷 4 (16-19절): 맛사처럼 시험하지 말라, 지켜 잘 되라

- 컷 5 (20-25절): 아들의 질문, 구원 이야기로 답하라, 지켜 행함이 의로움
- 중심: 컷 2 웨마가 가운데, 컷 1·3·4·5가 둘레를 감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hema(שמע) — 들으라(4절). 웨마의 첫 단어.
- echad(אחד) — 한 분/유일(4절).
- ahav(אהב) — 사랑하라(5절).
- levav(לב)·nefesh(נפש)·meod(מעד) — 마음·뜻·힘(5절).
- shinnantam(שמעו) — 부지런히 새기라(7절).
- mezuzah(מזוזה) — 문설주(9절). totafot(תפוח) — 손목/미간의 표(8절).
- shakhach(שחך) — 잊다.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12절).
- Massah(מסה)·nasah(נסה) — 맛사/시험하다(16절). 같은 어근.
- tsedaqah(צדקה) — 의로움(2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웨마(4-5절)를 중심에 두고 표제(1-3절)와 결말(20-25절)이 감싸는 동심원적 배치.
- 한 말씀의 번짐: 마음→자녀→몸→집(6-9절)의 점층.
- 풍요(받음)가 잊음의 자리가 될 위험(10-12절) — 고난이 아닌 받음이 경고 대상.
- 자녀의 질문에 규례가 아니라 구원 이야기로 답함(20-23절) — 문답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종주권 조약의 "온전한 충성" 요구 — 마음을 다한 충성. 6:5의 "다하여 사랑하라"와 병행 관찰.
- 구전·반복 교육 문화 — 부모가 핵심 말씀을 되풀이해 새김. 7절 "부지런히 가르치라"와 병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6 ↔ 신 5장 (십계명·언약)
- 신 6 ↔ 신 11:18-21 (말씀을 매고 새김의 반복)
- 신 6 ↔ 출 17:1-7 (맛사·므리바)
- 신 6 ↔ 마 22:37 / 막 12:29-30 (웨마의 신약 인용)
- 신 6 ↔ 신 4:9 (자손에게 가르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가르침의 표제를 열고, 경외하고 지키면 잘 되고 번성하리라 한다. 그러고는 가장 짧고 강한 한 문장을 떨어뜨린다 —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새기며, 앉고 눕고 일어나는 하루에 강론하고 손과 이마와 문에 새기라 한다. 미래의 집에서 갖춰진 좋은 것을 받아 배부를 때 잊지 말라 경계하고, 맛사처럼 시험하지 말라 한다. 끝으로 아들이 규례의 뜻을 물으면 "우리가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구원의 이야기로 답하라 하며, 지켜 행함이 의로움이 되리라로 달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 초벌 부제: "한 말씀이 마음·자녀·몸·집으로 번지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조약 충성 요구 + 구전 교육 문화 + 맛사/나사 어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절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단일성 읽기가 신관·교리 단정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마음·뜻·힘을 다하여"를 적용 설교로 끝지 않고 어휘(levav·nefesh·meod)와 점층 구조만 기록.
- 쉘마의 신약 인용(마 22장 등)은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하고 관찰에서 해석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6장은 "들으라·사랑하라"는 한 문장을 한복판에 박고, 그 한 말씀이 마음에서 자녀로, 몸에서 집으로 번져 가는 권면이다.

한 문단: 본문은 가르침의 표제로 열린다. 그 한복판에 쉘마가 떨어진다 —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새기며, 하루의 모든 결과 손·이마·문에 새기라 한다. 미래의 집에서 갖춰진 좋은 것을 받아 배부를 때 잊지 말라 경계하고, 아들이 규례의 뜻을 물으면 구원의 이야기로 답하라 한다. 들음과 사랑과 기억과 가르침이 한 장에 엮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설교 자리에서 미래의 "집"으로 무대가 옮겨감. 소품 — 손·이마·문설주(mezuzah), 하루의 네 걸, 갖춰진 좋은 것.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한가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가 박혀 끌어당김. "마음·뜻·힘을 다하여"가 세 번 쌓임. 끝의 문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가르치게 하신 명령"(1절). 끝 —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의로움"(25절). 한복판에 쉼마(4-5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이스라엘·자녀(banim). 마음→자녀→몸→집의 변집. "마음·뜻·힘"(levav·nefesh·meod)이 온전함을 이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표제(1~3). 컷 2 쉼마·새김(4~9). 컷 3 풍요의 경고(10~15). 컷 4 맛사·지킴(16~19). 컷 5 아들의 질문·답(20~2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말씀의 변집. 풍요가 잊음의 자리. 정보 — shema·echad·ahav, shinnantam(새기라), Massah/nasah 어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표제→쉼마→마음·몸·집에 새김→풍요의 경고→맛사처럼 시험 말라→아들의 질문에 구원 이야기로 답함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 초벌 부제 — "한 말씀이 마음·자녀·몸·집으로 번지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앉고 걷고 눕고 일어나는 하루 속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받은 것에 배불러 있던 마음에 '들으라'를 다시 새겨 주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한복판의 한 문장:** 표제와 결말 사이에 가장 짧고 강한 쉼마(4-5절)가 박힌다. "들으라"가 다른 모든 말을 끌어당긴다.
- 결 2 — 말씀의 변집:** 마음(6절)→자녀(7절)→손·이마(8절)→문(9절). 한 말씀이 안에서 밖으로, 몸에서 집으로 새겨진다.
- 결 3 — 풍요 속의 잊음:** 가장 큰 위험이 고난이 아니라 받음으로 놓인다(10-12절). 배부를 때 잊을까 경계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5장** (언약과 십계명 다음에 쉼마가 옴). **신 11:18-21** (매고 새김이 다시 반복됨). **신 4:9** (자손에게 가르치라).
- 다른 권 — **출 17:1-7** (맛사·므리바). **마 22:37 / 막 12:29-30** (쉼마가 신약에서 인용됨).
- 정경 흐름 — 한 말씀을 마음과 다음 세대에 새기라는 결은, 정경 전체가 기억과 전수로 이어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가르침의 표제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들으라 ... 다하여 사랑하라"는 한 문장에서 멈춘다.

- **멈춤 2:** 마음에서 문설주까지 번지는 새김에서 멈춘다.
- **멈춤 3:** 배불러 잇을까 경계하는 풍요의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들음과 사랑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복판에 "들으라·사랑하라"가 박힌다
- [x] 여호와와는 한 분으로 놓인다
- [x] 마음·뜻·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다
- [x] 한 말씀이 마음에서 자녀·몸·집으로 번진다
- [x] 풍요가 잇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 [x] 아들의 질문에 구원 이야기로 답한다
- [x] 지켜 행함이 의로움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새김.

미해결 질문

신명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4절 "여호와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의 정확한 읽기는?

- "여호와 한 분", "여호와는 하나" 등 여러 결로 읽힘(echad의 단일성).
- 본문은 한 읽기로 못 박지 않음.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2. 가장 큰 위험이 고난이 아니라 풍요(10-12절)로 놓인 까닭은?

- 관찰 사실: 다 갖춰진 것을 받아 배부를 때 잇을까 조심하라 함.
- 본문은 그 역설의 까닭을 길게 풀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3. 한 말씀이 마음→자녀→몸→집(6-9절)으로 번지는 점층은 무엇을 남기는가?

- 안에서 시작해 집 바깥문까지 새겨짐.
- 그 번짐의 결은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아들의 질문에 규례 설명이 아니라 구원 이야기로 답하라(20-23절) 하는 까닭은?

- 규례의 답이 "우리가 종이었는데 인도해 내셨다"는 이야기에 매임.
- 그 결의 뜻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정보로 보존.

Q5. 옛 한 장소 "맛사"(16절)가 경고의 표지로 불러 들어온 까닭은?

- 광야의 한 사건이 현재 권고의 표지로 끼어듦.
- 그 끌어옴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지켜 행함이 "우리의 의로움"(25절)이라 한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 행함과 의로움이 한 절에 묶임.
- 그 묶임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7장

DEU-007 · 오경 · 히브리어

택하심은 큰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를 향한다. 일곱 족속과의 구별이 사랑의 까닭에서 풀린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강 건너기 전, 모세가 백성 앞에서 말하는 자리. 무대 너머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미래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 1절에 일곱 족속이 줄지어 나옴 — 헷·기르가스·아모리·가나안·브리스·히위·여부스, "너보다 많고 강한"(rabbim wa-atsumim).
- 우상 소품: 제단·주상·아세라 목상·조각한 신상(5절), 은금(25절) — 부수고 불사를 물건.
- 복의 소재 목록: 곡식·포도주·기름·소·양·태의 소생(13-14절), 배경에 "애굽의 악질"(15절).
- 2절 "진멸하라"는 cherem(헤렘) — 신에게 온전히 바쳐 일상 용도에서 끊는 어감 (배경 자료로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1-5절)의 단호하고 무거운 명령 공기 → 6-8절 "사랑하사"에서 결이 풀림. 참가자 다수가 그 전환을 공유함.
- 후반(17-26절)은 두려움을 다독이는 격려조 ("두려워 말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cherem)로 열림 — 대상은 사람(족속).
- 26절: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을 멸할 것이니라"(cherem)로 닫힘 — 대상은 우상 물건.
- 같은 단어 cherem이 양쪽에 걸리며 사람 → 물건으로 옮겨 감. 진멸로 열려 진멸로 닫히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전하는 자) / 이스라엘 백성 / 일곱 족속(무리).
- 택하심의 까닭(6-8절): "수효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으니라"(me'at), 진짜 까닭은 "사랑하사"(ahav)와 "조상에게 하신 맹세"(shevu'ah).
- 7절 "기뻐하여 택하신"은 chashaq(붙다·애착하다). 6절 "거룩한 백성"(am qadosh)·"특별한 소유"(segullah).
- 9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언약·인애(chesed)를 지키심.
- 백성의 속말 인용(17절):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쫓아내리요" — 두려움이 본문 안에 인용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일곱 족속을 쫓아냄, 언약·통혼 금지, 우상 부수기
- 컷 2 (6-8절): 택하심의 까닭 — 적은 무리·사랑하사·맹세
- 컷 3 (9-11절): 신실하신 하나님, 천 대 언약과 보음
- 컷 4 (12-16절): 순종의 복 — 곡식·태의 소생·악질 제거
- 컷 5 (17-26절): 두려움에 대한 답,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상 멸하기
- 전환점: 컷 1→컷 2에서 차가운 명령이 "사랑하사"로 돌아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cherem(כֶּרֶם) — 진멸/헌상. 2·26절. 신에게 바쳐 끊어 냄.
- bachar(בָּחַר) — 택하다. 6·7절.
- chashaq(כָּשַׁח) — 붙다·애착하다("기뻐하여 택하신", 7절).
- ahav(אָהַב) — 사랑하다. 8·9·13절.
- me'at(מֵאֵת) — 적음. 7절, 택하심의 까닭에 놓임.
- segullah(שֶׁגֻּלָּה) — 특별한 소유/보물(6절). 70인역 λαὸν περιούσιον.
- am qadosh(אֵם קָדוֹשׁ) — 거룩한 백성(6절).
- chesed(חֶסֶד) — 인애·언약적 사랑(9·12절). 천 대까지 지키심.
- shevu'ah(שְׁבוּעָה) — 맹세(8절), 조상에게 하신 약속.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까닭절(motive clause)의 연쇄 — "왜냐하면"이 6-8절에 집중.
- cherem(2절)→cherem(26절)의 inclusio, 대상이 사람에서 물건으로 이동.
- 많음(일곱 족속, rabbim)과 적음(이스라엘, me'at)의 대조.
- "사랑하사"(8절, 하나님)와 "사랑하고"(9절, 사람)의 호응.
- 사람 진멸 어휘(cherem)와 우상 처리 어휘(부수다·불사르다, 5절)의 구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종주-봉신 조약에서 "사랑하다(ahav)"가 충성 관계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였음 — 본문의 언약 어휘와 병행 관찰.
- 전쟁 헌상(cherem) 관행이 고대 근동 비문에도 보고됨. 본문의 명령 어휘로만 관찰, 도덕 판단은 보류.
- segullah가 왕의 사사로운 보물을 가리키는 어감으로 다른 문헌에도 나타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7 ↔ 출 34:11-16 (가나안 족속·언약·통혼 금지)
- 신 7 ↔ 신 4:37 (조상을 사랑하사 후손을 택하심)
- 신 7 ↔ 신 9:4-6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님 — 다음 절로 이어짐)
- 신 7 ↔ 신 10:15 (조상에게 매여 사랑하심)
- 신 7 ↔ 신 14:2 (segullah 재등장)
- 신 7 ↔ 말 1:2 / 딤후 2:14 (사랑하심·특별한 백성)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강 건너기 전, 모세가 백성 앞에 선다. 들어갈 땅에 너보다 많고 강한 일곱 족속이 줄지어 있다. 모세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며 우상을 부수라 명한다. 그러다 결이 돌아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소유다, 그러나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다. 그 사랑은 신실로 이어져 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신다. 순종에는 곡식·태의 소생의 복이 따르고 애굽의 악질은 두지 않으신다. 백성이 "이들이 나보다 많은데" 두려워하자, 모세는 애굽에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다독이고 조금씩 쫓아내실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우상의 은금을 탐내지 말고 가증한 것을 멸하라는 명령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적은 무리를 사랑하사"
- 초벌 부제: "많고 강한 일곱 앞에서, 가장 적은 무리에게 매이신 사랑"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조약 어휘·cherem 관행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진멸 명령의 도덕 단정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절 "진멸하라"(cherem)가 도덕·윤리 단정으로 변질 위험 → 본문 표면 어휘까지만 관찰, 판단은 묵상 단계로 이월.
- "공홀히 여기지 말라"(2절)와 "사랑하사"(8절)의 병치는 한 방향으로 해소하지 않고 질문으로 보존.
- 택하심의 까닭(적음·사랑)을 선택 교리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어휘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7장은 많고 강한 일곱 족속 앞에 선 가장 적은 무리에게, 택하심의 까닭이 수효가 아니라 사랑임을 본문이 직접 못 박는 걸이다.

한 문단: 본문은 "진멸하라"(cherem)는 단호한 명령으로 열린다. 일곱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우상을 부수라는 차가운 어조가 이어지다가, 6-8절에서 결이 돌아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소유이되,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며, 진짜 까닭은 여호와와 사랑하심과 조상에게 하신 맹세다. 그 사랑은 신실로 이어져 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고, 순종에 복이 따른다. 백성의 두려움("이들이 나보다 많은데")에 모세가 답하고, 장은 다시 우상을 멸하라는 명령으로 닫힌다. 진멸 명령의 무게는 본문 표면까지만 관찰로 두고, 도덕 단정은 짚어지지 않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강 건너기 전의 자리. 일곱 족속, 부술 우상(제단·주상·아세라·은금), 복의 목록(곡식·태의 소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단호한 명령으로 열려 "사랑하사"(8절)에서 풀리고, 후반은 두려움을 다독이는 격려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진멸하라"(2절, 족속). 끝 — "그것을 멸할 것이니라"(26절, 우상). 같은 단어 cherem이 양쪽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일곱 족속. 택하심의 까닭이 "적음"(7절)과 "사랑"(8절). 백성의 두려움 인용(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쫓아냄(1~5). 컷 2 까닭(6~8). 컷 3 신실·천 대(9~11). 컷 4 복(12~16). 컷 5 두려움의 답·멸하기(17~2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을 기록해두기	진멸과 사랑의 병치. 까닭이 거꾸로(적음). 정보 — chashaq(붙으심)·chesed(천 대 인애), 사람·물건 어휘의 구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차가운 명령→사랑의 까닭→복→두려움의 답→다시 멸하라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적은 무리를 사랑하사". 초벌 부제 — "많고 강한 일곱 앞에서, 가장 적은 무리에게 매이신 사랑".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강 건너기 전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적은 까닭에 매이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거꾸로 된 까닭:** 택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직접 말한다(7절). 셈법이 뒤집힌 자리에 사랑이 놓인다.
- 결 2 — 사랑하사 /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ahav(사랑)하시고(8절), 그 다음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신다(9절). 두 사랑이 순서로 맞물린다.

3. **결 3 — 진멸의 양쪽 걸림**: cherem이 처음(족속, 2절)과 끝(우상, 26절)에 같이 박혀, 장 전체가 한 단어로 봉인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4:37·신 10:15** (조상을 사랑하사 후손을 택하심). **신 9:4-6** (의로움 때문이 아님 — 다음 절로 이어짐). **신 14:2** (segullah 재등장).
- 다른 권 — **출 34:11-16** (가나안 족속·언약 금지). **말 1:2·딤후 2:14** (사랑하심·특별한 백성).
- 정경 흐름 — 적은 무리를 향한 매이심의 결은, 정경 전체가 "강한 무리가 아니라 약한 곳"에 시선을 두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진멸의 무거운 명령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까닭이 "적음"으로 뒤집히는 7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사랑하사"가 까닭의 자리에 놓이는 8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신다는 9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의 적음이 흠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였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많음이 아니라 사랑에 매인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진멸(2절)으로 열려 진멸(26절)으로 닫힌다
- [x] 일곱 족속은 "많고 강한",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 [x] 택하심의 까닭이 수효가 아니라 사랑이다
- [x]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신다
- [x] 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신다
- [x] 백성의 두려움이 본문 안에 인용된다
- [x] 사람 진멸 어휘와 우상 처리 어휘가 갈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사랑하사.

미해결 질문

신명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진멸하라"(2절)와 "사랑하사"(8절)가 한 장에 함께 놓인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단락 안에 멸하라는 명령과 사랑한다는 선언이 병치됨.
- 본문은 그 둘을 어떻게 한 호흡에 두는지 설명하지 않음. 도덕 판단을 내리지 않고 묵상 단계로 이월.

Q2. 택하심의 까닭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7절 me'at(적음)이 까닭의 자리에 놓이고, 8절에서 "사랑"과 "맹세"로 옮겨감.
- 거꾸로 된 셈법의 관찰은 완료. 해석은 뒤로.

Q3. 22절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왜 한 번에 하지 않는가?

- 까닭으로 "들짐승이 번성할까" 함이 제시됨 — 현실적 이유.
- 단번의 진멸 명령(2절)과 점진적 쫓아냄(22절)이 함께 놓인 까닭은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Q4. 사람 진멸 어휘(cherem)와 우상 처리 어휘(부수다·불사르다)가 갈리는 까닭은?

- 2절은 족속에 cherem, 5절은 물건에 "부수다·불사르다", 26절은 다시 물건에 cherem.
- 어휘의 분포는 관찰까지. 그 구분의 까닭은 보존.

Q5. 25절 우상의 "은금"을 탐내면 울무가 된다는 결은 무엇인가?

- 물건이 사람을 빠뜨릴 수 있다는 표면 관찰.
- 그 까닭의 깊은 결은 본문이 길게 풀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6.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라" 명하시는 구조는 무엇을 뜻하는가?

- 8절(하나님이 사랑하사)과 9절(사람이 사랑하고)이 호응함.
- 두 사랑의 순서와 관계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8장

DEU-008 · 오경 · 히브리어

광야 40년이 낮추고 시험하여 마음을 알게 한 학교였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잊음을 경계한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회고 속 광야와, 들어갈 좋은 땅. 모세는 강 건너기 전에서 말한다.
- 광야 소품: 불뱀·전갈, 물 없는 가뭄 땅, 반석에서 난 물(15절), 만나(3절), 헤어지지 않은 옷·부르르지 않은 발(4절).
- 좋은 땅의 일곱 소산(8절): 밀·보리·포도나무·무화과·석류·감람나무·꿀. 철과 놋(9절).
- 시간 표지: "40년"(arbaim shanah, 2·4절) — 광야 전체가 한 단위.
- 5절 "아들을 징계함같이"의 징계는 mussar(훈육) — 광야를 학교로 묶는 어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회고의 따뜻함으로 열려 좋은 땅의 풍성함으로 트이고, 후반 "잊지 말라·교만 말라"에서 조여둠. 참가자 다수가 두 무대의 대비를 공유함.
- "낮추셨다"와 "시험하셨다"가 짝으로 반복되는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 생명으로 열림.
- 20절: "너희가 멸망하리니...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 멸망의 경고로 닫힘.
- 2절 "기억하라"(zakhar) ↔ 19절 "잊어버리고"(shakhach)가 양쪽에 걸림.
- 순종·기억의 길과 불순종·잊음의 길이 처음과 끝에 마주 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말하는 자) / 이스라엘. 회고 속에 만나·불뱀·반석.
- 상황은 회상 — 모세가 40년을 되짚으며 까닭을 댐.
- 광야의 까닭(2·16절): "너를 낮추시며(anah) 시험하사(nasah) 네 마음을 알려 하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 풍요의 속말 인용(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 그 답(18절):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다" — 능력의 출처를 돌려놓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명령 — 살고 번성하리라

- 컷 2 (2-5절): 광야 회고 — 낮추심·시험·만나·"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징계
- 컷 3 (6-10절): 좋은 땅 — 일곱 소산·철과 놋·"배부르거든 송축하라"
- 컷 4 (11-18절): 경고 — 배부른 뒤 교만·잇음·속말·능력의 출처
- 컷 5 (19-20절): 잇고 다른 신을 따르면 멸망하리라
- 전환점: 컷 2→컷 3(광야→좋은 땅), 컷 3→컷 4(풍성함→경고)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zakhar(זָכַר) — 기억하다. 2·18절. 능력의 출처를 돌려놓는 동사.
- shakhach(שָׁחַח) — 잇다. 11·14·19절.
- anah(אַנַּח) — 낮추다. 2·3·16절.
- nasah(נָסַח) — 시험하다. 2·16절. anah와 짝.
- man(מָנָה) — 만나(3절). "조상도 알지 못하던 것".
- lechem(לֶחֶם) — 떡(3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 mussar(מוֹסָר) — 훈육·징계(5절). 광야를 학교로 묶음.
- midbar(מִדְבָּר) — 광야. 2·15·16절.
- koach(כֹּחַ) — 힘/능력(17·18절). "내 손의 힘" ↔ "능력을 주신 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기억(zakhar)과 잇음(shakhach)의 양 축 — 장 전체의 골격.
- 낮춤(anah)+시험(nasah)의 짝이 2절과 16절에 두 번 — inclusio 결.
- 생명(1절) ↔ 멸망(20절)의 대조로 열고 닫음.
- 속말 인용(17절)과 그 답(18절)의 즉각 호응.
- 결핍(광야)과 풍요(좋은 땅)가 한 까닭(낮추심·복)으로 묶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종주가 봉신을 광야·시련으로 단련해 충성을 확인하는 모티프 — 본문의 낮추심·시험 어휘와 병행 관찰.
- 만나 같은 광야의 양식에 대한 고대 기록 — 본문 표면 관찰에 한정, 자연 설명으로 환원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8 ↔ 출 16장 (만나의 첫 공급)
- 신 8 ↔ 신 6:10-12 (배부른 뒤 잊지 말라)
- 신 8 ↔ 신 32:13-18 (기름지매 발로 찬 여수론)
- 신 8 ↔ 마 4:4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 신약 인용)
- 신 8 ↔ 호 13:6 (배부르매 마음이 교만하여 잇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강 건너기 전, 모세가 명령한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그러고는 시선을 뒤로 돌려 광야 40년을 회고한다. 불뱀과 전갈, 물 없는 땅이건만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으며, 하늘에서 만

나가 내렸다. 그 까닭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음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 화면이 좋은 땅으로 바뀐다. 일곱 소산과 철·놋이 나는 땅, "배부르거든 송축하라." 그러나 모세의 어조가 조인다. 배부른 뒤 교만하여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할까 두렵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다. 만일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로 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 초벌 부제: "광야 40년이 학교였고, 풍요가 시험이 되는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단련 모티프 + 일곱 소산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3절)를 곧장 설교 적용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 까닭절까지만 관찰.
- 풍요 경계를 도덕 훈계로 번지지 않게, 속말(17절)과 답(18절)의 어휘 호응만 기록.
- 만나를 자연 현상 설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본문 표면("조상도 모르던 것")까지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8장은 메마른 광야 40년이 낮추고 시험하여 마음을 알게 한 학교였음을 회고하며, 들어갈 기름진 땅의 풍요가 도리어 잊음의 시험이 됨을 경계하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는 명령으로 열린다. 모세는 시선을 뒤로 돌려 광야 40년을 회고한다. 불땀과 물 없는 땅이건만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조상도 모르던 만나가 내렸다. 그 까닭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음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훈육이었다. 화면이 일곱 소산의 좋은 땅으로 바뀌면 어조가 조인다. 배부른 뒤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할까 두렵다,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로 닫힌다. 기억과 잊음이 양 끝에 박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회고 속 광야(불땀·반석·만나)와 좋은 땅(일곱 소산·철·놋). 시간 표지 40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회고의 따뜻함→풍성함→경고로 조여듦. "낮추셨다·시험하셨다"의 짝이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살고 번성하리라"(1절). 끝 — "멸망하리라"(20절). 기억(2절) ↔ 잊음(19절)이 양쪽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 광야의 까닭 — 낮추심(anah)·시험(nasah). 속말(17절)과 답(1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명령(1). 컷 2 광야 회고(2~5). 컷 3 좋은 땅(6~10). 컷 4 풍요의 경고(11~18). 컷 5 멸망의 경고(19~2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결핍이 학교인 까닭. 위기를 풍요에 둬. 정보 — zakhar/shakhach의 양 축, mussar(훈육), koach(힘)의 출처 전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명령→광야 회고→좋은 땅→풍요의 경계→멸망의 경고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초벌 부제 — "광야 40년이 학교였고, 풍요가 시험이 되는 자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광야에서 좋은 땅으로 건너는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결핍의 자리도 학교였는지, 배부른 날의 잊음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결핍이 학교:** 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까닭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는 훈육(mussar)이라고 본문이 직접 댄다(3·5절).
- 결 2 — 풍요가 시험:** 가장 위험한 때가 주릴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다(12절). 채움이 잊음의 자리가 된다.
- 결 3 — 기억과 잊음의 양 축:** zakhar(2·18절)와 shakhach(11·14·19절)가 장 전체의 골격을 이루며, 기억이 능력의 출처를 돌려놓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6:10-12 (배부른 뒤 잊지 말라). 신 32:13-18 (기름지매 발로 찬 여수론, 같은 결의 확대).
- 다른 권 — 출 16장 (만나의 첫 공급). 마 4:4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 신약 인용). 호 13:6 (배부르매 교만하여 잊음).

- 정경 흐름 — 광야의 결핍과 가나안의 풍요 사이에 선 사람의 자리는, 정경 전체가 "기억하라"는 부름을 거듭하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기억하라"는 회고의 부름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결핍의 광야가 학교였다는 3·5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배부른 날의 "내 손의 힘으로"라는 속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결핍도 풍요도 다 마음을 알리는 자리였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광야와 좋은 땅 사이에서 기억하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생명(1절)으로 열려 멸망(20절)의 경고로 닫힌다
- [x] 광야 40년이 낮추고 시험하는 학교였다
- [x]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3절)
- [x] 위험한 때가 주릴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다
- [x] 능력의 출처가 "내 손"이 아니라 여호와다(18절)
- [x] 기억(zakhar)과 잊음(shakhach)이 양 축이다
- [x] 결핍 속에도 은밀한 보존이 있었다(4절)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억.

미해결 질문

신명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결핍(주림)이 별이 아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학교인 까닭은?

- 관찰 사실: 3절은 주리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까닭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
- 결핍과 공급이 한 까닭으로 묶이는 결.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Q2. 가장 위험한 때가 "주릴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12절 이후, 풍요가 잊음과 교만의 자리로 그려짐.
- 위기를 풍요에 두는 결의 관찰은 완료. 까닭은 뒤로.

Q3. 4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결핍의 광야 속 은밀한 돌보심 — 시험 가운데의 보존.
- 본문은 그 보존의 까닭을 길게 풀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4.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17절)는 속말이 인용되는 까닭은?

- 7장 17절(두려움의 속말)에 이어 8장에도 속말이 인용됨 — 본문이 마음의 말을 드러냄.
- 속말을 인용하는 본문의 방식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Q5. 만나가 "조상도 알지 못하던 것"인 낫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 낫선 양식이 의존을 가르치는 자리였는지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음.
- 그 낫섬의 관찰까지만 두고 보존.

Q6. 생명(1절)과 멸망(20절)이 한 장의 양 끝에 놓인 구조는 무엇인가?

- 순종·기억의 길과 불순종·잊음의 길이 마주 섬.
- 두 길의 마주 섬은 관찰까지. 해석은 보류.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9장

DEU-009 · 오경 · 히브리어

땅을 차지함은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금송아지와 목이 곧음의 회고, 그리고 사십 주야 옆드린 모세의 중보.

관찰된 사실

신명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강 건너기 전(들어갈 큰 성읍), 회상 속 호렘 산 위와 아래.
- 소품: 돌판 둘(luchot, 던져 깨뜨림 17절), 금송아지(egel, 불사르고 빵아 시내에 뿌림 21절), 불(15·21절).
- "아낙 자손"(anaki)의 위협적 평판 인용(2절): "누가 능히 대적하리요".
- 시간 표지: "사십 주야"가 두 번(9절 돌판 받을 때, 18절 중보할 때). 떡도 물도 안 먹음(18절).
- "목이 곧은"(qesheh oref)의 비유 — 멩에를 멘 짐승이 목을 뺏뺏이 함(6·13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위협적 무대(아낙 자손)로 열려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의 거둠으로 꺾이고, 부끄러운 회상을 지나 옆드린 중보에 무게가 실림.
- "목이 곧은"이 두 번 박히는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차지하리니" — 백성을 향한 명령으로 열림.
- 29절: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닫힘.
- 화법이 명령(1절)에서 중보 기도(29절)로 바뀜. "차지함"의 주체가 "내가"에서 "주의"로 옮겨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백성 / 아론(회상, 20절).
- 여호와의 말씀 인용: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14절).
- 까닭절(4-6절): 차지함이 "네 공의(tsedaqah)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악함과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 — 세 번 반복.
- 7절: "기억하고 잊지 말라" — 이번엔 부끄러운 일(격노케 한 것)을 기억하라.
- 반역의 목록: 호렘·다베라·맛사·기브롯 핫다아와·가데스 바네아(8-24절).
- 모세가 "옆드림"(naphal, 18·25절)으로 중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강 건너기 전 — 강대한 나라·아낙 자손, 여호와께서 건너가심

- 컷 2 (4-6절):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세 번, 목이 곧은 백성
- 컷 3 (7-12절): 호렘 회상, 돌판 받음, "속히 부패하였다"
- 컷 4 (13-17절): 멸하시려 함, 돌판을 깨뜨림
- 컷 5 (18-24절): 사십 주야 엎드림, 송아지 뺏음, 반역의 회상
- 컷 6 (25-29절): 모세의 중보 기도
- 전환점: 컷 1→컷 2(위협→거둠), 컷 5→컷 6(회상→기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tsedaqah(תְּצַדִּיק) — 공의/의로움. 4·5·6절, 모두 부정문("아니라")과 함께.
- qesheh oref(קֶשֶׁה אֶרֶב) — 목이 곧은(6·13절). 70인역 σκληροτράχηλος.
- egel(עֵגֶל) — 송아지(16·21절).
- luchot(לוחות) — 돌판 둘(9·17절).
- zakhar(זָכַר) — 기억하라(7·27절). 부끄러운 일/조상을 기억.
- marah(מָרָה) — 거역하다(7·23·24절).
- naphal(נָפַל) — 엎드리다(18·25절). 사십 주야 엎드림.
- anaki(אָנָקִי) — 아낙 자손(2절). 위협적 평판.
- nachalah(נָחַלָה) — 기업(26·29절). "주의 기업".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tsedaqah 부정)의 3중 반복(4-6절) — 후렴 결.
- 사십 주야의 두 자리(돌판 받음 9절 ↔ 엎드림 18절)가 마주 봄.
- "목이 곧은" 평이 모세의 입(6절)과 여호와의 입(13절)에 다 걸림.
- 명령(1절)에서 중보 기도(29절)로의 화법 전환.
- 기억(zakhar)의 대상이 8장(은혜)과 달리 9장은 부끄러운 일/조상.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의 거인족·아낙 자손에 대한 정탐 보고 전통 — 본문 2절의 위협적 평판과 병행 관찰.
- 황소·송아지 형상이 고대 근동에서 신의 받침대·상징으로 흔히 쓰임 — 금송아지 회상의 배경, 해석은 보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9 ↔ 출 32장 (금송아지 사건 본문)
- 신 9 ↔ 출 34:28 (사십 주야 떡도 물도 안 먹음)
- 신 9 ↔ 민 13-14장 (가데스 바네아 정탐과 반역)
- 신 9 ↔ 신 7:7-8 (택하심의 까닭이 사랑·맹세)
- 신 9 ↔ 롬 9-11 (이스라엘과 의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강 건너기 전, 모세가 외친다. 들으라, 아낙 자손의 큰 성읍을 내가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앞서 건너가 멸하시리라. 그러나 모세가 못을 박는다.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 민족의 악함과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화면이 호렘 산으로 바뀐다. 모세가 사십 주야 떡도 물도 없이 돌판을 받는데, 백성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말씀이 내려온다. 모세가 내려와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를 빵아 시내에 뿌린다. 그리고 다시 사십 주야를 엮드려, 다베라·맛사·기브룻 핫다아와·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다 끄집어 내며 중보한다.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들린다 — 멸하지 마소서,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입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 초벌 부제: "차지할 땅 앞에서, 의가 아니라 엮드림으로 받친 자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거인족·황소 상징 + 반역 목록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4-6절)를 칭의 교리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 후렴 반복까지만 관찰.
- 금송아지 회상을 도덕 정죄로 번지지 않게, 반역 목록의 분포만 기록.
- 모세의 중보를 모형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도 인용의 어휘("주의 백성·기업")까지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9장은 차지할 땅 앞에서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를 세 번 못 박고, 금송아지의 부끄러운 회상과 깨진 돌판을 지나 사십 주야 엮드린 증보로 닫히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아낙 자손의 큰 성읍을 차지하리라는 위협적 무대로 열린다. 그러나 곧 어조가 거뒤틀린다. 차지함이 네 공의(tsedaqah)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악함과 조상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세 번 못 박는다. 화면이 호렘으로 바뀌면 부끄러운 회상이 펼쳐진다. 사십 주야 받은 돌판이 산 아래에서 깨지고, 송아지는 빵여 시내에 뿌려진다. 모세가 다시 사십 주야 엮드려 여러 반역을 끄집어내며 증보하고, 백성을 "주의 백성·주의 기업"으로 돌려놓는 기도로 장이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 강 건너기 전, 호렘 산 위·아래. 돌판·금송아지·불, 사십 주야, "목이 곧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위협적 무대→"의로움 아님"의 거뒸→부끄러운 회상→엮드린 증보의 무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들오라... 차지하리니"(1절). 끝 —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29절). 명령→증보 기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아론. "네 공의 때문이 아니라"(4-6절) 세 번. 모세의 엮드림(naphal).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강대한 나라(1~3). 컷 2 의로움 아님(4~6). 컷 3 호렘 회상(7~12). 컷 4 돌판 깨뜨림(13~17). 컷 5 엮드림·빵여(18~24). 컷 6 증보(25~2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의로움 아님의 3중 반복. 큰 나라 제안의 마다함. 정보 — 사십 주야의 두 자리, "목이 곧음"의 두 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위협적 무대→의로움 거뒸→금송아지 회상→깨진 돌판→사십 주야 증보의 한 흐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초별 부제 — "차지할 땅 앞에서, 의가 아니라 엮드림으로 받친 자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모세가 엮드린 산 아래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받은 것이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누군가의 엮드림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세 번의 "아니라":** tsedaqah(공의)가 4·5·6절에 부정문과 함께 세 번 못 박힌다. 까닭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맹세로 옮겨간다.
- 결 2 — 두 사십 주야:** 돌판을 받는 사십 주야(9절)와 엮드려 증보하는 사십 주야(18절)가 마주 본다. 받음과 엮드림이 같은 숫자로 묶인다.
- 결 3 — 소유의 돌려놓음:** 증보 기도가 백성을 "주의 백성·주의 기업"으로 거뒸 돌려놓는다(27-29절). 소유의 방향이 기도의 골격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7:7-8 (택하심의 까닭이 사랑·맹세, 같은 결의 앞자리). 신 10:10-11 (사십 주야와 인도의 이어짐).
- 다른 권 — 출 32장·출 34:28 (금송아지·사십 주야 본문). 민 13-14장 (가데스 반역). 롬 9-11 (이스라엘과의,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의가 아니라 은혜와 증보로 받친 자리"의 결은, 정경 전체가 사람의 공로가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의 무게를 두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차지하리라는 위협적 약속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가 세 번 박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깨진 돌판이 산 아래 흩어지는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3: 모세가 사십 주야 엎드린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가 선 땅이 내 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엎드림으로 받쳐졌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의를 내려놓고 증보 앞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명령(1절)으로 열려 증보 기도(29절)로 닫힌다
- [x]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가 세 번 반복된다
- [x] 까닭이 민족의 악함과 조상의 맹세에 있다
- [x] 사십 주야가 받음과 엎드림 두 자리에 놓인다
- [x] 돌판이 깨지고 송아지가 뺏인다
- [x] 모세가 큰 나라 제안을 마다한다
- [x] 기도가 백성을 "주의 것"으로 돌려놓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증보.

미해결 질문

신명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가 세 번(4·5·6절) 반복되는 까닭은?

- 관찰 사실: tsedaqah(공의)가 부정문과 함께 세 번 못 박힘.
- 굳이 세 번 반복하는 본문의 강조는 관찰까지.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Q2. 모세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14절)는 제안을 마다한 까닭은?

- 자기 후손이 큰 나라가 될 제안을 거두고 백성을 위해 엎드림.
- 본문은 마다한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3. 사십 주야가 두 자리(돌판 받음·엎드림)에 같이 놓인 의미는?

- 9절(산에 올라 받음)과 18절(엎드려 중보)이 같은 숫자로 마주 봄.
- 두 사십 주야의 짝은 관찰까지. 의미는 뒤로.

Q4. "목이 곧은"이 모세의 입(6절)과 여호와의 입(13절)에 다 걸리는 까닭은?

- 같은 평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함께 나옴.
- 그 일치를 본문은 길게 풀지 않음. 보존.

Q5. 기억(zakhar)의 대상이 8장(은혜)과 달리 9장은 부끄러운 일인 까닭은?

- 7절 "격노케 한 것을 기억하라" — 같은 동사가 정반대 대상에 걸림.
- 기억의 두 방향은 관찰까지. 해석은 묵상으로.

Q6. 중보 기도가 백성을 자꾸 "주의 것"으로 돌려놓는 까닭은?

- 27-29절에 "주의 백성·주의 기업·주의 종"이 반복됨.
- 소유의 돌려놓음이 기도의 골격이 되는 결.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0장

DEU-010 · 오경 · 히브리어

다시 깎은 두 돌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의 목록. 마음의 할례, 객을 사랑하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회상 속 호렙 산(9장에서 이어짐), 지금 강 건너기 전 모세가 묻는 자리.
- 소품: 다시 깎은 두 돌판(luchot, 1-4절), 나무 궤(aron, 1-5절). 처음 것과 같은 글이 다시 새겨짐.
- 후반의 사람들: 고아(yatom)·과부(almanah)·나그네(ger)(18-19절), 떡과 옷.
- 시간 표지: 칠십 인으로 애굽에 내려감 → 하늘의 별같이 많음(22절).
- 16절 "마음의 가죽을 베고"는 mul levav — 몸의 할례를 마음에 옮긴 비유. 70인역 "마음의 완악함을 베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깨진 돌판을 다시 깎는 회복의 공기로 열려, 12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에서 마음이 모이고, 후반은 고아·과부·객을 향한 따뜻함.
- "사랑하다"가 후반(12·15·18·19절)에 몰리는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산에 오르라" — 깨진 것의 회복으로 열림.
- 22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 적은 무리의 번성으로 단합.
- 회상 속 명령(1절)에서 지금의 선언(22절)으로 시점 이동. 작고 깨진 데서 크고 많은 데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 레위 지파(8-9절,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기업) / 고아·과부·나그네.
- 핵심 질문(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shaal) 것이 무엇이나" — 답은 경외·길 걸음·사랑·섬김·계명의 목록.
- 17절: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 크심과 공정의 결합.
- 16절: "마음의 할례",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9장의 "목이 곧음"이 명령으로 이어짐).
- 19절: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 — 까닭은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다시 깎은 두 돌판, 궤에 넣음

- 컷 2 (6-9절): 여정 삽입 — 아론의 죽음, 레위 지파의 분별
- 컷 3 (10-11절): 사십 주야의 마무리, "일어나 앞서 가라"
- 컷 4 (12-16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목록, 마음의 할례
- 컷 5 (17-22절): 크신 하나님이 객을 사랑하심,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 별같이 많음
- 전환점: 컷 3→컷 4(과거에서 현재의 요구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luchot(לוחות) — 돌판. 1·2·3·4·5절.
- pasal(פסל) — 깎다·다듬다(1·3절). 깨진 것을 다시 깎음.
- aron(ארון) — 궤(1·5절).
- shaal(שאל) — 묻다·구하다(12절). "요구하시는 것".
- yare(ירא) — 경외하다(12·20절).
- ahav(אהב) — 사랑하다(12·15·18·19절).
- mul levav(מול לבב) — 마음의 가죽을 베다(16절). 70인역 마음의 완악함.
- ger(גר) — 객/나그네(18·19절).
- dabaq(דבק) — 붙좃다(20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의 질문-목록 구조(12절) — 미 6:8과 같은 결.
- 다시 깎음(1절) ↔ 별같이 많음(22절)의 회복-번성 inclusio.
- 가장 큰 것("하늘의 하늘", 14절)과 가장 작은 무리(15절)의 한 호흡 대비.
- 크심(17a절)과 공정·돌봄(17b-18절)의 결합.
- 받은 처지("너도 객이었다")가 베풀의 까닭이 되는 거꾸로 된 동기절(1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조약에서 종주가 봉신에게 요구하는 의무 조항 양식 — 본문 12절의 목록과 병행 관찰.
- 언약궤(aron)에 증거판을 보관하는 관습적 형태 — 1·5절의 배경, 해석은 보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0 ↔ 출 34:1-4 (두 돌판을 다시 깎음)
- 신 10 ↔ 신 6:5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 신 10 ↔ 신 30:6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 신 10 ↔ 렘 4:4 (마음의 가죽을 베라)
- 신 10 ↔ 미 6:8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 마 22:37 (첫째 계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깨진 돌판 다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깎아 산에 오르라 하신다. 나무 궤를 만들어 다시 새겨진 돌판을 넣는다. 잠깐 여정이 끼어들어 아론의 죽음과 레위 지파의 구별이 언급된다. 사십 주야의 회상을 마치고 "앞서 가라"는 말을 전한 뒤 시선이 지금으로 돌아온다. 모세가 묻는다 —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

엇이나. 답은 경외·길 걸음·사랑·섬김·계명, 그리고 마음의 할례다. 모세는 그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하늘의 하늘이 그분 것이건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고아·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떡과 옷을 주신다고 펼친다. 그러므로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으니. 칠십 인을 별같이 많이 하셨다는 선언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 초벌 부제: "다시 깎은 돌판 앞에서, 마음과 사랑으로 구하시는 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조약 의무 조항·언약계 형태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마음의 할례"(16절)를 신약 신학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 비유(몸→마음)까지만 관찰.
- "요구하시는 것"(12절) 목록을 율법주의/반율법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고 어휘 목록만 기록.
- "객을 사랑하라"(19절)를 사회 윤리 강령으로 번지지 않게 동기절("너도 객이었다")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0장은 깨진 돌판을 다시 깎는 회복에서 열려,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마음과 사랑으로 답하고 객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9장의 깨진 돌판 다음,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깎아 궤에 넣는 회복으로 열린다. 여정과 레위 지파의 삽입, 사십 주야의 마무리를 지나 시선이 지금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묻는다 —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답은 제물이 아니라 경외·사랑·섬김·계명, 그리고 마음의 할례다. 그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하늘의 하늘이 그분 것이건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고아·과부·객을 사랑하사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객이었으니." 칠십 인을 별같이 많이 하셨다는 선언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회상 속 호렙, 지금 강 건너기 전. 다시 깎은 돌판·궤, 고아·과부·객, 칠십 인과 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회복의 공기→12절에서 마음이 모임→후반의 따뜻함. "사랑하다"가 후반에 몰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다시 깎으라"(1절). 끝 — "별같이 많이 하셨다"(22절). 회복→번성.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레위·고아·과부·객. 핵심 질문 —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12절). 마음의 할례(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다시 깎음(1~5). 컷 2 여정 삽입(6~9). 컷 3 사십 주야 마무리(10~11). 컷 4 요구·할례(12~16). 컷 5 객 사랑·별(17~2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답이 제물 아닌 마음·사랑. "너도 객이었다"의 거꾸로 동기. 정보 — shaal(구하심), 큰 분이 작은 자에 매이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시 깎음→여정·사십 주야→요구의 질문→크신 분의 돌봄→별같이 많음의 한 흐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초별 부제 — "다시 깎은 돌판 앞에서, 마음과 사랑으로 구하시는 분".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돌판을 궤에 넣는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구하시는 것이 마음과 사랑임을, 받은 처지가 베품의 까닭임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구하시는 것의 목록:** "요구하시는(shaal) 것이 무엇이나"의 답이 경외·사랑·섬김·계명으로 채워진다(12절). 제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 결 2 — 큰 분이 작은 자에:** 하늘의 하늘이 그분 것이건만(14절),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고아·과부·객을 사랑하신다(17-18절). 크심과 돌봄이 한 호흡이다.
- 결 3 — 거꾸로 된 까닭:** "객을 사랑하라"의 까닭이 "너도 애굽에서 객이었다"이다(19절). 받은 처지가 베품의 자리가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6:5**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 30:6**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같은 결의 뒷자리). **신 9장** (깨진 돌판, 바로 앞자리).
- 다른 권 — **출 34:1-4** (두 돌판을 다시 깎음). **렘 4:4** (마음의 가죽을 베라). **미 6:8·마 22:37** (구하시는 것, 첫째 계명).

- 정경 흐름 — "마음과 사랑으로 구하시는 분"의 결은, 정경 전체가 결의 제물보다 속의 돌이킴을 구하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깨진 것을 다시 짚는 회복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마음의 가족을 베라"는 명령에서 멈춘다.
- 멈춤 3: 크신 분이 객을 사랑하사 떡과 옷을 주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며, 내가 받은 처지가 베품의 까닭이 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마음의 할례 앞에 서서 객을 사랑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다시 짚음(1절)으로 열려 별같이 많음(22절)으로 닫힌다
- [x]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의 답이 마음·사랑이다
- [x] 마음의 할례를 명한다(16절)
- [x] 큰 분이 작은 자(고아·과부·객)에 매이신다
- [x] "너도 객이었다"가 사랑의 까닭이 된다
- [x]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기업이다
- [x] 칠십 인이 별같이 많아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마음.

미해결 질문

신명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의 답이 제물이 아니라 마음·사랑인 까닭은?

- 관찰 사실: 12절의 목록이 경외·사랑·섬김·계명으로 채워짐.
- 구하시는 것이 내면과 사랑인 결의 관찰은 완료.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Q2. "너희도 객을 사랑하라"의 까닭이 "너도 객이었다"인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받은 처지가 베품의 까닭이 되는 거꾸로 된 동기(19절).
- 그 방향의 관찰까지. 의미는 뒤로.

Q3. "마음의 할례"(16절)는 몸의 표징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몸의 할례 표현을 마음에 옮겨 씀. 겉의 표가 아니라 속의 돌이킴을 명함.
- 두 할례의 관계는 관찰까지. 신학적 확정은 보류.

Q4. 가장 큰 분("하늘의 하늘")이 가장 작은 무리에 매이심이 한 호흡인 까닭은?

- 14절(가장 큰 것)과 15절(가장 작은 무리)이 곧장 이어짐.
- 크심과 매이심의 병치는 관찰까지. 까닭은 보존.

Q5. 6-9절의 여정 삽입(아론의 죽음·레위 분별)이 돌판 이야기에 끼어드는 까닭은?

- 돌판 회상 한가운데 여정과 레위 지파가 삽입됨.
- 본문은 삽입의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6. 크신 분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 돌봄과 이어지는 결은?

- 17절(공정)과 18절(고아·과부·객 돌봄)이 한 단락에 놓임.
- 공정과 돌봄의 이어짐은 관찰까지. 해석은 묵상으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1장

DEU-011 · 오경 · 히브리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순종에 매인 땅. 눈앞에 둔 축복과 저주, 그리심과 에발 두 산 위에 놓이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여럿: 회고 속 애굽·홍해·광야·다단과 아비람의 자리(6절), 들어갈 가나안 땅, 마지막의 그리심·에발 두 산.
- 물·비의 소품: 애굽의 밭 관개(10절) ↔ 가나안의 하늘 비(11절). "이른 비·늦은 비"(yoreh·malqosh, 14절).
- 쉘마의 물건: 손목·미간·문설주·바깥문(18-20절, 6장 반복).
- 공간 경계: 광야~레바논, 유브라데~서해(24절). 발바닥으로 밟는 곳.
- 12절 "여호와와 눈(einayim)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 땅을 살피는 표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너희가 보았다"의 회고로 열려, 살아 있는 땅의 묘사로 트이고, 후반 "축복과 저주"의 선택과 두 산에서 무게가 실림.
- "지키다"·"사랑하다"가 양 끝에 걸리고 "만일 ~하면"의 조건문이 골격.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지키라"(shamar) — 사랑·지킴으로 열림.
- 32절: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shamar) — 행함으로 닫힘.
- 같은 동사 shamar가 양쪽을 감쌌. 사랑(1절)에서 행함(32절)으로 좁혀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회고 속 바로, 다단·아비람(르우벤 자손, 6절).
- "너희가 본 것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희라"(2절) — 본 세대와 못 본 세대를 가름.
- 조건문(13-17절): 순종에 이른 비·늦은 비, 불순종에 하늘이 닫혀 가뭄.
- 26절: "복(brakhah)과 저주(qelalah)를 너희 앞에 두노니" — 두 단어가 짝.
- 16절: "마음(levav)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 미혹의 경계.
- 18-21절: 6장 쉘마의 반복(마음·손·문설주·자녀 교육).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회고 — "너희가 본" 큰 일들, 다단·아비람

- 컷 2 (8-12절): 들어갈 땅 — 밭 관개 애굽과 비의 가나안, 여호와와 눈
- 컷 3 (13-17절): 조건문 — 순종에 비, 불순종에 하늘 닫힘
- 컷 4 (18-25절): 쉼마 반복, 땅의 사방 경계
- 컷 5 (26-32절): 축복과 저주를 눈앞에 둠, 그리심·에발
- 큰 틀: 컷 1 "본 것"(과거) → 컷 5 "둘 것"(미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yoreh(יָרֵחַ) — 이른 비(가을비, 14절).
- malqosh(מַלְקוֹשׁ) — 늦은 비(봄비, 14절). 70인역 πρόϊμον καὶ ὄψιμον.
- matar(מָטָר) — 비(11·14·17절).
- brakhah(בְּרָכָה) — 축복(26·27·29절).
- qelalah(קִלְלָה) — 저주(26·28·29절).
- shamar(שָׁמַר) — 지키다(1·8·22·32절).
- levav(לֵבָב) — 마음(13·16·18절).
- einayim(עֵינַיִם) — 눈(12절). 땅을 살피심.
- Gerizim(그리심)·Eval(에발) — 두 산(2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문(conditional)이 골격 — "만일 ~하면"이 13·22·27·28절에 반복.
- 축복-저주(blessing-curse) 짝의 4중 반복(26-29절).
- 지킴(shamar, 1절) ↔ 지켜 행함(32절)의 감싸는 틀(frame).
- "본 것"(과거, 1-7절)과 "둘 것"(미래, 26-32절)의 시간 대비.
- 밭 관개(애굽)와 천수(가나안)의 농법 대비 → 의존의 대비(10-14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애굽의 밭 관개(나일 범람 후 수로) 농법과 가나안의 천수(비 의존) 농법의 대비 — 본문 10-11절과 병행 관찰.
- 고대 근동 조약의 축복·저주 목록이 조약 말미에 배치되는 양식 — 26-29절의 어휘 분포와 병행, 해석은 보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신 11 ↔ 신 6:4-9 (쉐마 첫 단락 — 18-21절이 반복)
- 신 11 ↔ 신 28장 (축복과 저주의 확장 목록)
- 신 11 ↔ 신 27:11-13 (그리심·에발 위의 지파 배치)
- 신 11 ↔ 수 8:30-35 (에발 산 제단과 율법 낭독)
- 신 11 ↔ 레 26장 (순종의 비·불순종의 가뭄) / 약 5:7 (이른 비와 늦은 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시선을 뒤로 돌려 "너희가 본" 큰 일들을 짚는다 — 애굽, 홍해, 광야, 다단과 아비람이 삼켜지던 일. 이것을 본 자는 너희다. 시선이 앞으로 가면, 들어갈 땅은 발로 물을 대던 애굽과 달리 하늘에서 비를 마시며 여호와와 눈이 연중 살피는 땅이다. 모세가 조건을 들이민다 —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이 닫히리라. 다시 쉼마가 반복된다 — 마음에 두고 손에 매고 문설주에 쓰라. 땅의 사방 경계가 펼쳐지고, 마지막에 무대가 두 산으로 갈라진다. 복은 그리심에, 저주는 에발에.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지켜 행하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땅"
- 초벌 부제: "하늘을 바라는 땅에서, 눈앞에 놓인 두 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애굽/가나안 농법 대비·조약 축복저주 양식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순종에 비, 불순종에 가뭄"(13-17절)을 인과응보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 조건문까지만 관찰.
- 그리심·에발(29절)을 알레고리로 끌고 가지 않고 두 산의 지형 배치만 기록.
- 18-21절 쉼마 반복을 6장과의 신학적 통합으로 확정하지 않고 반복·위치 차이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1장은 "너희가 본" 큰 일들의 회고로 열려, 비에 의존하는 땅과 순종에 매인 이른 비·늦은 비를 지나, 그리심과 에발 두 산 위에 놓인 축복과 저주로 닫히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모세가 "너희가 본 것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희라"며 애굽·홍해·광야의 큰 일을 짚는 회고로 열린다. 시선이 앞으로 가면, 들어갈 땅은 발로 물을 대던 애굽과 달리 하늘에서 비를 마시고 여호와와 눈이 연중 살피는 땅이다. 그 비가 순종에 매여 있다 — 청종하면 이른 비·늦은 비, 불순종하면 하늘이 닫힌다. 6장 웨마가 다시 반복되고 땅의 사방 경계가 펼쳐진 뒤, 무대가 두 산으로 갈라진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은 그리심에, 저주는 에발에 두라는 선포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회고 속 애굽·홍해·광야, 비에 의존하는 가나안, 이른 비·늦은 비, 손·문설주, 두 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보았다"의 회고→살아 있는 땅→축복·저주의 선택과 두 산의 무게. 조건문이 골격.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사랑하여 지키라"(1절). 끝 — "지켜 행하라"(32절). shamar가 양쪽을 감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 본 세대를 가림(2절). 조건문(13-17절), 복·저주(26절), 미혹의 경계(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회고(1~7). 컷 2 땅(8~12). 컷 3 조건문(13~17). 컷 4 웨마·경계(18~25). 컷 5 두 산(26~3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비에 매인 땅. 웨마의 반복. 두 산의 배치. 정보 — 발 관개와 천수의 대비, 축복저주 짝.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본 것의 회고→비의 땅→순종에 매인 비→웨마와 경계→두 산의 갈림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땅". 초벌 부제 — "하늘을 바라는 땅에서, 눈앞에 놓인 두 길".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그리심·에발의 골짜기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내 삶이 발로 대는 물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는 비에 매여 있음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하늘을 바라는 땅:** 애굽은 발로 물을 댔으나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마신다(10-11절). 자족이 아니라 의존의 땅이다.
- 결 2 — 비가 순종에 매임:** 이른 비·늦은 비(yoreh·malqosh)가 청종에 따라 주어진다(14절). 농사의 두 절기가 언약에 묶인다.

3. **결 3 — 두 산 위의 갈림:** 복(brakhah)과 저주(qelalah)가 추상이 아니라 그리심·에발 두 봉우리에 새겨진다(29절). 선택이 지형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6:4-9** (쉐마 첫 단락, 18-21절이 반복). **신 27:11-13** (그리심·에발의 지파 배치). **신 28장** (축복·저주의 확장).
- 다른 권 — **수 8:30-35** (에발 산 제단·율법 낭독). **레 26장** (순종의 비·불순종의 가뭄). **약 5:7** (이른 비와 늦은 비).
- 정경 흐름 — "하늘을 바라는 의존의 땅"의 결은, 정경 전체가 사람의 자족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공급에 매인 자리를 거듭 그리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너희가 보았다"는 회고의 부름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발로 대던 물에서 하늘을 바라는 비로 바뀌는 땅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른 비·늦은 비가 순종에 매인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복과 저주가 두 산에 놓이는 선포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내 삶이 의존의 땅이며 눈앞에 두 길이 놓였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 산 사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지킴(1절)으로 열려 지켜 행함(32절)으로 닫힌다
- [x] 본 세대와 못 본 세대를 가르다(2절)
- [x]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마시는 땅이다
- [x] 이른 비·늦은 비가 순종에 매여 있다
- [x] 쉐마가 다시 반복된다(18-21절)
- [x] 복과 저주가 눈앞에 놓인다(26절)
- [x] 두 산(그리심·에발)에 복과 저주가 배치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두 길.

미해결 질문

신명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비가 순종에 매여 있는 땅(13-17절)은 무엇을 뜻하는가?

- 관찰 사실: 청종에 이른 비·늦은 비, 불순종에 하늘이 닫힘.
- 인과의 단정은 내리지 않고, 비와 순종이 본문 안에서 이어진 걸까지만 관찰.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Q2. 애굽의 "밭 관개"와 가나안의 "하늘 비"가 대비되는 까닭은?

- 스스로 밭로 대던 물 ↔ 하늘만 바라는 비(10-11절).
- 농법 차이가 의존의 차이로 그려지는 걸의 관찰까지. 까닭은 뒤로.

Q3. 18-21절이 6장 쉼마를 거의 똑같이 반복하는 까닭은?

- 같은 본문이 위치를 달리해(복·저주 단락 앞) 다시 나옴.
- 본문은 반복의 까닭을 직접 설명하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4. 복과 저주를 "두 산"(그리심·에발)에 배치하는 까닭은?

- 추상적 선택이 아니라 두 봉우리 지형에 새김(29절).
- 지형에 새기는 본문의 방식은 관찰까지. 의미는 27장과 함께 묵상으로.

Q5. "너희가 본 것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희라"(2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직접 본 세대와 보지 못한 세대를 가르는 걸.
- 본 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조의 관찰까지. 해석은 보류.

Q6. "밭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소유"(24절)의 광대한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광야~레바논, 유브라테~서해의 사방 지명만 제시.
- 실제 범위를 본문은 길게 풀지 않음.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2장

DEU-012 · 오경 · 히브리어

흩어진 산당을 헐고, 여호와께서 '그 두실 곳' 한 곳으로 모이는 예배.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마주 섬: 흩어진 산당(bamot, 높은 산·작은 산·푸른 나무 아래, 2절) ↔ 여호와께서 택하실 "한 곳".
- 부술 소품: 제단·주상·아세라 목상·신상(2-3절). 가져갈 제물: 번제·다른 제물·십일조·거제·서원·낙헌·처음 난 것(6절).
- "그 택하신 곳" — maqom(곳)+bachar(택하다)+shem(이름)의 결합(5절).
- 피(dam)가 후반에 몰림(16·23-25·27절), "피는 그 생명(nefesh)"(23절).
- "네 성중"(sha'ar)이 반복(12·15·17·18·21절) — 중앙(한 곳)과 지역(성중)의 구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부수는 동작(헐고·깨뜨리고·불사르고)으로 열려, "그 택하신 곳"의 모임으로 가고, 중간에 "즐거워하라"의 따뜻함, 후반 "피를 먹지 말라"의 단호함.
- "그 택하신 곳"이 후렴처럼 도는 청각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 2-3절에서 "그들의 신 섬기던 곳을 멸하라"로 열림.
- 32절: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지니라" — 31절에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라"로 닫힘.
- "지켜 행하라"가 양쪽을 감싸고, "그들처럼 하지 말라/따르지 말라"가 처음과 끝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 / 모세 / 이스라엘 / 네 성중의 레위인(기업 없는 자, 12·18·19절).
- 이전("각기 소견대로", 8절)과 이후(정착 후 한 곳)의 구분.
- 핵심 사상 — "한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5·11·14·18·21·26절에 후렴 반복.
- 11절 "거기 거하게 하실"(shakan·머물다) — 이름이 머무는 곳. 사람이 고르지 않고 그분이 택하심.
- "즐거워하라"(simcha, 7·12·18절)가 규례 한가운데 끼어듦.
- 피 명령: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16·24절), 까닭 "피는 그 생명"(2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흩어진 산당을 헐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

- 컷 2 (5-14절): "그 택하실 한 곳"으로 나아가 드리고 즐거워하라
- 컷 3 (15-19절): 성중의 일상 도살 허용, 거룩한 것은 한 곳에서, 레위인을 잊지 말라
- 컷 4 (20-28절): 지경이 넓어질 때 — 멀거든 성중에서 잡되 피는 먹지 말라
- 컷 5 (29-32절): 그 민족의 예배를 본받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 전환점: 컷 1→컷 2(멀함에서 모임으로)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aqom(מִקוֹם) — 곳/처소(5·11·14·18·21·26절). 늘 "택하실"과 함께.
- bachar(בָּחַר) — 택하다(같은 절들).
- shem(שֵׁם) — 이름(5·11·21절). "그 이름을 두시려고".
- shakan(שָׁכַן) — 머물게 하다(11절). 이름이 머무는 곳.
- bamot(בָּמוֹת) — 산당·높은 곳(2절).
- dam(דָּם) — 피(16·23·24·25·27절).
- nefesh(נֶפֶשׁ) — 생명(23절). "피는 그 생명".
- simcha(שִׂמְחָה) — 즐거워함(7·12·18절).
- sha'ar(שַׁעַר) — 성문/네 성중(12·15·17·18·21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그 택하실 곳"의 후렴(central formula) — 여섯 번 반복.
- 흩어진 여러 곳 ↔ 한 곳의 대비가 골격.
- "지켜 행하라"(1절) ↔ "지켜 행하고 가감 말라"(32절)의 감싸는 틀, "따르지 말라"(3·31절)가 양쪽에.
- 거룩한 것(제사·십일조)과 일상의 것(고기)을 장소로 구분.
- 규례 한가운데 "즐거워하라"의 반복 삽입.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의 산당(bamot)·높은 곳 제의 — 언덕·푸른 나무 아래 지역 성소 관습. 본문 2절과 병행 관찰.
- 피를 생명으로 여겨 제의에서 다루는 고대 근동의 관념 — 23절의 까닭절과 병행, 해석은 보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신 12 ↔ 출 20:24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복을 주리라)
- 신 12 ↔ 레 17:10-14 (피를 먹지 말라 — 생명이 피에 있음)
- 신 12 ↔ 신 16장 (절기를 그 택하신 곳에서)
- 신 12 ↔ 왕상 8장 (성전 봉헌 — 이름을 두신 곳)
- 신 12 ↔ 요 4:21-24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예배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명령한다. 들어가거든 그들이 신을 섬기던 모든 곳 —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의 산당을 헐고 제단·주상·아세라를 깨뜨려 불사르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는 그리하지 말라. 결이 모인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으로 나아가,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처음 난 것을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고 즐

거위하라. 일상도 갈린다. 광야의 임시 방식은 끝났고, 고기는 성중에서 마음껏 잡아먹어도 되되 십일조·거제·서원은 한 곳에서 드리고 레위인을 잊지 말라. 지경이 넓어져 그 곳이 멀거든 성중에서 잡되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는 그 생명이니. 마지막에 경고가 달는다. 그 민족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보고 따라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그 두실 한 곳으로"
- 초벌 부제: "그분이 이름을 두실 한 곳, 흠어짐을 거두는 예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산당 제의·피=생명 관념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그 택하실 곳"(5절 등)을 예루살렘·성전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이 미래형으로만 가리키는 데까지만 관찰.
- 중앙 성소 명령을 예배론 교리로 끌고 가지 않고 한 곳/성중의 어휘 구분만 기록.
- "피는 그 생명"(23절)을 속죄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본문 까닭절까지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2장은 흠어진 산당을 헐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으로 예배를 모으며,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는 장소와 피의 규례를 세우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들어갈 땅의 흩어진 산당 — 높은 산·푸른 나무 아래의 제단을 헐고 그 이름을 지우라는 명령으로 열린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는 그리하지 말라. 결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 택하실 곳"이 후렴처럼 여섯 번 반복되며, 거기로 제물을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일상의 도살은 성중에서 허용하되 거룩한 것은 한 곳에서 드리고 레위인을 잊지 말라. 멀거든 성중에서 잡되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는 그 생명이니. 그 민족의 예배 방식을 본받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봉인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흩어진 산당(bamot) ↔ 택하실 한 곳. 부술 우상, 가져갈 제물, 피와 생명, 한 곳/성중의 구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부수는 동작→한 곳으로 모임→"즐거워하라"의 따뜻함→"피를 먹지 말라"의 단호함. "그 택하신 곳"의 후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멸하라"(2-3절). 끝 — "따르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31-32절). "지켜 행하라"가 양쪽을 감쌌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여호와·모세·이스라엘·레위인. "한 곳"(maqom+bachar)의 후렴. 규례 속 "즐거워하라". 피=생명.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산당 헐기(1~4). 컷 2 한 곳으로(5~14). 컷 3 성중 도살·레위인(15~19). 컷 4 멀거든·피(20~28). 컷 5 본받지 말라(29~3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이름 없는 "한 곳". 법 속의 즐거워함. 정보 — shakan(이름이 머뭇), 피=생명(nefesh), 한 곳/성중 구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당 헐기→한 곳으로 모임→일상과 거룩의 구분→피의 규례→본받지 말라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그 두실 한 곳으로". 초벌 부제 — "그분이 이름을 두실 한 곳, 흩어짐을 거두는 예배".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산당을 지나 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흩어진 여러 곳이 아니라, 당신이 이름을 두실 한 곳으로 모이기를."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곳의 후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여섯 번 반복된다(5·11·14·18·21·26절). 흩어진 예배가 한 곳으로 거둬진다.
- 결 2 — 법 속의 즐거워함:** 규례 한 가운데 "온 가족이 먹고 즐거워하라"(simcha)가 세 번 끼어든다(7·12·18절). 법과 기쁨이 한 단락에 놓인다.
- 결 3 — 피는 그 생명:**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명령에 "피는 그 생명(nefesh)"이라는 까닭이 붙는다(23절). 피와 생명이 같이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6장** (절기를 그 택하신 곳에서, 같은 결의 이어짐). **신 11:29** (그리심·예발, 바로 앞자리의 예배 지형).

- 다른 권 — **출 20:24**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레 17:10-14** (피=생명). **왕상 8장** (성전 봉헌). **요 4:21-24** (장소를 넘는 예배,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이름을 두실 한 곳"의 결은, 정경 전체가 흠어진 자리에서 한 곳으로, 다시 장소를 넘어선 예배로 나아가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흠어진 산당을 헐라는 명령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그 택하실 한 곳"이 후렴처럼 도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규례 한가운데 "즐거워하라"가 끼어드는 데서 멈춘다.
- 멈춤 3: "피는 그 생명"이라는 까닭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흠어진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이는 예배의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흠어짐을 거두고 한 곳으로 나아가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멸하라(2절)로 열려 따르지 말라(31절)로 닫힌다
- [x] 흠어진 산당과 택하실 한 곳이 마주 선다
- [x] "그 택하실 곳"이 후렴처럼 여섯 번 반복된다
- [x] 사람이 고르지 않고 그분이 택하신다
- [x] 규례 한가운데 "즐거워하라"가 끼어든다
- [x] 일상 도살과 거룩한 예물을 장소로 구분한다
- [x] 피는 그 생명이니 땅에 쏟으라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한 곳.

미해결 질문

신명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의 이름을 본문이 말하지 않는 까닭은?

- 관찰 사실: maqom이 여섯 번 나오되 늘 "택하실"이라는 미래형이고 구체적 지명이 없음.
- 이름을 미루는 본문의 방식은 관찰까지. 해석은 묵상 단계로 이월.

Q2. 규례 한가운데 "즐거워하라"(7·12·18절)가 끼어드는 까닭은?

- 법을 말하는 장에 기쁨의 명령이 세 번 들어옴.
- 법과 기쁨이 한 단락에 놓이는 결의 관찰까지. 의미는 뒤로.

Q3. 일상 도살은 성중에서, 거룩한 예물은 한 곳에서 갈리는 까닭은?

- 15·21절(성중 도살 허용)과 17·18절(한 곳에서 예물)의 장소 구분.
- 거룩한 것과 일상의 것을 장소로 가르는 결은 관찰까지. 까닭은 보존.

Q4. "피는 그 생명인즉"(23절)이 먹지 말라의 까닭이 되는 결은?

- 피(dam)와 생명(nefesh)을 같이 둠.
- 그 동일시의 관찰까지. 속죄론으로의 확장은 보류.

Q5. 그 민족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보지 말라"(30절)는 무엇을 경계하는가?

- 호기심·모방 자체를 경계함.
- 본문은 그 까닭을 길게 풀지 않음. 답 없이 보존.

Q6. "가감하지 말라"(32절)가 장 끝에 놓인 까닭은?

-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봉인이 규례 전체를 닫음.
- 가감 금지의 자리(맺음)는 관찰까지. 해석은 목상으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3장

DEU-013 · 오경 · 히브리어

표적이 맞아도 "다른 신을 따르자" 하면 듣지 말라. 가장 가까운 자가 선동자로 호명된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세 곳으로 이동한다 — 공적 광장(선지자, 1-5절) → 집 안(가족의 은밀한 땀, 6-11절) → 성읍 전체(거리, 12-18절).
- 소품: 표적·기사(*ot*·*mofet*), 꿈, 손, 돌, 칼(*herev*), 불, 탈취물, "영원한 무더기"(재).
- "네 가운데서"가 반복되어 무대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임을 드러낸다.
- "제하라"의 어근 *baar*(태워 없애다)가 5절과 성읍을 불사르는 16절에 두 번 울린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2장의 "기뻐하라"와 대조되는 서늘한 온도. "듣지 말라"가 첫 명령으로 온다.
- 같은 골격이 세 번 반복되며 규모가 한 사람 → 한 집 → 한 성읍으로 커지는 청각적 리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 유혹의 등장(가정문).
- 18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할 때 청종하고... 정직을 행하면" — 청종의 조건으로 닫힘.
- 위협으로 열려 "여호와께서 진노에서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고"의 자비로 방향이 틀어짐.
- "다른 신들을 따르자"(*halak acharei*)의 대상이 마지막엔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로 바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유혹자 셋: 선지자/꿈꾸는 자(1-5) → 가까운 가족·친구(6-11) → 성읍의 "불량배"(*bene beliyaal*, 12-18).
- 6절 명단: 어머니의 아들, 아들·딸, 품의 아내, 생명 같은 친구 — 가장 가까운 관계만 호명.
- 8절의 마음 동작 차단: "따르지 말라·듣지 말라·아끼지 말라·불쌍히 여기지 말라·숨기지 말라".
- 화법 골격(3회 반복): "만약 ~하거든 → 듣지/아끼지 말라 → 죽이라 →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 "은밀히 꺾어"(*hidiach... baseter*, 6절)와 공개된 표적(1절)의 대조.
- 표면 사상: 관계의 친밀함이 면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까울수록 더 단호히 끊으라 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선지자·꿈꾸는 자 — 표적 적중도 무효, 그 선지자를 죽이라("제하라" *baar*).
- 컷 2 (6-11절): 가까운 자의 은밀한 땀 — 아끼지 말고 네 손이 먼저 돌을 들라(9절).

- 컷 3 (12-18절): 한 성음의 배교 — 조사 → 칼로 진멸 → 성음·탈취물 불사름(*cherem*), 영원한 무더기.
- 규모 확장: 한 사람 → 한 집 → 한 성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navi*(נָבִי) — 선지자. / *cholem chalom*(חֹלֵם חָלוֹם) — 꿈꾸는 자.
- *ot*(אֹת) / *mofet*(מֹפֶת) — 표적/기사. 1절에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도" 무효.
- *nasah*(נָסָה, 3, נִסְּה) — 시험하다. 신8:2 광야 시험과 동일 어근.
- *hidiach*(חִדְיָח, 13·10·5, חִדְיָח) — 피어 떠나게 하다. *baseter*(בָּסֵטֶר, 6, בָּסֵטֶר) — 은밀히.
- *baar*(בָּאָר, 5, בָּאָר) — 태워 없애다/제하다. 16절 성음 불사름과 어근 올림.
- *beliyaal*(בְּלִיָּאל, 13, בְּלִיָּאל) — 무가치/쓸모없음. "불량배" = 벨리알의 아들들.
- *cherem*(כֶּרֶם, 16, כֶּרֶם) — 진멸·바침. 가나안 성음 용어가 이스라엘 성음에 적용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세 결의문(casuistic law)이 동일 골격으로 3회 반복 — "조건 → 차단 명령 → 처형 → 억지 효과".
- 규모의 점층(escalation): 개인(선지자) → 가정(혈연) → 집단(성음).
- "다른 신들"(*elohim acherim*)이 5회 반복되는 핵심 반복어.
- 위협 → 자비(18절)의 반전으로 단위가 닫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종주 외 다른 군주와 내통 금지 + 고발 의무. 신13장 "다른 신" 유혹 처벌과 구조 병행.
- 아시리아 봉신 조약(VTE): 왕에 대한 반역 선동을 들으면 고발 의무. 형제·친구 호명 구조 비교.
- 고대 근동 점술가·꿈해몽가의 사회적 권위 ↔ 본문이 표적 적중조차 무력화하는 화법의 거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3 ↔ 신 18:20-22 (참 선지자 분별 기준)
- 신 13 ↔ 신 17:2-7 (배교자 처형 절차, 두세 증인)
- 신 13 ↔ 출 22:20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진멸)
- 신 13 ↔ 마 24:24 (거짓 그리스도·거짓 선지자의 표적)
- 신 13 ↔ 갈 1:8 (천사라도 다른 복음이면 저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장에 한 사람이 일어나 표적을 보이고, 그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술렁이지만 그가 "다른 신을 따르자" 말하는 순간 본문은 "듣지 말라"로 막아선다. 장면이 집 안으로 좁아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귓가에 은밀히 속삭인다. 그 손을 잡지 말고 도리어 네 손이 먼저 들린다. 거리가 다시 넓어져 한 성음 전체가 흔들렸다는 소문이 돈다. 조사하고 자세히 물어 사실이든 칼이 들어가고 성음과 탈취물이 함께 불탄다. 영원한 무더기로 남고 다시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잣더미 뒤에 한 줄이 따라온다 — "여호와께서 진노에서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의 영상이 자비의 약속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표적이 맞아도, 듣지 말라"
- 초벌 부제: "유혹의 세 결 — 표적·혈연·성읍, 그리고 돌이키시는 자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종주권 조약 + 문학 점층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표적이 맞아도 듣지 말라"가 분별론 신학 프레임으로 번지지 않도록 — 본장에선 "표적 적중도 무효" 어휘 분포까지만 기록.
- *cherem*(진멸)의 이스라엘 성읍 적용 — 윤리 단정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 18절 "공홀"을 구원론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주의. 본문 표면(진노→돌이킴)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3장은 배교의 유혹을 한 사람·한 집·한 성읍 세 결로 펼치고, 같은 골격을 세 번 반복하며 점점 가까운 관계를 호명한다.

한 문단: 본문은 표적을 보이는 선지자에서 시작해 품속의 아내·생명 같은 친구를 거쳐 한 성읍 전체로 규모를 넓힌다. 세 단원이 모두 "만약 ~하거든 → 듣지 말라 → 죽이라 →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의 동일 골격으로 반복된다.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무효라는 충격적 조건이 첫 단원에 박혀 있고, 마지막엔 진

멸의 잣더미 뒤로 "진노에서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시고"라는 자비가 따라온다. 심판의 화법이 자비의 약속으로 닫히는 어긋남을 같이 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가 광장→집안→성읍으로 이동. 소품 — 표적·꿈·손·돌·칼·불·탈취물·재 무더기. "네 가운데서"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12장의 "기뻐하라"와 대조되는 서늘함. "듣지 말라"가 첫 명령. 세 번 반복되며 규모 점층.
3 시작과 끝	시작 —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1절, 위협). 끝 — "청중하고 정직을 행하면"(18절, 자비). 위협→자비.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유혹자 셋(선지자/혈연/불량배). 8절 마음 동작 차단 5연. "은밀히"(*baseter*)와 공개 표적의 대조.
5 장면 컷 분절	컷1 선지자(1-5) · 컷2 혈연의 핏(6-11) · 컷3 성읍 진멸(12-18). 한 사람→한 집→한 성읍.
6 의문·발견·정보	표적 적중도 무효(시험, *nasah*). 6절 명단의 누락(아버지·남편). 정보 — *cherem*이 이스라엘 성읍에 적용.
7 동영상	광장의 표적→집안의 귓속말→성읍의 불, 점점 넓어지던 칼이 마지막엔 긍휼로 돌아섬.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표적이 맞아도, 듣지 말라". 부제 — "표적·혈연·성읍, 그리고 돌이키시는 자비".
9 기도·내면 떠오름	광장·집·거리 사이를 걸으며 가까운 목소리의 분별을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세 번 반복되는 동일 골격:** 선지자·혈연·성읍이 같은 화법으로 다뤄진다. 반복이 규모의 점층(한 사람→한 성읍)을 도드라지게 한다.
- 결 2 — 표적의 무력화:** 1절에서 표적이 "그 말대로 이루어져도" 무효다. 증거가 시험(*nasah*)으로 바뀌는 결.
- 결 3 — 잣더미 뒤의 긍휼:** 진멸(*cherem*) 직후 18절에 "진노에서 돌이키사 긍휼을". 심판과 자비가 한 단원에 묶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8:20-22 (참 선지자 분별 기준). 신 17:2-7 (배교자 처형 절차).
- 다른 권 — 출 22:20 ("다른 신께 제사하면 진멸"). 마 24:24 (거짓 선지자의 표적). 갈 1:8 (다른 복음이면 저주).
- 정경 흐름 — "택하신 곳"(12장)으로 모인 예배가 13장에서 안쪽의 유혹으로 시험받는다. 예배의 중앙화와 충성의 단일화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표적이 맞는데도 "듣지 말라"는 첫 명령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6절의 명단에서 가장 가까운 이름들을 듣는 순간 멈춘다.
- **멈춤 2:** "네 손이 먼저"(9절)에서 고발과 집행이 분리되지 않음에 멈춘다.
- **멈춤 3:** 성읍의 잣더미와 "영원한 무더기"의 무게에서 멈춘다.

- 끝: 18절의 "공홀"에서 한 사람이 칼의 방향이 돌아서는 것을 본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까운 목소리를 분별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유혹이 한 사람·한 집·한 성읍 세 결로 펼쳐진다
- [x] 세 단원이 동일 골격으로 반복된다
- [x]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무효다
- [x]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호명된다
- [x] "은밀히"와 공개된 표적이 대조된다
- [x] *baar*(제하라)가 5절과 16절에 두 번 올린다
- [x] 심판 단원이 18절의 공홀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별.

미해결 질문

신명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표적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듣지 말라는 까닭은?

- 관찰 사실: 1-2절 "표적·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져도", 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nasah*)".
- 표적이 증거가 아니라 시험 도구가 되는 결. 본문은 더 설명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6절 명단에 아버지/남편이 빠진 이유는?

- 어머니의 아들, 아들·딸, 아내, 친구는 호명되나 아버지·남편은 명시되지 않음.
- 본문은 명단 선택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관찰은 누락 자체만 기록.

Q3. 고발자가 "먼저 손을 들라"(9절)는 절차의 무게는?

- "네 손이 먼저 그를 치고 그 후에 못 백성의 손이". 고발과 집행이 분리되지 않음.
- 이 절차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성읍 전체에 *cherem*(진멸)을 적용한 것은?

- 가나안 성읍에 쓰이던 진멸이 이스라엘 자신의 성읍에 적용됨(16절).
- 이 적용의 무게는 윤리·신학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류.

Q5. 탈취물을 조금도 남기지 말라(17절)는 이유는?

- "진멸할 물건을 네 손에 조금도 붙이지 말라". 전리품조차 불사름.
-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6. 심판 단원이 "금홍"(18절)로 달히는 관계는?

- 진멸 명령 직후 "진노에서 돌이키사 금홍을 베푸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 심판과 자비가 한 단원에 묶이는 결.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4장

DEU-014 · 오경 · 히브리어

거룩한 백성의 식탁. 먹는 것이 정체성이 되고, 셋째 해엔 남은 십일조가 약자에게로 흐른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나뉜다 — 식탁·부엌(음식, 1-21절)과 헛간·길·성문(십일조, 22-29절).
- 소품: 굽·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비늘 있는 물고기, 정한 새, 곡식·포도주·기름, 처음 난 가축, 돈·자루.
- "보배로운 백성"(*am segullah*, 왕의 사유 보물 어감)과 "거룩한 백성"(*am kadosh*, 구별됨)이 정체성 어휘.
- 정결 목록이 레위기 11장과 병행하나 신명기판은 약식·재배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3장의 칼 같은 경계에서 일상적 부엌·들판으로 온도가 바뀐. 동물 이름의 긴 나열.
- "거룩한 백성"이 음식 단원을 앞뒤로 감싸는 청각적 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여호와와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 — 정체성 선언으로 열림.
- 28-29절: 셋째 해 십일조를 레위인·객·고아·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 나눔으로 닫힘.
- 끝줄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 거룩함이 복으로 이어짐.
- "거룩한 백성"(*am kadosh*)이 2절·21절에 반복되어 음식 단원을 감쌌(inclusio).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너"(이스라엘), 그리고 약자 네 사람 — 레위인·객(*ger*)·고아(*yatom*)·과부(*almanah*).
- 사물: 정한/부정한 동물, 곡식·포도주·기름, 처음 난 것, 십일조를 바꿀 돈.
- 상황 둘: ① 무엇을 먹을지 고름 ② 소출의 열에 하나를 떼어 어디로 가져갈지(택하신 곳/멀면 돈/셋째 해 성문).
- 1절 "몸을 बे지 말라"(*lo titgodedu*) — 애곡 자해 금지. 23절 "여호와 앞에서"(*lifnei YHWH*) 잔치 어감.
- 표면 사상: 정체성("자녀·거룩한 백성")이 먼저, 행위(먹음·슬퍼함·나눔)가 거기서 흘러나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정체성 선언 + 애곡 자해 금지.
- 컷 2 (3-8절): 땅 짐승 — 굽(*shesa*)·새김질(*gerah*) 두 표지, 먹는 열 종과 돼지 등 금지.

- 컷 3 (9-20절): 물고기(지느러미·비늘)와 새·곤충 목록.
- 컷 4 (21절): 스스로 죽은 것 금지(객엔 허용), "거룩한 백성" 재선언, 어미 젖 금지.
- 컷 5 (22-29절): 매년 십일조(택하신 곳 잔치, 멀면 돈 변통)와 셋째 해 십일조(약자에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am kadosh*(אֱמוּנָה) — 거룩한 백성. / *segullah*(שְׁגֻלָּה) — 왕의 사유 보물.
- *tahor*(טָהוֹר) / *tame*(טָמֵא) — 정한 / 부정한.
- *shesa*(שֵׁשׁ) — 갈라진 굽. / *gerah*(גֵּרָה) — 새김질. 두 표지 모두 있어야 정함.
- *sheqets*(שִׁקְצָה) — 가증한 것(특히 물·곤충 부정).
- *lo titgodedu*(לֹא תִגְדְּדוּ,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자해하지 말라(애곡 의례).
- *maaser*(מַעֲשֵׂה) — 십일조. / *bakor*(בָּכוֹר) — 처음 난 것.
- *maqom*(מָקוֹם) — (택하신) 곳. / *lifnei YHWH* — 여호와 앞에서.
- *ger*/*yatom*/*almanah* — 객/고아/과부 (레위인과 함께 네 사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거룩한 백성"(2:21절)이 음식 목록을 감싸는 inclusio.
- 이분 분류(되는 것/안 되는 것)의 반복 — 땅·물·하늘 세 영역.
- 두 무대(음식 1-21 / 십일조 22-29)가 "구별"이라는 한 결로 묶임.
- 십일조의 두 형태: 매년(택하신 곳 잔치) vs 셋째 해(성문 안 약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애곡 의례의 자해·삭발 관습 ↔ 신14:1 금지의 거리.
- 우가릿 문헌의 '어미 젖에 새끼' 의례 추정 ↔ 신14:21 금지(본문은 이유 미상).
- 레위기 11장 정결법과의 병행 — 신명기판은 약식·재배열된 다른 묘사.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4 ↔ 레 11 (정결·부정 동물 목록 병행)
- 신 14 ↔ 신 12:17-19 (택하신 곳에서의 십일조)
- 신 14 ↔ 신 26:12-15 (셋째 해 십일조 선언문)
- 신 14 ↔ 출 23:19·34:26 (어미 젖에 새끼 삶지 말라)
- 신 14 ↔ 벰전 2:9 (택하신 족속·거룩한 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사람이 "여호와와 자녀,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호명된다. 슬플 때도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한다. 식탁이 펼쳐지고 들판의 짐승이 두 줄로 갈린다 — 굽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이쪽, 아닌 것은 저쪽. 물에선 지느러미·비늘 있는 것만, 하늘에선 정한 새만. 목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너는 거룩한 백성"이 울려 음식 단원을 닫는다. 장면이 헛간으로 옮겨가 소출의 열에 하나를 떼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길이 멀면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 원하는 것을 사 잔치한다. 셋째 해가 오면 그해 십일조는 성문 안에 쌓여 레위인·객·고아·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된다. 마지막 줄이 복의 약속으로 닫힌다. 정체성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헛간으로, 헛간에서 약자의 입으로 거룩함이 흐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거룩한 백성의 식탁"
- 초벌 부제: "구별과 나눔 — 정한 것·부정한 것·셋째 해의 십일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5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애곡 의례 + 레11 병행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정결법을 위생·건강론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장에선 "정체성으로 묶임" 어휘 분포까지만 기록.
- 21절 어미 짓 금지의 까닭 — 추정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 십일조의 두 형태를 제도사 논쟁으로 끌지 않도록 주의. 본문 표면(나란히 둠)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4장은 먹는 것과 나누는 것을 한 정체성("거룩한 백성")으로 묶어, 구별이 나눔으로 흐르게 한다.

한 문단: 본문은 "너는 여호와와 자녀,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선언으로 열린 뒤, 땅·물·하늘 세 영역의 음식을 두 줄로 갈라 보인다. 음식 목록은 "거룩한 백성"(2·21절)이라는 어구로 앞뒤가 감싸여, 구별의 근거가 위생이 아니라 정체성임을 드러낸다. 무대가 헛간으로 옮겨가면 소출의 십일조를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먹는 잔치가 되고, 셋째 해엔 그 십일조가 레위인·객·고아·과부 네 사람에게 흘러 "먹고 배부르게" 한다. 거룩함이 식탁을 거쳐 약자의 입으로 흐르는 걸을 같이 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둘 — 식탁·부엌(음식)과 헛간·성문(십일조). 소품 — 정한/부정한 동물, 곡식·포도주·기름, 돈. "보배로운 백성"(*segullah*).
2 첫 느낌·분위기	칼 갈던 13장에서 일상적 부엌·들판으로. 동물 이름의 긴 나열. "거룩한 백성"이 음식 단원을 감쌌.
3 시작과 끝	시작 — "여호와와 자녀... 거룩한 백성"(1-2절). 끝 — 셋째 해 십일조로 약자가 "먹고 배부르게"(28-29절). 정체성→나눔.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너"와 약자 네 사람(레위인·객·고아·과부). 상황 둘 — 먹을 것 고름, 십일조의 행선지 정함. 정체성이 행위에 앞섬.
5 장면 컷 분절	컷1 정체성(1-2) · 컷2 땅짐승(3-8) · 컷3 물·하늘(9-20) · 컷4 단는 괄호(21) · 컷5 십일조(22-29).
6 의문·발견·정보	구별을 정체성으로만 묶음. 21절 객 차등과 어미 젖 금지. 정보 — 셋째 해 십일조가 신26:12-15에 재 등장.
7 동영상	정체성→식탁(두 줄 갈림)→헛간(택하신 곳 잔치/돈 변통)→성문(약자가 배부름)→복의 약속.
8 초별 제목·부제	초별 제목 — "거룩한 백성의 식탁". 부제 — "구별과 나눔 — 정한 것·부정한 것·셋째 해의 십일조".
9 기도·내면 떠오름	식탁·헛간·성문 사이를 걸으며 일상의 먹음·나눔이 정체성과 잇닿음을 주게 아된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감싸는 "거룩한 백성"**: 2절과 21절의 같은 어구가 음식 목록을 앞뒤로 감싼다(inclusio). 구별의 근거가 정체성임을 형식이 드러낸다.
2. **결 2 — 두 무대의 한 결**: 음식(1-21)과 십일조(22-29)가 떨어진 주제 같지만, "구별"과 "여호와 앞"이라는 한 결로 묶인다.
3. **결 3 — 흐르는 거룩함**: 정체성→식탁→약자의 입으로 거룩함이 흐른다. 셋째 해엔 분깃 없는 네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2:17-19 (택하신 곳의 십일조). 신 26:12-15 (셋째 해 십일조 선언문).
- 다른 권 — 레 11 (정결 동물 목록 병행). 출 23:19 (어미 젖 금지). 뱀전 2:9 (택하신 족속·거룩한 나라).
- 정경 흐름 — 13장의 충성(다른 신 경계)이 14장에서 구별된 일상(식탁·나눔)으로 이어진다. 마음의 단일함이 몸의 구별로 내려온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여호와와 자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호명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음식이 두 줄로 갈리는 자리에서, 먹는 일이 정체성과 잇닿음에 멈춘다.
- 멈춤 2: 목록을 닫는 "너는 거룩한 백성"(21절)의 반복에서 멈춘다.
- 멈춤 3: 십일조를 돈으로 바꿔 "원하는 것을 사 잔치하라"는 변통에서 멈춘다.
- 끝: 셋째 해 성문 안에서 네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일상의 먹음·나눔이 거룩함과 잇닿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정체성 선언("자녀·거룩한 백성")이 먼저 온다
- [x] 음식이 땅·물·하늘 세 영역에서 두 줄로 갈린다
- [x] "거룩한 백성"이 음식 목록을 앞뒤로 감싼다
- [x] 음식과 십일조 두 무대가 "구별"로 묶인다
- [x] 십일조가 택하신 곳 잔치가 된다
- [x] 셋째 해엔 약자 네 사람에게 흐른다
- [x] 거룩함이 나눔과 복으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나눔.

미해결 질문

신명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음식 구별의 까닭을 "거룩한 백성"으로만 묶는 이유는?

- 관찰 사실: 2:21절 "거룩한 백성이라"가 목록을 감쌌. 위생·이유 설명 없음.
- 본문은 구별의 근거를 정체성으로만 댔. 묵상으로 이월.

Q2. 21절에서 스스로 죽은 것이 객에겐 허용되는 이유는?

- "성중 객에게 주거나 이방인에게 팔라". 이스라엘에겐 금지, 객엔 허용.
- 본문은 차등의 까닭을 말하지 않음. 관찰은 차등 자체만 기록.

Q3. "어미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가 음식 목록 끝에 붙은 까닭은?

- 21절 끝에 갑자기 삽입됨. 출23:19·34:26에도 반복.
-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4. 십일조를 "돈으로 바꿔" 가져가는 변통(24-26절)의 무게는?

- 길이 멀면 돈으로 바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 제의와 일상 잔치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5. 매년 십일조와 셋째 해 십일조는 어떻게 함께 가는가?

- 매년(택하신 곳 잔치)과 셋째 해(성문 안 약자)가 나란히 놓임.
- 두 제도의 관계는 본문이 정렬만 함. 보류.

Q6. 셋째 해 십일조의 수혜자가 "네 사람"으로 묶인 까닭은?

- 레위인·객·고아·과부 — 분깃 없는 자와 사회적 약자가 한 묶음.
- 이 묶음의 선택 이유는 답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5장

DEU-015 · 오경 · 히브리어

일곱째 해의 면제와 종의 해방. 손을 펴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리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채권 장부 앞(면제, 1-11절), 종의 집(해방, 12-18절), 제단 곁(처음 난 것, 19-23절).
- 소품: 손("펴라"·"거두지 말라"), 양식·포도주·기름, 송곳(*martzea*)과 문(*delet*), 처음 난 가축, 피.
- "일곱째 해 끝"이라는 시간 표지가 제도의 축. 빛도 종도 7년 주기로 풀림.
- "면제"(*shemittah*, '손을 떼다')와 LXX *ἄφεσις*(사면·해방)의 어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따뜻하되 단호함. "손을 펴라"와 "마음을 굳게 말라"가 함께 와 마음을 미리 다름.
- "형제"의 반복이 채무자·종을 가족 안으로 끌어들임. 7년의 숫자 리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 제도 선언으로 열림.
- 23절: 처음 난 것의 피를 "물 같이 땅에 쏟으라" — 제의로 닫힘.
- 놓아 줌(면제)으로 열려 여호와 앞 잔치로 닫힘.
- 면제·종 해방 단원 모두에 "복을 주시리라"(*barak*)가 반복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너"(채권자·주인)와 "네 형제"(*ach*) — 채무자도 종도 형제. "가난한 자"(*evyon*) 반복 호명.
- 9절: 면제년이 인색의 핑계가 되는 마음("악한 생각", *davar beliyaal*)을 미리 붙잡음.
- 7-8절: "마음을 완악하게 말라"(*lo teametz*) + "손을 펴라"(*patoach tiftach*, 강조 부정사). 마음·손 한 쌍.
- 13절: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 양·타작마당·포도주 틀에서 후히 줌.
- 16-17절: 종이 머물기 원하면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영원한 종.
- 표면 사상: 풀어 줌이 손해가 아니라 복의 자리("갑절의 샅", 18절). 근거는 "너도 종이였음"(1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칠 년 끝 면제 — 형제의 빛을 놓음(타국인 예외), 복의 약속.
- 컷 2 (7-11절): 가난한 형제 — 마음을 굳게 말고 손을 펴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리라".
- 컷 3 (12-18절): 종의 해방 — 6년 후 자유, 빈손 금지, 머물면 송곳·문 의례.

- 컷 4 (19-23절): 처음 난 것 — 수컷 구별·여호와 앞 잔치, 흠 있는 것은 성중, 피는 쏟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shemittah*(1, שְׁמִטָּה절) — 면제. 동사 *shamot* '놓아 버리다·손을 떼다'. LXX *ἄφεσις*.
- *ach*(אָח) — 형제. / *evyon*(עִיּוֹן) — 궁핍한 자/가난한 자.
- *patoach tiftach*(8, פָּתוּחַ תִּפְתָּח절) — "반드시 펴라"(강조 부정사).
- *lo teametz et-levavcha*(7절) — "네 마음을 완악하게 말라".
- *chofshi*(12, חֹפְשִׁי절) — 자유로운/해방된.
- *martzea*(17, מַרְצֵא절) — 송곳. / *ozen*(אָזֵן) — 귀. / *delet*(דֶּלֶת) — 문.
- *bakor*(19, בָּכוֹר절) — 처음 난 것. 일·털깎기 면제.
- *davar beliyaal*(9, דָּבָר בְּלִיָּאֵל절) — 악한/무가치한 생각.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7년"이 컷 1(면제)과 컷 3(종 해방)을 잇는 공유 구조.
- "손을 펴라"(8·11절)와 "마음을 굳게 말라"(7절)의 손·마음 짝.
- 4절("없으리라", 조건문) vs 11절("항상 있으리라", 현실 진술)의 긴장.
- 동기절(motive clause) "너도 종이었음을 기억하라"(15절)가 명령의 근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메소포타미아 미샤롬/안두라루 칙령: 새 왕 즉위 시 부채 탕감·노예 해방. 신15장은 정기 주기로 두는 결이 다름.
- 함무라비 법전의 채무 노예 3년 한정 ↔ 신15장 6년 봉사·7년 해방의 대조.
- 고대 근동 귀 뚫기·표지 관습(영구 종속) ↔ 신15:17 송곳·문 의례 비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5 ↔ 출 21:2-6 (히브리 종 6년·7년, 귀 뚫기 병행)
- 신 15 ↔ 레 25 (안식년·희년)
- 신 15 ↔ 신 14:28-29 (셋째 해 십일조, 약자 돌봄)
- 신 15 ↔ 눅 4:18-19 (*ἄφεσις*, 자유의 해)
- 신 15 ↔ 마 26:11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일곱째 해 끝에 채권 장부가 펼쳐진다.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을 독촉하지 않고 손을 떼다(타국인은 예외). 면제년이 가까워질 때 한 마음이 "곧 면제년인데 손해 아닌가" 흔들리지만, 본문은 그 생각을 미리 붙잡아 "마음을 굳게 말고 손을 펴라" 한다. 장면이 종의 집으로 옮겨가 6년 섬긴 형제가 자유를 얻는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양 떼·타작마당·포도주 틀에서 후히 채워 보낸다. 어떤 종은 "주인을 사랑하므로" 머물기를 택하고,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영원한 종의 표를 받는다. 마지막 무대는 제단 곁 —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 여호와 앞에서 먹고, 흠 있는 것은 성중에서, 피는 물처럼 땅에 쏟는다. 풀어 주는 손마다 "복을 주시리라"가 따라 흐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을 펴라, 마음을 굳게 말라"
- 초벌 부제: "면제의 해 — 빛·종·처음 난 것, 그리고 펴는 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미샤룸 칙령 + 출21 병행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항상 있으리라"를 사회론·경제론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장에서 두 문장의 결 차이(조건문/현실 진술)까지만 기록.
- 종의 영구 종속(귀 뚫기)을 윤리 단정으로 끝지 않도록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 "복을 주시리라"를 번영 논리로 끝지 않도록 주의. 본문 표면(풀어 주는 손에 약속)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5장은 일곱째 해를 축으로 빛과 종을 풀어 주고, 그 풀어 줌을 손해가 아니라 복의 자리로 둔다.

한 문단: 본문은 칠 년 끝의 면제(*shemittah*, '손을 떼다')로 열려, 가난한 형제 앞에서 "마음을 굳게 말고 손을 펴라"는 명령으로 마음과 손을 동시에 다룬다. 무대가 종의 집으로 옮겨가면 6년 섬긴 형제가 일곱째 해에 자유를 얻고, 빈손이 아니라 후한 선물과 함께 떠난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법 안에 사랑으로 머무는 영원

한 종(귀 뚫기)의 길이 나란히 놓인다. 마지막은 처음 난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의로 달한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4절)와 "항상 있으리라"(11절)가 한 장 안에서 부딪치는 긴장을 같이 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셋 — 채권 장부·종의 집·제단 결. 소품 — 손·송곳·문·처음 난 가죽·피. "일곱째 해"가 축.
2 첫 느낌·분위기	따뜻하되 단호. "손을 펴라"와 "마음을 굳게 말라"가 함께. "형제"의 반복, 7년의 리듬.
3 시작과 끝	시작 — "매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1절). 끝 — 처음 난 것의 피를 "물 같이 쏟으라"(23절). 면제→제의.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너"와 "네 형제"(*ach*), "가난한 자"(*evyon*). 9절 인색의 마음을 미리 붙잡음. 근거 — "너도 종이였음"(15절).
5 장면 컷 분절	컷1 면제(1-6) · 컷2 펴는 손(7-11) · 컷3 종 해방(12-18) · 컷4 처음 난 것(19-23).
6 의문·발견·정보	4절 vs 11절의 긴장. 형제/타국인 차등. 정보 — 귀 뚫기가 출21:6과 병행, 여종도 동일 규정.
7 동영상	장부 앞 손을 땀→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음→종의 자유와 후한 선물→문에 귀를 댄 종→제단 결. 풀 때마다 "복".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손을 펴라, 마음을 굳게 말라". 부제 — "면제의 해 — 빛·종·처음 난 것, 그리고 펴는 손".
9 기도·내면 떠오름	장부 앞·종의 집·제단 결을 걸으며 인색의 결을 주께 아뢰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7년의 공유 축:** 빛의 면제(컷1)와 종의 해방(컷3)이 같은 "일곱째 해" 구조를 나눈다. 시간이 풀어 줌의 장치다.
- 결 2 — 손과 마음의 짝:** "손을 펴라"(*patoach tiftach*)와 "마음을 굳게 말라"(*lo teametz*)가 한 쌍으로 묶인다. 행위 전에 마음을 다룬다.
- 결 3 — 두 진술의 긴장:** "없으리라"(4절, 조건)와 "항상 있으리라"(11절, 현실)가 화해 없이 나란히 놓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4:28-29 (셋째 해 십일조, 약자 돌봄). 나눔의 결이 이어짐.
- 다른 권 — 출 21:2-6 (히브리 종·귀 뚫기 병행). 레 25 (안식년·희년). 눅 4:18-19 (*ἄφεσις*, 자유의 해).
- 정경 흐름 — 14장의 "거룩한 백성의 나눔"이 15장의 "풀어 주는 손"으로 구체화된다. 십일조가 채권·노동의 면제로 확장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선언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곧 면제년인데 손해 아닌가"라는 마음을 본문이 미리 붙잡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후함에서 멈춘다.
- 멈춤 3: 문에 귀를 댄 영원한 종의 표에서 멈춘다.
- 끝: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리라"(11절)와 함께 손이 펴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인색의 마음과 펴는 손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일곱째 해가 빛과 종을 푸는 축이다
- [x] "손을 펴라"와 "마음을 굳게 말라"가 한 쌍이다
- [x] 면제년이 인색의 핑계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이 미리 다룬다
- [x] 종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
- [x] 자유의 법 안에 영원한 종의 길이 함께 있다
- [x] "없으리라"와 "항상 있으리라"가 긴장한다
- [x] 처음 난 것의 제의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풀어 줌.

미해결 질문

신명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4절)와 "항상 있으리라"(11절)는 어떻게 함께 가는가?

- 4절은 조건문("청종하면"), 11절은 현실 진술. 한 장 안에 두 결이 공존.
-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둘 뿐 조화시키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형제와 타국인의 면제 차등(3절)의 까닭은?

- 타국인에겐 독촉 가능, 형제만 면제. 본문은 이유를 길게 말하지 않음.
- 관찰은 차등 자체만 기록. 보류.

Q3. 자유를 주는 법 안에 영구 종속(귀 뚫기)이 함께 있는 까닭은?

- 16-17절: 종이 사랑으로 머물기를 택하면 영원한 종이 됨.
- 해방과 영구 종속이 나란히 놓임. 답하지 않고 보존.

Q4.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13절)의 후한 선물의 무게는?

- 양·타작마당·포도주 틀에서 후히 줌. 해방이 단순 방면이 아님.
- 이 후함의 까닭은 "너도 종이였음"(15절)에 매임. 더는 답하지 않음.

Q5. "갑절의 샅"(18절)이라는 표현의 결은?

- 종이 6년 섬긴 것을 "품꾼의 샅의 갑절"로 봄. 풀어 줌을 손해 아닌 자리로 둬.
- 이 셈법의 까닭은 보류.

Q6. 처음 난 것의 피를 "물 같이 쏟으라"(23절)는 까닭은?

- 흠 있는 것은 성중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고 쏟으라.
- 피에 대한 규정의 까닭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6장

DEU-016 · 오경 · 히브리어

세 번 모이는 절기와 한 번 울리는 공의. 해마다 세 번 택하신 곳에서 기뻐하라, 정의만을 따르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 "택하신 곳"의 절기 마당(1-17절)과 성문의 법정(18-22절).
- 소품: 누룩 없는 떡·"고난의 떡"(*lechem oni*), 양·소, 자원하는 예물, 아세라 목상·돌 기둥(*matzevah*, 금지).
- 세 절기가 농경 달력에 매임 — 보리(유월절)·밀(칠칠절)·과실(초막절).
- "택하신 곳"이 절기마다 반복(2·6·7·11·15·16절)되어 단원을 묶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기뻐하라"(*samach*)의 반복으로 잔치 분위기. 약자 네 사람이 잔치에 함께 불림.
- 같은 곳으로 세 번 모였다 흠어지는 리듬. 끝에서 갑자기 법정으로 장면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빫월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 절기 명령으로 열림.
- 22절: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 금지로 닫힘.
- 잔치(모임)로 열려 공의·우상 금지(경계)로 닫힘.
- 절기 단원과 사법 단원이 "택하신 곳" 질서로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절기 인물: "너"와 온 가족, 종·레위인·객·고아·과부(11·14절 두 번 호명).
- 사법 인물: 재판관(*shofet*)·지도자(*shoter*) — 성읍마다 세움.
- 19절: 재판 굽히지 말라·외모 보지 말라·뇌물(*shochad*) 받지 말라.
- 20절: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tzedeq tzedeq tirdof*) — *tzedeq* 두 번 반복(강조).
- "기뻐하라"(*samach*)가 명령형으로 반복 — 기쁨이 의무 형태.
- 표면 사상: 모임의 기쁨과 재판의 공의가 같은 질서 안. 근거 —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유월절·무교절 — 아빫월, "고난의 떡", 택하신 곳, 이레.
- 컷 2 (9-12절): 칠칠절 — 곡식 거둠 후 칠 주, 자원 예물, 약자와 기뻐하라.
- 컷 3 (13-15절): 초막절 — 타작마당·포도주 틀 소출, 이레, "온전히 기뻐하라".

- 컷 4 (16-17절): 일 년 세 번 모임 —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대로 드림.
- 컷 5 (18-22절): 재판관·지도자 세움, "정의만을 따르라", 아세라·주상 금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pesach*(פסח) — 유월절. / *matzot*(מַצוֹת) — 무교병. / *lechem oni*(לֶחֶם אֲנִי, 3, 3) — 고난의 떡.
- *chag shavuot*(חַג שבועות) — 칠칠절. / *chag sukkot*(חַג סוכות) — 초막절.
- *samach*(סָמַח) — 기뻐하라(명령형 반복).
- *maqom*(מָקוֹם) — (택하신) 곳.
- *shofet*(שׁוֹפֵט) — 재판관. / *shoter*(שׁוֹטֵר) — 지도자/관리.
- *tzedeq tzedeq tirdof*(צֶדֶק צֶדֶק תִּרְדּוֹף, 20) —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이중 강조).
- *shochad*(שׁוֹחַד, 19) — 뇌물.
- *asherah*(אֲשֵׁרָה) / *matzevah*(מַצֵּבָה, 21-22) — 아세라 목상 / 돌 기둥(금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세 절기가 같은 틀("지키라→택하신 곳→기뻐하라") 반복 — 달력 구조.
- 절기 묘사 길이 차이 — 유월절(1-8)이 가장 길고 칠칠절·초막절은 짧음.
- "택하신 곳"의 반복이 절기 전체와 사법을 한 질서로 묶음.
- 20절 *tzedeq*의 이중 반복 — 강조의 화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농경 절기 주기(보리·밀·과실 수확) ↔ 신16장 세 절기의 달력 배경.
- 가나안 풍요 제의의 아세라 목상·마체바 ↔ 신16:21-22 금지의 거리.
- 고대 근동 재판관의 뇌물 관행 ↔ 신16:19 "뇌물 받지 말라"의 대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6 ↔ 출 12 (유월절 제정)
- 신 16 ↔ 출 23:14-17·34:18-23 (세 절기 순례)
- 신 16 ↔ 레 23 (절기 달력)
- 신 16 ↔ 요 7:2 (초막절)
- 신 16 ↔ 행 2 (오순절/칠칠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빱월 봄밤, 한 가족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이레 동안 먹는다. 떡이 급히 나온 그 밤을 기억하게 한다. 일곱 주가 지나 곡식을 거둔 뒤 다시 그 곳으로 올라가 칠칠절을 지킨다.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종·레위인·객·고아·과부가 함께 기뻐한다. 가을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둔 뒤 초막절에 또 올라가 이레 동안 "온전히 기뻐하라" 한다. 일 년에 세 번, 같은 곳으로 모였다 헤어진다. 그리고 동영상의 절기 마당을 떠나 성문으로 옮겨간다. 성읍마다 재판관과 지도자가 세워지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만을 따르라" 한다. 마지막엔 제단 곁에 아세라 목상도 돌 기둥도 세우지 말라는 경계로 닫힌다. 잔치의 기쁨이 공의와 순결로 마무리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세 번 모여 기뻐하라"
- 초벌 부제: "절기와 공의 — 세 번의 모임, 그리고 정의를 따르는 손"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농경 절기 + 가나안 제의 대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세 절기를 신약 성취론(유월절→십자가 등)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장에선 농경 달력·반복 틀까지만 기록.
- "정의를 두 번 부름"(20절)의 까닭 — 강조/이중 측면 논의는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 아세라·주상 금지를 비교종교론으로 끝지 않도록 주의. 본문 표면(제단 곁 금지)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6장은 일 년에 세 번 같은 곳으로 모이는 절기와, 성문에 세우는 공의를 한 장에 묶는다.

한 문단: 본문은 유월절·칠칠절·초막절을 같은 틀("지키라→택하신 곳→기뻐하라")로 세 번 반복하며, 잔치마다 종·레위인·객·고아·과부를 함께 불러 "기뻐하라" 명령한다. 유월절엔 기쁨 속에 "고난의 떡"이 들어가 출애굽의 기억을 담는다. 절기 마당의 묘사가 끝나면 무대가 성문으로 옮겨가,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우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만을 따르라"(*tzedeq tzedeq tirdof*) 한다. 마지막은 제단 곁 아세

라·주상 금지로 닫힌다. 모임의 기쁨과 재판의 공의가 "택하신 곳"이라는 한 질서 안에 함께 놓이는 결을 같이 본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둘 — 절기 마당(1-17)과 성문 법정(18-22). 소품 — "고난의 떡", 예물, 아세라·돌 기둥(금지). 농경 달력.
2 첫 느낌·분위기	"기뻐하라"의 반복으로 잔치 분위기. 약자 네 사람이 함께. 끝에서 법정으로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 "유월절을 행하라"(1절). 끝 — "주상을 세우지 말라"(22절). 잔치→공의·금지.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절기엔 온 가족·약자, 사법엔 재판관(*shofet*)·지도자(*shoter*). 뇌물(*shochad*) 금지. "기억하라"가 근거.
5 장면 컷 분절	컷1 유월절(1-8) · 컷2 칠칠절(9-12) · 컷3 초막절(13-15) · 컷4 세 번 요약(16-17) · 컷5 공의·금지(18-22).
6 의문·발견·정보	기쁨 속 "고난의 떡". 절기 길이 차이. 정보 — "택하신 곳"이 절기 전체를 묶음, *tzedeq* 이중 반복.
7 동영상	봄·여름·가을 세 번 같은 곳으로 모였다 흠어짐→성문의 재판관→"정의를 따르라"→우상 금지로 닫힘.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세 번 모여 기뻐하라". 부제 — "절기와 공의 — 세 번의 모임, 그리고 정의를 따르는 손".
9 기도·내면 떠오름	절기 마당·성문 사이를 걸으며 기쁨과 공의가 한 결임을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세 번 반복되는 절기 틀:** 유월절·칠칠절·초막절이 같은 골격("지키라→택하신 곳→기뻐하라")으로 반복된다. 농경 달력이 모임의 축이다.
- 결 2 — 기쁨 속의 고난의 떡:** "기뻐하라"의 절기에 누락 없는 "고난의 떡"(*lechem oni*)이 들어가 기억을 담는다.
- 결 3 — 절기와 공의의 한 질서:** 잔치 마당(1-17)과 성문 법정(18-22)이 "택하신 곳"과 같은 질서로 한 장에 묶인다. "정의를 두 번" 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5** (면제년, 직전 단원). 시간의 리듬이 절기로 이어짐. **신 14:28-29** (약자 돌봄)이 절기 잔치의 약자 호명과 맞물림.
- 다른 권 — **출 23:14-17** (세 절기 순례). **레 23** (절기 달력). **행 2** (오순절/칠칠절).
- 정경 흐름 — "택하신 곳"(12장)의 중앙 예배가 16장에서 절기와 사법을 함께 묶는 질서로 자란다. 예배·기쁨·공의가 한 중심에서 만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유월절을 행하라"는 절기 명령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기쁨의 잔치에 "고난의 떡"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잔치에 약자 네 사람이 매번 불러 나오는 명단에서 멈춘다.

- **멈춤 3:** 절기 마당이 성문 법정으로 바뀌는 전환에서 멈춘다.
- **끝:** "정의만을 따르라"가 두 번 울리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기쁨과 공의가 한 결로 만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세 절기가 같은 틀로 세 번 반복된다
- [x] "택하신 곳"이 절기 전체를 묶는다
- [x] 잔치에 약자 네 사람이 함께 불린다
- [x] 기쁨의 절기에 "고난의 떡"이 들어간다
- [x] 절기 마당이 성문 법정으로 이어진다
- [x] "정의를 두 번" 부른다
- [x] 아세라·주상 금지로 닫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공의.

미해결 질문

신명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기쁨의 절기에 "고난의 떡"이 함께 있는 까닭은?

- 관찰 사실: 절기는 "기뻐하라"로 묶이나 유월절엔 누룩 없는 "고난의 떡"(*lechem oni*, 3절).
- 기쁨과 고난의 기억이 한 절기 안에 공존. 본문은 조화시키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16-17절 "남자는 세 번"과 11·14절 "온 가족·약자"의 차이는?

- 모임의 주체 묘사가 두 자리에서 살짝 다름.
- 본문은 두 묘사를 나란히 둬. 관찰은 차이 자체만 기록.

Q3. 절기 단원 끝에서 재판관 이야기(18절)로 넘어가는 까닭은?

- 잔치(1-17)에서 법정(18-22)으로 장면이 갑자기 전환됨.
- 두 단원의 연결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20절)의 두 번 반복은?

- *tzedeq*가 두 번. 강조인지 두 측면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 이 이중 반복의 까닭은 보류.

Q5. 세 절기의 묘사 길이가 다른 까닭은?

- 유월절(1-8)이 가장 길고 칠칠절·초막절은 짧음.
- 비중 차이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사법 단원 끝에 아세라·주상 금지(21-22절)가 붙은 까닭은?

- 재판 질서 직후 제단 결 이상 금지가 따라옴.
- 공의와 예배 순결이 함께 놓이는 결.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7장

DEU-017 · 오경 · 히브리어

두세 증인과 어려운 송사, 그리고 율법을 등사하는 왕. 권력에 한계를 매고 율법을 평생 곁에 두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위계로 높아짐 — 제단(1절) → 성문(2-7절) → 택하신 곳 중앙 법정(8-13절) → 왕궁(14-20절).
- 소품: 흠 있는 제물, 두세 증인의 입, 돌·손(처형), 그리고 왕의 소품 — 말(*sus*)·아내·은금·율법책.
- "두세 증인"이 16장 재판 단원과 잇닿는 사법 절차. 위계가 무대의 축.
- "율법서의 등사본"(*mishneh hatorah*)이 LXX *δευτερονόμιον*으로 옮겨져 책 이름 "신명기"의 어원이 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신중함. "자세히 조사하라"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걸을 만들.
- 사건이 성문→중앙→왕으로 올라가는 위계 구조의 인상. 왕에게 "하지 말라"가 더 많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흠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 제의 규정으로 열림.
- 20절: 왕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왕위에 오래 있으리라" — 왕의 마음으로 닫힘.
- 가장 낮은 제단의 흠으로 열려 가장 높은 왕의 마음으로 닫힘.
- "흠"(*mum*, 1절)과 "마음"(*levav*, 20절)이 양 끝에 마주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이 위계로 늘어섬 — 제물 드리는 자, 우상 숭배자·증인, 제사장·재판관, 왕.
- 6절 "두세 증인"(*al pi shenayim edim*) —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못함. 7절 증인이 먼저 손을 댐 (신13:9 병행).
- 8절 "어려운 일"(*davar yippale*, '분별이 닿지 않는') — 성문에서 못 풀면 중앙으로 올려보냄.
- 14절 왕정은 "세우려거든"의 조건. 16-17절 왕에게 "늘리지 말라" 세 번 — 말·아내·은금.
- 18-19절: 왕이 율법 사본을 등사해 곁에 두고 평생 읽음.
- 표면 사상: 권력이 위로 갈수록 제약이 촘촘. 왕도 율법 아래 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흠 있는 제물 금지 — 가장 낮은 제단.
- 컷 2 (2-7절): 우상 숭배 재판 — 자세히 조사, 두세 증인, 증인이 먼저 손, "악을 제하라".

- 컷 3 (8-13절): 어려운 송사 — 택하신 곳으로 올려보냄, 제사장·재판관 판결, 불복은 처형.
- 컷 4 (14-20절): 왕의 법 — 형제 중 세움, 말·아내·은금 늘리지 말라, 율법 등사·평생 읽기, 교만 금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zevach*(זָבַח) — 제물. / *mum*(1, מוּמָא) — 흠·결점.
- *edim*(עֵדִים) — 증인. "두세 증인"(*al pi shenayim... shelosha edim*, 6절).
- *davar yippale*(8, אֵלֶּיךָ... יִפָּלֵךְ) — 분별이 닿지 않는 어려운 일.
- *kohen*(כֹּהֵן) — 제사장. / *shofet*(שׁוֹפֵט) — 재판관.
- *melek*(מֶלֶךְ) — 왕. / *sus*(סוּס) — 말. / *nashim*(נָשִׁים) — 아내들. / *kesef zahav*(כֶּסֶף זָהָב) — 은·금.
- *lo yarbeh*(16-17, לֹא יִרְבֶּה) — "늘리지 말라"(세 번).
- *mishneh hatorah*(18, מִשְׁנֵי הַתּוֹרָה) — 율법의 사본. LXX *δευτερονόμιον* → "신명기" 어원.
- *levav*(20, לֵב) — 마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위계의 점층(escalation): 제단 → 성문 → 중앙 → 왕궁.
- "두세 증인" 원칙(two-witness rule) — 6절, 신19:15과 병행.
- 왕에게 "늘리지 말라"(*lo yarbeh*)가 세 번 반복 — 금지 목록.
- "흠"(1절)과 "마음"(20절)의 양 끝 대응(inclusio적 마주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왕의 신적 권위·무제한 권력 ↔ 신17:16-17 왕권 제한의 강한 대조.
- 이집트·메소포타미아 군마(병거) ↔ 신17:16 "말을 많이 두지 말라".
- 고대 근동 왕실 다처(외교 혼인)·부의 축적 ↔ 신17:17 "아내·은금을 늘리지 말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7 ↔ 신 13 (배교자 처형, 증인·증인이 먼저 손)
- 신 17 ↔ 신 16:18-20 (재판관·공의, 직전 단원)
- 신 17 ↔ 신 19:15 (두세 증인 원칙)
- 신 17 ↔ 삼상 8 (왕을 구함)
- 신 17 ↔ 왕상 10-11 (솔로몬의 말·아내·은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단 곁에서 시작해, 흠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는 가장 낮은 규정이 놓인다. 장면이 성문으로 올라가 우상 숭배의 소문이 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자세히 조사"하며, 두세 증인의 입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않는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백성이. 어떤 사건은 너무 어려워 성문에서 분별할 수 없어 "택하신 곳"으로 올려보낸다. 중앙 법정에서 제사장과 재판관이 판결하고, 그 판결에 치우치지 말고 따르라 한다 — 불복은 처형. 마지막으로 동영상에 왕궁에 닿는다. 백성이 "주위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한다. 왕은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하고, 말도 아내도 은금도 늘리지 말라는 경계를 받는다. 왕이 책상에 앉아 율법

서를 직접 베껴 그 사본을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한다. 가장 낮은 흠에서 가장 높은 마음까지, 위로 갈수록 "하지 말라"가 촘촘해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위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한계"
- 초벌 부제: "흠에서 마음까지 — 증인·법정·왕의 한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왕권 관습 + 위계 점층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왕의 법을 정치사상·헌정론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장에서 "늘리지 말라" 세 번·위계 점층까지만 기록.
- *mishneh hatorah*의 범위(전체/신명기) — 단정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 솔로몬 비교(왕상 10-11)는 교차 참조로만 표시, 본장 해석으로 끝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7장은 제단의 작은 흠에서 왕의 마음까지 위계의 사다리를 올라가며, 권력이 높아질수록 율법의 한계를 더 촘촘히 만든다.

한 문단: 본문은 흠 있는 제물 금지(가장 낮은 제단)로 열려, 성문의 우상 재판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두세 증인"의 원칙과 "자세히 조사하라"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한다. 성문에서 분별할 수 없는 "어려운 송사"는 "택

하신 곳"의 중앙 법정으로 올려보내고, 그 판결에 치우치지 말고 따르라 한다. 사다리의 꼭대기는 왕이다. 왕정은 "세우려거든"의 조건으로 놓고, 왕에게는 말·아내·은금을 "늘리지 말라"(*lo yarbeh*)가 세 번 걸린다. 왕은 율법 사본(*mishneh hatorah*)을 직접 등사해 평생 곁에 두고 읽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한다. 위로 갈수록 "하지 말라"가 촘촘해지는 걸을 같이 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가 위계로 높아짐 — 제단→성문→중앙→왕궁. 소품 — 두세 증인, 왕의 말·아내·은금·율법책.
2 첫 느낌·분위기	신중함("자세히 조사하라"). 사건이 위로 올라가는 위계. 왕에게 "하지 말라"가 더 많음.
3 시작과 끝	시작 — "흠 있는 제물 금지"(1절). 끝 — 왕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20절). 흠→마음.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제물 드리는 자→증인→제사장·재판관→왕. "두세 증인"(6절). 왕도 율법 아래(19절).
5 장면 컷 분절	컷1 흠(1)·컷2 우상 재판(2-7)·컷3 어려운 송사(8-13)·컷4 왕의 법(14-20). 성문→중앙→왕궁.
6 의문·발견·정보	왕에게 "하지 말라"가 다수. 왕정의 조건문("세우려거든"). 정보 — *mishneh hatorah*가 "신명기" 어원.
7 동영상	제단의 흠→성문의 두세 증인→중앙의 판결→왕궁의 한계와 등사. 위로 갈수록 율법이 촘촘.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위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한계". 부제 — "흠에서 마음까지 — 증인·법정·왕의 한계".
9 기도·내면 떠오름	제단·성문·법정·왕궁을 걸으며 자신의 작은 권한도 한계 안에 있음을 주께 아뢴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위계의 사다리:** 제단→성문→중앙→왕궁으로 무대가 올라간다. 권력의 높이가 본문의 구조다.
- 결 2 — 두세 증인의 신중함:**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6절)와 "자세히 조사하라"가 정죄에 제동을 건다.
- 결 3 — 왕도 율법 아래:** 왕에게 "늘리지 말라"가 세 번 걸리고, 왕이 율법 사본을 직접 등사해 평생 읽는다. 권력의 정점이 율법 아래 놓인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6:18-20** (재판관·공의, 직전 단원). 성문의 재판이 17장에서 위계로 자람. **신 13** (증인이 먼저 손을 댐).
- 다른 권 — **삼상 8** (왕을 구함). **왕상 10-11** (솔로몬의 말·아내·은금). **마 18:16** (두세 증인).
- 정경 흐름 — 16장의 "정의를 따르라"가 17장에서 증인·법정·왕의 한계로 구체화된다. 공의가 제도의 사다리로 내려온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가장 낮은 제단의 작은 흠 규정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라"는 신중함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려운 송사를 위로 올려보내는 사다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왕에게 걸린 세 번의 "늘리지 말라"에서 멈춘다.
- **끝:** 왕이 율법을 직접 베껴 평생 읽는 책상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권한과 한계가 만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무대가 제단에서 왕궁까지 위계로 올라간다
- [x] "두세 증인"이 정죄에 제동을 건다
- [x] 어려운 송사는 위로 올려보낸다
- [x] 왕정이 "세우려거든"의 조건으로 놓인다
- [x] 왕에게 "늘리지 말라"가 세 번 걸린다
- [x] 왕이 율법 사본을 직접 등사해 평생 읽는다
- [x] 흠(1절)과 마음(20절)이 양 끝에 마주 선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한계.

미해결 질문

신명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가장 높은 왕에게 명령이 거의 "하지 말라"인 까닭은?

- 관찰 사실: 말·아내·은금을 "늘리지 말라"(*lo yarbeh*) 세 번. 권력을 키우는 법이 아닌 묶는 법.
- 본문은 그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 않음. 목상으로 이월.

Q2. 왕정이 "세우려거든"의 조건으로 그려진 까닭은?

- 14절 "주위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거든". 명령이 아닌 허용처럼 놓임.
- 본문은 왕정의 결을 평가하지 않음. 관찰은 조건문 자체만 기록.

Q3. "말을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16절)의 까닭은?

- 하필 애굽이 지목됨. 출애굽 방향과의 관계로 보이나 본문은 짧게만 말함.
- 이 지목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왕이 율법을 직접 등사해 평생 읽는다는 규정의 무게는?

- 18-19절: 왕이 사본을 곁에 두고 평생 읽음. 다른 고대 왕 묘사와 결이 다름.
- 이 규정의 의도는 보류.

Q5. *mishneh hatorah*가 "율법 전체"인지 "신명기"인지?

- 본문은 사본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음. LXX 번역에서 책 이름이 나옴.
- 범위 문제는 답 없이 보존.

Q6. 중앙 판결 불복을 처형으로 다스리는(12절) 까닭은?

- 제사장·재판관의 판결에 불복하면 "그 사람을 죽여 악을 제하라".
- 사법 권위의 무게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8장

DEU-018 · 오경 · 히브리어

분깃 없는 제사장과 가증한 점술,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 여호와가 분깃이 되고, 그 입의 말씀이 표지가 된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 제단 곁(제사장·레위인 분깃, 1-8절), 어두운 골방(점술 금지, 9-14절), 백성 앞 광장(선지자, 15-22절).
- 소품: 제물의 뿔(어깨·두 볼·위), 처음 익은 곡식·포도주·기름·양털, 금지된 점술 행위들, 선지자의 "입의 말씀".
- "분깃"(*cheleq*)·"기업"(*nachalah*)이 땅의 뿔인데, 2절에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으로 뒤집힘.
- 세 직제 대조 — 제사장(제물의 뿔)·점쟁이(금지)·선지자(입의 말씀). "어디서 듣느냐"가 축.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비움("분깃이 없다")으로 열려 채움("여호와가 기업")으로 뒤집히는 곁.
- 가운데 점술 목록의 어두운 무게. 끝의 "나 같은 선지자" 약속이 밝게 닫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레위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분깃도 기업도 없을지니" — 비움으로 열림.
- 22절: "선지자가 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 시험 기준으로 닫힘.
- 비움(분깃 없음)으로 열려 말씀의 분별로 닫힘.
- "분깃"(*cheleq*, 1절)과 "말씀"(*davar*, 22절)이 양 끝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직제 셋이 나란히 — 제사장·레위인, 점쟁이 무리(여덟 종류), 선지자. 끝엔 모세와 "나 같은 선지자"가 곁침.
- 제사장: "여호와가 기업"이라 땅 없음, 제물의 정해진 뿔으로 삶(비움과 채움).
- 10-11절 점술 여덟 항: 복술·길흉·요술·무당·진언·신접(*ov*)·박수(*yidoni*)·초혼(*doresh el-hametim*) — 모두 "가증한 것"(*toevah*).
- 13절: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tamim*) — 점술 목록의 닫는 줄.
- 15-19절: 선지자가 호렙의 요청(직접 듣기 두려움)에서 세워짐. 여호와가 "그 입에 말을 뿜".
- 표면 사상: "어디서 길을 듣느냐" — 죽은 자·점술이 아니라 여호와가 입에 두신 말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제사장·레위인의 분깃 — 땅 없음, 여호와가 기업, 제물의 뭉, 동등한 섬김.
- 컷 2 (9-14절): 가증한 점술 금지 — 여덟 항 목록, "쫓아내신 까닭", "온전하라".
- 컷 3 (15-19절): 나 같은 선지자 — 호렙의 요청, 여호와가 입에 말을 뚸, 불순종은 책임.
- 컷 4 (20-22절): 참·거짓 분별 — 망령된 말·다른 신 이름은 죽음, 기준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cheleq*(חֶלֶק) — 분깃. / *nachalah*(נַחֲלָה) — 기업. 1-2절에서 땅→여호와로 전환.
- *toevah*(תּוֹעֵבָה) — 가증한 것(점술 목록 묶음).
- *ov*(אִם, וְאִם) — 신접한 자. / *yidoni*(יָדוֹנִי) — 박수.
- *doresh el-hametim*(דּוֹרֵשׁ אֶל־הַמֵּתִים) — 죽은 자에게 묻는 자.
- *tamim*(טָמִים) — 온전한/완전한.
- *navi*(נָבִיא) — 선지자. / *kamoni*(כָּמוֹנִי) — "나 같은".
- *davar*(דָּבָר) — 말씀/일. 시험 기준의 핵심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세 직제의 대조 배열 — 제사장(컷1)·선지자(컷3) 사이에 금지된 점술(컷2)이 끼임.
- 비움→채움의 반전(1-2절): "분깃 없음" ↔ "여호와가 기업".
- 점술 여덟 항의 금지 목록(list of prohibitions).
- 참·거짓 시험 기준(test criterion)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22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점술 체계(간점·조점·강령술) ↔ 신18:10-11 금지 목록.
- 가나안 몰렉 제의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 ↔ 신18:10 금지.
- 마리·아시리아 신탁 예언 직제 ↔ 신18:15-22 선지자 직제("입에 말을 뚸")의 비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8 ↔ 민 18 (제사장·레위인 분깃 없음)
- 신 18 ↔ 신 10:9 (레위는 여호와가 기업)
- 신 18 ↔ 레 19:31·20:6 (강령술 금지)
- 신 18 ↔ 신 13:1-5 (거짓 선지자 분별, 다른 기준)
- 신 18 ↔ 행 3:22-23 ("나 같은 선지자"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제단 곁에서 시작한다. 한 무리에게는 땅이 없다 —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 백성이 드린 제물의 정해진 뭉(어 깨·두 불·위·처음 익은 것들)을 받아 산다. 땅 없는 자리에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말이 채워진다. 장면이 어 두운 골방으로 옮겨가, 가나안 땅에서 만날 길들이 줄지어 금지된다 —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 점, 사술, 진 언, 신접, 박수, 죽은 자에게 묻는 일까지. 모두 "가증한 것"이며, 그래서 그 땅 백성을 쫓아내셨다고 한다. 목록 끝에 "너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가 온다. 장면이 백성 앞으로 옮겨가, 호렙에서 직접 듣기를 두려워한 그

들에게 "나 같은 선지자"가 형제 중에서 일어선다. 여호와가 그 입에 말을 두시고 그 선지자가 전한다. 그러나 거짓도 있어 — 망령되이 자기 말을 하거나 다른 신 이름으로 말하는 자. 그래서 시험 기준이 온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점술(어두운 골방)과 예언(밝은 광장)이 마주 서고, 가운데 "온전하라"가 다리처럼 놓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분깃 없음이 채움이 될 때"
- 초벌 부제: "어디서 길을 듣느냐 — 분깃·점술·선지자의 말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점술·예언 직제 + 대조 배열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나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 성취론으로 미끄러뜨리지 않도록 — 본장에선 단수 표현·시험 기준까지만 기록, 정체는 open_questions로 이월.
- 점술 목록을 현대 미신론으로 끝지 않도록 주의. 본문 표면(여덟 항·"가증한 것")까지만.
- 13장 기준(표적+다른 신)과 18장 기준(말의 성취)의 관계 — 단정 보류, open_questions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8장은 세 직제(제사장·점쟁이·선지자)를 나란히 세워, 어디서 길을 듣느냐로 합당한 자리와 금지된 자리를 가른다.

한 문단: 본문은 "분깃도 기업도 없다"는 비유로 열려, 곧장 "여호와와 그들의 기업"이라는 채움으로 뒤집는다. 땅 없는 제사장·레위인은 제물의 정해진 몫으로 산다. 무대가 어두운 골방으로 옮겨가면 가나안의 점술 여덟 향이 줄지어 금지되고, "가증한 것"으로 묶인 그 목록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tamim*)로 닫힌다. 마지막 무대는 백성 앞 광장이다. 호렙에서 직접 듣기를 두려워한 그들에게 "나 같은 선지자"(*navi kamoni*)가 형제 중에서 일어서고, 여호와가 그 입에 말을 두신다.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는 기준으로 가려진다. 합당한 직제(제사장·선지자) 사이에 금지된 길(점술)이 끼어, 길을 듣는 자리가 갈리는 결을 같이 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셋 — 제단(제사장)·어두운 골방(점술)·광장(선지자). 소품 — 제물의 몫, 점술 행위, 입의 말씀. "분깃→여호와".
2 첫 느낌·분위기	비유("분깃 없음")이 채움("여호와가 기업")으로 뒤집힘. 가운데 점술의 어두움, 끝의 약속이 밝게 담음.
3 시작과 끝	시작 — "분깃도 기업도 없을지니"(1절). 끝 —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22절). 비유→분별.
4 등장인물·사물·상황·사상	직제 셋 + 모세와 "나 같은 선지자". 점술 여덟 향(*toevah*). "어디서 길을 듣느냐"가 핵심.
5 장면 컷 분절	컷1 분깃(1-8) · 컷2 점술 금지(9-14) · 컷3 나 같은 선지자(15-19) · 컷4 참·거짓 분별(20-22).
6 의문·발견·정보	비유↔채움의 반전. 점술이 합당한 직제 사이에 끼임. 정보 — "나 같은 선지자"가 행3:22에 인용.
7 동영상	땅 없는 제사장→금지된 점술 골방→"온전하라"→광장의 선지자→시험 기준. 길을 듣는 자리가 갈림.
8 초벌 제목·부제	초벌 제목 — "분깃 없음이 채움이 될 때". 부제 — "어디서 길을 듣느냐 — 분깃·점술·선지자의 말씀".
9 기도·내면 떠오름	제단·골방·광장 사이를 걸으며 자신이 길을 어디서 듣는지 주께 아뢰다.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비유가 채움으로:** "분깃 없음"(1절)이 "여호와가 기업"(2절)으로 곧장 뒤집힌다. 결핍이 다른 종류의 소유가 된다.
- 결 2 — 끼인 금지:** 합당한 직제 제사장(컷1)과 선지자(컷3) 사이에 금지된 점술(컷2)이 끼어 대조를 이룬다.
- 결 3 — 말씀의 시험:** 선지자는 "그 입에 둔 말"로 서고, 거짓은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22절)로 가려진다. 점술의 어두움과 다른 길.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0:9 (레위는 여호와가 기업). 신 13:1-5 (거짓 선지자 분별, 다른 기준).
- 다른 권 — 민 18 (제사장·레위인 분깃 없음). 레 19:31 (강령술 금지). 행 3:22-23 ("나 같은 선지자" 인용).
- 정경 흐름 — 17장의 왕(권력의 한계)에 이어 18장은 제사장·선지자(직제의 자리)를 세운다. 왕·제사장·선지자의 세 직제가 한 권 안에서 매여 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분깃도 기업도 없다"는 비움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그 비움이 "여호와가 기업"으로 뒤집히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점술 여덟 향이 줄지어 금지되는 어두운 목록에서 멈춘다.
- 멈춤 3: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서리라"는 약속에서 멈춘다.
- 끝: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는 시험 기준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길을 어디서 듣는지 묻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분깃 없음"이 "여호와가 기업"으로 뒤집힌다
- [x] 제사장은 제물의 몫으로 산다
- [x] 점술 여덟 향이 "가증한 것"으로 묶여 금지된다
- [x] 점술 목록이 "온전하라"로 닫힌다
- [x] "나 같은 선지자"가 형제 중에서 일어난다
- [x] 거짓은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로 가려진다
- [x] 합당한 직제 사이에 금지된 길이 끼어 대조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말씀.

미해결 질문

신명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분깃 없음"이 곧 "여호와가 기업"으로 뒤집히는 까닭은?

- 관찰 사실: 1절 비움 → 2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 결핍이 채움으로 전환.
- 본문은 그 전환의 까닭을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으로 이월.

Q2. "나 같은 선지자"(15·18절)는 한 사람인가 직제 전체인가?

- 단수로 나오나 이어지는 선지자들 전체로도 읽힐 수 있음. 본문은 정체성을 열어 둬.
- 후대 인용(행3:22)은 교차 참조로만 표시. 정체는 답 없이 보존.

Q3. 점술 목록(컷2)이 합당한 직제 둘 사이에 끼인 까닭은?

- 제사장(컷1)·선지자(컷3) 사이에 금지된 점술이 놓임.

- 이 배열의 의도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관찰은 배열 자체만 기록.

Q4. 18장 기준("말이 이루어지느냐")과 13장 기준은 어떻게 함께 가는가?

- 13장은 "표적이 맞아도 다른 신이면 거짓", 18장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 두 기준의 관계는 본문이 정렬만 함. 보류.

Q5. 점술 끝에 "온전하라"(13절)가 놓인 까닭은?

- 어두운 목록의 닫는 줄로 *tamim*(온전함)이 옴. 금지와 온전함이 대조됨.
- 이 대조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선지자에게 불순종하면 책임을 묻는다(19절)는 무게는?

-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하리라".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와의 말과 묶임.
- 이 묶임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19장

DEU-019 · 오경 · 히브리어

우발과 고의를 가르는 도피성, 옮길 수 없는 지계표, 두세 증인의 입. 피가 땅에 묻지 않도록 길을 닦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넷: 도피성 세 곳(2-3절), 나무 베는 숲(5절, 도끼 사례), 이웃 간 경계석(14절), 제사장·재판장 앞 재판 자리(17절).
- 도피성 miqlat(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는 "길"(derekh)을 평탄히 닦아 두라(3절).
- 소품 — 자루에서 빠지는 도끼(5절), 옮겨지는 경계석(14절), 증인의 입(15절).
- 수의 표지: 도피성 셋, 땅이 넓어지면 셋을 더해 여섯(7·9절).
- 배경 —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정착한 상황이 전제로 깔림(1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보호(길을 닦아 살림)와 단호(공홀히 여기지 말라)의 두 결이 한 장에 공존. 참가자 다수가 "쫓김→보호→단호"의 전환을 공유함.
- "손"."길"."피"가 청각적으로 반복되어 무게를 만듦.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 정착 상황으로 시작.
- 21절: "네 눈이 공홀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 단호한 명령으로 닫힘.
- "무죄한 피"."피 흘린 죄"(10·13절)가 장 전체를 관통하는 축.
- 보호로 열려 제함으로 닫히되, "피"가 양끝을 잇는 단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역할: 우발 살인자, 고의 살인자, 피의 보복자(goel hadam), 이웃, 거짓 증인(ed chamas), 제사장·재판장. 여호와와 "땅을 주시는 분"으로 배경.
- 우발/고의의 가름: 4절 "본래 미워하지 아니하고"(알지 못하고) ↔ 11절 "이웃을 미워하여"(sane) — 마음의 상태가 기준.
- 증인 규례: 한 증인 불가, 두세 증인(shnayim shloshah) 필요(15절).
- 보복 연쇄 차단 장치: 거리(도피성), 증인 수, 거짓 증인의 동해 처벌(19절).
- 14절 경계석 규례가 살인 규례 사이에 단독으로 끼어듦(이질적 배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도피성 셋·길 닦음, 우발 살인자(도끼) 살림
- 컷 2 (8-10절): 땅이 넓어지면 세 성 추가, 무죄한 피 보호
- 컷 3 (11-13절): 미워하여 죽인 자, 도피성에서 끌어내 보복자에게 넘김
- 컷 4 (14절):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단독 규례)
- 컷 5 (15-21절): 두세 증인, 거짓 증인 동해 처벌, "공홀히 여기지 말라"
- 이질 배치: 컷 4가 살인 규례 사이에 토지 규례로 박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qlat(מִקְלָט) — 도피처/받아들이는 곳 (2·3·4·5·7절).
- rotseach(רֹצֵחַ) — 사람을 죽인 자 (우발·고의 모두 지칭, 본문이 그 안에서 가름).
- beli-daat(בְּלִי דַּאֵת) 결 — "알지 못하고", 우발의 표지(4절).
- sane(שָׂנֵא) — 미워하다, 고의 살인의 표지(4·11절).
- goel hadam(גּוֹאֵל הַדָּם) — 피의 보복자/구속자(6·12절).
- gevul(גְּבוּל) — 경계/지계표(14절).
- edim(עֵדִים) — 증인. shnayim shloshah(שְׁנַיִם שְׁלוֹשָׁה) — 두세(15절).
- ed chamas(עֵד חָמָשׁ) — 거짓/폭력의 증인(16절).
- ayin tachat ayin(עֵין תַּחַת עֵין) — "눈에는 눈"(21절).
- derekh(דֶּרֶךְ) — 길, "길을 닦으라"(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조건절(casuistic) 법문: "만일 ~하면, ~할지니라"의 사례별 구성.
- 동기절(motive clause):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게"(10절)가 규례에 이유를 붙임.
- 수의 구조: 3 → +3 → 6 (열린 수의 도피성).
- 마음(미움/모름)으로 우발·고의를 가르는 이분 구조.
- 보호(살림) ↔ 제함(공홀히 여기지 말라)의 양극이 한 장에 공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서 쫓기는 자가 성소·제단 뿔을 붙잡아 보호받는 도피처 관습이 보고됨. 본문은 '성읍'을 도피처로 둠(출 21:13-14 제단 모티프와 비교).
- "눈에는 눈"의 비례 처벌(lex talionis)은 함무라비 법전 등에 널리 나타남.
- 경계석(kudurru) 이동을 신적 저주로 금한 메소포타미아 관행이 14절 정황과 병행 관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19 ↔ 민 35:9-34 (도피성 여섯의 본 규례)
- 신 19 ↔ 출 21:12-14 (고의·우발 살인과 제단 도피)
- 신 19 ↔ 신 4:41-43 (요단 동편 세 도피성)
- 신 19 ↔ 수 20장 (도피성 실제 지정)
- 신 19 ↔ 잠 22:28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 신 19 ↔ 신 17:6 (두세 증인의 입)
- 신 19 ↔ 마 5:38 ("눈에는 눈" 인용), 마 18:16 (두세 증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정착한 땅 한가운데 세 도피성을 정하고 그리로 가는 길을 평탄히 닦는다. 숲에서 도끼날이 빠져 이웃을 친 자, 미워한 적 없는 그는 도피성으로 달려 살아남는다. 땅이 넓어지면 세 성을 더해 무죄한 피가 어디서도 흐르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끌려나와 보복자에게 넘겨진다. 미움이 그를 가려낸다. 들 한가운데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한 줄이 박힌다. 재판 자리에서는 한 증인으로 누구도 세우지 못하고, 두세 입이 있어야 한다. 거짓 증인은 형제에게 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마지막으로 단호한 한 마디 – 공홀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길을 닦아 살리는 결과, 가려내어 제하는 결이 한 흐름으로 흐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손이 한 일을 마음이 가르친다"
- 초벌 부제: "길을 닦아 살리고, 입으로 가려 제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도피처·동해보복·경계석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1절 "눈에는 눈"이 보복 윤리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14절 경계석의 이질적 배치는 "왜 여기 있는가"의 관찰까지만, 해석 보류.
- 도피성을 은혜·구속의 그림으로 신학화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서 "우발·고의를 가르치는 장치"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19장은 같은 "죽임" 안에서 우발과 고의를 마음으로 가르고, 같은 "고발" 안에서 참과 거짓을 두세 입으로 거르는 길을 땅 위에 미리 닦아 두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정착한 땅 한가운데 도피성을 정하고 그리로 가는 길을 평탄히 닦는 것으로 연다. 도끼날이 빠져 이웃을 친 자는 살고, 미워하여 죽인 자는 끌려나온다. 가름의 축은 손이 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이 다. 살인 규례 사이에 경계석 한 절이 조용히 박히고, 재판 자리에서는 한 증인으로 누구도 세우지 못한다. 거짓 증인은 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본문은 무죄한 피가 땅에 묻히지 않게 길을 닦으면서, 동시에 악을 제하는 단호함을 같은 장에 나란히 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네 무대 — 도피성 세 곳·닦인 길, 나무 베는 숲(도끼), 이웃 경계석, 재판 자리. 소품 — 빠지는 도끼날, 옮겨지는 경계석, 증인의 입.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쫓김에서 보호로, 다시 단호로. 보호와 단호의 두 결이 한 장에 공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땅에 정착한 상황(1절). 끝 — "공홀히 여기지 말라"(21절). "무죄한 피"가 양끝을 잇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우발/고의 살인자·피의 보복자·거짓 증인·제사장·재판장. 가름의 기준은 마음의 미움(sane) 여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도피성·길(1~7). 컷 2 세 성 추가(8~10). 컷 3 고의 살인자 처리(11~13). 컷 4 경계석(14). 컷 5 두세 증인·거짓 증인(15~21).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14절 경계석의 이질 배치. 21절 "눈에는 눈"의 결. 정보 — miqlat·goel hadam·ed chamas, 셋에 셋을 더하는 열린 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을 닦아 살림 → 마음으로 가려 끌어냄 → 경계석 한 줄 → 두세 입으로 거름 → 거짓에 동해로 갇음 → "제하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손이 한 일을 마음이 가르다". 초벌 부제 — "길을 닦아 살리고, 입으로 가려 제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도피성으로 가는 평탄한 길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쫓기는 자의 살길을 미리 닦으시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마음으로 가르는 죽임:** 손이 한 일은 같아도 미움(sane)의 유무가 우발과 고의를 가르다. 본문은 행위 너머 마음의 상태에 시선을 둔다.
- 결 2 — 미리 닦아 두는 길:** 도피성은 일이 벌어진 뒤가 아니라 정착하자마자 길까지 닦아 미리 둔다. 살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준비의 결.
- 결 3 — 입으로 거르는 진실:** 한 증인으로는 누구도 세우지 못하고, 거짓 증인은 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진실을 두세 입으로 거르고, 거짓을 대칭으로 갇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4:41-43 (요단 동편 세 도피성). 신 17:6 (두세 증인의 입, 같은 원칙).
- 다른 권 — 민 35:9-34 (도피성 본 규례). 수 20장 (도피성 실제 지정). 마 5:38("눈에는 눈" 인용)·마 18:16(두세 증인).
- 정경 흐름 — 무죄한 피를 다루는 결은 정경 전체가 "피"를 무겁게 다루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정착한 땅에 닦인 길 위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도끼날이 빠진 자가 살아남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미움이 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끌어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거짓 증인이 꾀한 그대로 돌려받는 대칭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살림과 제함이 한 길 위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쫓기는 자의 살길과 거짓을 거르는 입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 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도피성 셋, 땅이 넓어지면 셋을 더한다
- [x] 우발과 고의는 미움의 유무로 갈린다
- [x]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미리 닦는다
- [x] 경계석 규례가 살인 규례 사이에 한 절로 박힌다
- [x] 한 증인으로는 누구도 세우지 못한다
- [x] 거짓 증인은 꾀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 [x] 살리는 결과 제하는 결이 한 장에 공존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가름.

미해결 질문

신명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14절 경계석 규례가 살인 규례 사이에 단독으로 끼어든 까닭은?

- 관찰 사실: 도피성·증인 규례 한가운데 토지 경계 규례 한 절이 박힘.

- 본문은 배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21절 "눈에는 눈"은 보복의 허용인가, 비례의 제한인가?

- 거짓 증인의 동해 처벌(19절)에 이어 나옴.
- 본문 표면만으로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한 방향으로 굳히지 않고 보존.

Q3. 우발과 고의를 가르는 기준이 "마음"(마음)인 까닭은?

- 4절 "본래 미워하지 아니하고" ↔ 11절 "이웃을 미워하여"가 가름의 축.
- 손이 한 같은 일을 마음으로 가르는 결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공홀히 여기지 말라"(13·21절)와 도피성의 "살림"이 한 장에 함께 있는 까닭은?

- 살리는 길과 제하는 길이 같은 본문에 나란히 놓임.
- 두 결의 공존을 어떻게 읽을지는 본문이 답하지 않음. 보존.

Q5. 도피성을 "셋에 셋을 더해 여섯"으로 둔 수의 구조는 무엇을 뜻하는가?

- 땅이 넓어지면 더하라는 "열린 수"의 규례(8-9절).
- 수의 열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관찰까지. 해석 보류.

Q6. 거짓 증인을 "피한 그대로" 돌려주는 정확함(19절)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남을 해하려던 만큼 자기가 받는 대칭 구조.
- 그 대칭의 정밀함이 향하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0장

DEU-020 · 오경 · 히브리어

두려워 말라가 먼저 오고, 집·포도원·약혼·겹먹은 자를 돌려보낸다. 멀리는 강화, 가까이는 진멸, 과실수는 베지 않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 출정 직전 진영(1-9절, 제사장·관리들 연설)과 적의 성 앞 공성전(10-20절).
- 소품 — 적의 말·병거(1절, 수적 열세 배경), 토성(matsor)·도끼·나무(19-20절).
- 면제 목록 소재: 새 집(bayit chadash), 포도원(kerem), 약혼녀(arusah), 마음 약한 자(rakh levav).
- 거리 표지: "매우 멀리 있는 성"(ir rechoqah, 15절) ↔ 가까운 민족 성(16절).
- 배경 —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함께 가심(1·4절)이 두려움을 누르는 근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쟁 규례인데 "두려워 말라"는 격려로 열림. 참가자 다수가 "격려→돌려보냄→거리로 갈림→나무 절제"의 흐름을 공유.
- "돌아가라"(shuv)의 후렴과 "말라"의 부정 명령이 청각적 인상을 만듦.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가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 사람을 향한 격려로 시작.
- 20절: 과실수는 베지 말고 공성용 나무만 쓰라 — 나무를 향한 절제로 닫힘.
- 양끝에 "두려워 말라"(1절)와 "베지 말라"(19절)의 부정 명령이 걸림.
- 돌봄의 대상이 사람(앞)에서 나무(뒤)로 이동. '남김'이 양끝을 잇는 축.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역할: 제사장(kohen, 2-4절 격려), 관리들(shoter, 5-8절 면제 선언), 백성/군대(am), 면제받는 네 부류. 여호와와 "함께 가시는 분".
- 면제 후렴 "돌아가게 하라"(shuv)가 네 번 반복(5-8절).
- 앞 세 면제 = '누림의 미완'(집 봉헌·포도원 첫 열매·약혼녀 동침 미완), 넷째 = 마음의 상태(rakh levav, 형제 마음이 녹을까 하여).
- 강화 제의(shalom, 10-11절): 응하면 조공(mas)·살림, 불응하면 공성.
- 거리로 갈리는 처분: 멀리(강화 가능, 15절) ↔ 가까운 민족(진멸 herem, 16-17절). 진멸 이유 한 줄(1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제사장의 "두려워 말라" 격려
- 컷 2 (5-8절): 관리들의 네 면제 선언
- 컷 3 (9절): 면제 후 지휘관을 세움
- 컷 4 (10-15절): 멀리 있는 성 — 강화 제의·조공·공성·전리품
- 컷 5 (16-20절): 가까운 민족 성 진멸, 그러나 과실수는 남김
- 분기점: 컷 4(멀리)와 컷 5(가까이)에서 처분이 두 길로 갈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milchamah(מִלְחָמָה) — 전쟁 (1·2·3·12절).
- rakh levav(רָחַק לֵבָב) — "마음이 약한/무른", 넷째 면제 사유(8절).
- shuv(שׁוּב) — 돌아가다, 면제 후렴(5·6·7·8절).
- shalom(שָׁלוֹם) — 평화/강화, 멀리 있는 성에 먼저 선포(10절).
- mas(מָס) — 조공/노역, 항복한 성이 바침(11절).
- herem(הֶרֶם) 결 — 진멸/온전히 바침, 가까운 민족 성(17절).
- matsor(מִצּוֹר) — 토성/공성, 성을 에워쌌(19-20절).
- ets(עֵץ) — 나무, 과실수 보존(19-20절).
- adam ets hasadeh(אָדָם עֵץ הַסֵּדֶה) — "들의 나무가 사람이냐", 난해 구절(19절).
- kohen(כֹּהֵן) / shoter(שׁוֹטֵר) — 제사장 / 관리(2·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면제 선언의 4중 후렴("돌아가라") — 앞 셋은 '누림의 미완', 넷째는 마음의 상태.
- 거리 이분 구조: 멀리(강화) ↔ 가까이(진멸).
- 동기절: 진멸 이유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18절), 나무 보존 이유 "먹을 것"(19절).
- "두려워 말라"(1절) ↔ "베지 말라"(19절)의 부정 명령 수미 결.
- 수사 의문문: "들의 나무가 사람이냐"(1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출정 전 사제가 군대에 신탁·격려를 전하는 의식이 고대 근동에 보고됨. 제사장 연설(2-4절)과 병행 관찰.
- 공성전 후 항복 시 조공을 받는 강화 방식이 여러 조약 문서에 나타남(10-11절 정황).
- 병역 면제(유예) 조항이 일부 고대 사회에 존재. 다만 본문의 '누림의 미완' 사유는 고유한 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0 ↔ 신 7:1-5 (가나안 일곱 족속 진멸)
- 신 20 ↔ 신 24:5 (신혼자 일 년 병역 면제 — 같은 결의 확장)
- 신 20 ↔ 수 6장 (여리고 진멸 herem)
- 신 20 ↔ 수 8장 (아이 성 — 강화 없는 공성)
- 신 20 ↔ 사 2:4·미 4:3 (칼을 보습으로 — 다른 권의 대조 결)

- 신 20 ↔ 잠 24:6 (지략으로 싸우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적의 말과 병거가 더 많아 보이는 진영 앞에서 제사장이 "두려워 말라,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연다. 이어 관리들이 새 집·포도원·약혼·겉먹음의 네 부류를 "돌아가라"로 돌려보내고, 남은 자 위에 지휘관을 세운다. 멀리 있는 성에는 먼저 평화를 선포한다 — 응하면 조공을 바치며 살고, 불응하면 에워싸 남자를 치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거둔다. 그러나 가까운 민족의 성은 강화 없이 진멸한다(까닭 한 줄, 18절). 공성을 오래 할 때에도 과실나무는 도끼로 찍지 않는다 — 그 열매는 먹되 나무는 남긴다("들의 나무가 사람이냐"). 두려움을 누르는 격려로 시작해, 누리지 못한 자를 남겨 보내고, 거리로 처분이 갈리며, 먹이는 나무를 남기는 흐름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려워 말라가 먼저 온다"
- 초벌 부제: "두려움을 누르고, 누림을 지키고, 먹이는 것을 남기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출정 의식·강화·공성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진멸(herem) 규례(16-18절)가 전쟁 윤리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본문 표면까지만 기록.
- 19절 난해 구절 "들의 나무가 사람이냐"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 면제 규례를 영적 '부르심' 비유로 신학화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누림의 미완'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0장은 전쟁의 규레이면서도 두려움을 누르는 격려로 열고, 누리지 못한 자와 먹이는 나무를 남기는 절제로 닫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적의 말과 병거가 더 많아 보이는 진영 앞에서 "두려워 말라"로 연다. 그 근거는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함께 가시는 분이다. 이어 새 집·포도원·약혼·겉먹음의 네 부류를 돌려보낸다. 싸우러 모았으나 누리지 못한 자를 먼저 남긴다. 멀리 있는 성에는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가까운 민족 성은 진멸로 떼어 둔다 — 거리가 처분을 가르다. 그러나 공성을 오래 할 때에도 먹을 것 내는 나무는 베지 않는다. 본문은 파괴의 한복판에 '남김'을 끝까지 흘려 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출정 직전 진영(제사장·관리들)과 적의 성 앞 공성전. 소품 — 적의 말·병거, 토성·도끼·과실나무.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전쟁 규레이데 "두려워 말라"로 열림. 격려→돌려보냄→거리로 갈림→나무 절제의 흐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두려워하지 말라"(1절). 끝 — 과실수는 베지 말라(20절). 돌봄이 사람에서 나무로 이동, '남김'이 양끝을 잇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제사장·관리들·군대·면제받는 네 부류. 강화(shalom)와 진멸(herem)이 거리로 갈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격려(1~4). 컷 2 네 면제(5~8). 컷 3 지휘관(9). 컷 4 멀리 있는 성 강화(10~15). 컷 5 가까운 성 진멸·나무 보존(16~2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두려워 말라"의 근거. 멀리/가까이의 갈림 기준. 19절 난해 구절. 정보 — '누림의 미완' 세 면제, herem·shalom의 대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격려 → 네 부류 돌려보냄 → 지휘관 세움 → 멀리는 평화·가까이는 진멸 → 먹이는 나무 남김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두려워 말라가 먼저 온다". 초벌 부제 — "두려움을 누르고, 누림을 지키고, 먹이는 것을 남기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출정 직전 진영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싸움터 길목에서도 누리지 못한 자를 먼저 보내시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격려가 먼저 온다:** 전쟁 규레이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이고, 그 근거가 수가 아니라 함께 가심이다. 본문은 싸움 앞에서 두려움부터 다룬다.

2. **결 2 — 누리지 못한 자를 남긴다:** 새 집·포도원·약혼을 시작만 하고 누리지 못한 자를 먼저 돌려보낸다. 싸우러 모은 자리에서 '아직 못 누린 삶'을 지킨다.

3. **결 3 — 먹이는 것을 베지 않는다:** 공성 한복판에서도 열매 내는 나무는 남긴다. 파괴의 자리에 '먹임'을 흘려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7:1-5 (가나안 진멸 명령). 신 24:5 (신혼자 일 년 면제, 같은 결의 확장).
- 다른 권 — 수 6장(여리고 진멸)·수 8장(아이 성 공성). 사 2:4·미 4:3(칼을 보습으로, 대조의 결).
- 정경 흐름 — 전쟁의 규례 한복판에 '남김'을 두는 결은, 정경이 파괴 가운데서도 생명을 남기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더 많은 병거 앞에서 "두려워 말라"를 들으며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누리지 못한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멀리와 가까이로 처분이 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전장에서 과실나무가 남겨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싸움 한복판에도 남김이 흐른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두려움과 절제 사이, 파괴와 남김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전쟁 규례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이다
- [x] 격려의 근거가 군대의 수가 아니다
- [x] 누리지 못한 네 부류를 먼저 돌려보낸다
- [x] 멀리는 강화, 가까이는 진멸로 갈린다
- [x] 행복한 성에는 조공·살림이 주어진다
- [x] 공성 중에도 과실수는 베지 않는다
- [x] 파괴의 자리에 '남김'이 흐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남김.

미해결 질문

신명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두려워 말라"의 근거가 군대의 수가 아니라 "함께 가시는 분"(4절)인 까닭은?

- 관찰 사실: 적의 말·병거가 더 많은데 격려의 근거가 다른 데 있음.
- 본문은 그 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같은 전쟁인데 멀리/가까이로 처분(강화 ↔ 진멸)이 갈리는 기준은 거리뿐인가?

- 15-17절이 거리로 두 길을 나눔.
- 다른 결이 있는지 본문 표면만으로는 확정 어려움. 보존.

Q3. 19절 "들의 나무가 사람이냐"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

- 마소라 본문 자체가 난해. 나무를 사람에 빗댄 것인지, 나무는 사람이 아니니 해치지 말라는 것인지 갈림.
- 70인역도 의문문으로 옮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4. 앞 세 면제(집·포도원·약혼)와 넷째 면제(겉먹음)가 한 목록에 묶인 까닭은?

- 앞 셋은 '누림의 미완', 넷째는 마음의 상태로 결이 다름.
- 서로 다른 두 사유가 한 후렴으로 묶인 의도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Q5. 전쟁 한복판에 과실수를 남기는 절제(19-20절)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파괴의 자리에서 '먹이는 것'을 지키는 결.
- 그 절제가 향하는 곳은 관찰까지. 해석 보류.

Q6. 진멸 이유로 붙은 한 줄(18절, "범죄하게 할까")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 가까운 민족 성에만 붙은 동기절.
- 적용 범위와 한계는 본문이 길게 말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1장

DEU-021 · 오경 · 히브리어

책임 없는 곳의 피를 목 꺾은 암송아지로 씻고, 포로 신부에게 한 달을 주며, 미운 자의 장자권을 지킨다. 나무에 달린 시신은 밤을 넘기지 않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다섯: 들(미해결 시신), 골짜기 시내(nachal, 암송아지 목 꺾음), 집(포로 신부의 한 달), 두 아내의 집, 성문(패역한 아들), 나무(처형 시신).
- 소품 — 명예 메지 않은 암송아지(eglah), 흐르는 시내, 포로 여인의 깎은 머리·손톱·벗은 옷(12절), 나무 한 그루.
- 동작의 차이: 암송아지는 제사로 잡지 않고 '목을 꺾음'(araph, 4절).
- 시간 표지: 포로 신부 "한 달"(13절), 처형 시신 "당일에"."밤을 넘기지 말라"(23절).
- 배경 — "여호와께서 주신 땅"(1절), "네 손에 넘기신" 전쟁 뒤(1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장면이 다섯으로 끊겨 어지럽되, "피"와 "약한 자리의 사람"이 흐름을 잇는다. 참가자 다수가 "막막함→여러 규례→정결"의 결을 공유.
- "손"."씻음"."미워하다"가 청각적으로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처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 책임 모를 피로 시작.
-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네 땅을 더럽히지 말라" — 처형 시신과 땅의 정결로 닫힘.
- 양끝에 "무죄한 피"(dam naqi, 8-9절)와 "저주받은 시신"이 걸림. 둘 다 '당일에'·'땅을 더럽히지 않게' 처리.
- 사이의 규례(포로 신부·두 아내·패역한 아들)는 결이 다르나, '피·땅·정결'이 장을 한 통으로 묶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들의 시신, 가까운 성읍 장로·재판장, 레위 제사장(5절), 포로 여인과 그를 데려온 남자, 두 아내(미움받는/사랑받는), 장자, 패역한 아들과 부모, 성문 사람들, 나무에 달린 자.
- 공통 결: 모두 '약한 자리'에 선 사람들 — 책임 없는 마을, 포로 신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 처형된 시신.
- "미워하다"(sane)가 두 아내 단락에 세 번(15·16·17절). 사랑받는 아내(ahuvah)와 대비.
- 장자(bekhor)에게 "두 몫"(17절) — 감정(ahavah)이 아닌 출생 순서가 기준.

- 사사로운 처분을 공적 절차로 이관: 들의 피→장로·제사장, 패역한 아들→성문 장로, 시신→정해진 방식.
- 속죄 기도(kaphar): "이 피를 주의 백성에게 돌리지 마옵소서"(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들의 미해결 살인, 암송아지 목 꺾음·손 씻음·속죄 기도
- 컷 2 (10-14절): 포로 신부의 한 달 애도, 싫으면 자유롭게(팔지 못함)
- 컷 3 (15-17절): 두 아내,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에게 두 몫
- 컷 4 (18-21절): 패역한 아들을 성문 장로 앞에 세워 공동체가 처리
- 컷 5 (22-23절): 나무에 달린 자를 당일에 내려 땅을 더럽히지 않게
- 감쌌: 컷 1·컷 5가 '피·시신·땅의 정결'로 양끝을 감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chalal(חָלַל) — 찢려 쓰러진 자/피살자(1절).
- eglah(עֵגְלָה) — 암송아지, "명에 매지 않은"(3절). araph(אַרַּף) — 목을 꺾다(4절, 제사와 다른 동작).
- nachal(נָחַל) — (물 흐르는) 골짜기/ 시내(4절).
- dam naqi(דָּם נָקִי) — 무죄한 피(8-9절). kaphar(כָּפַר) — 속하다(8절).
- shevuyah(שֵׁבּוּיָהּ)/yafat toar(יָפֵת תּוֹאֵר) — 포로/아름다운 여인(11절). innah(אִנָּה) — 옥보임/낫춤(14절).
- sane(שָׂנֵא) — 미워하다(15-17절). ahuvah(אַהוּבָה) — 사랑받는 (아내).
- bekhor(בְּכוֹר) — 장자. pi shnayim(פִּי שְׁנַיִם) — 두 몫(17절).
- sorer umoreh(סוֹרֵר וּמוֹרֵה) — 완악하고 패역한(18절).
- talah(תָּלַח) — 달다(22절). ets(עֵץ) — 나무.
- qelalat Elohim(קִלְלַת אֱלֹהִים) — "하나님께 저주받음"(2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흩어진 다섯 규례가 '약한 자리의 사람'과 '땅의 정결'로 묶임.
- 의식 순서(ritual sequence): 암송아지 목 꺾음 → 손 씻음 → 속죄 기도(6-8절).
- 감정(미움/사랑)이 상속(장자권)을 뒤집지 못하게 막는 이분 구조(15-17절).
- 사사로운 처분 → 공적 절차로의 이관이 반복.
- 컷 1(무죄한 피)과 컷 5(저주받은 시신)의 inclusio — '당일'·'땅 정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책임 소재 불명 살인에 인근 공동체가 정결 의식으로 책임을 면하는 관행이 고대 근동(히타이트 문헌 등)에 보고됨. 1-9절과 병행 관찰.
- 전쟁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관행과 그 유예 규정이 여러 사회에 존재.
- 장자에게 상속 두 몫(double portion)을 주는 관행이 고대 근동에 보고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1 ↔ 민 35:33 (피가 땅을 더럽힘)
- 신 21 ↔ 신 19장 (무죄한 피·도피성, 직전 장)

- 신 21 ↔ 출 21:7-11 (여중 처우)
- 신 21 ↔ 창 25:31-34·48-49 (장자권과 그 역전)
- 신 21 ↔ 갈 3:13 ("나무에 달린 자" 인용, 신약 해석 영역)
- 신 21 ↔ 행 5:30·10:39 (나무에 달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에 책임 모를 시신이 엮드러져 있다.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멍에 메지 않은 암송아지를 흐르는 시내로 끌고 가 목을 꺾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이 피를 주의 백성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속죄를 빈다. 장면 이 집으로 옮겨, 전쟁에서 데려온 여인이 한 달을 울고서야 아내가 되며, 싫으면 자유롭게 보내되 결코 팔지 못한다. 두 아내를 둔 집에서는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에게 두 몫이 지켜진다 — 감정이 상속을 뒤집지 못한다. 패역한 아들은 부모가 성문 장로들에게 데려가 공동체가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처형되어 나무에 달린 자는 밤을 넘기지 않고 당일내 내려 묻는다. 책임 모를 피를 씻는 데서 약한 자리의 사람을 지키고, 사사로움을 공동체로 옮기며, 시신마저 거두는 흐름이 '피·약자·땅의 정결'로 흐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책임 모를 피를 씻는 손"
- 초벌 부제: "흠어진 규례가 피·약자·땅의 정결로 모이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여 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속죄 의식·포로 신부·두 몫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패역한 아들(18-21절)·나무에 달린 자(22-23절)의 형벌이 윤리·신학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본문 표면까지만 기록.

- 23절 "저주받은"의 신약 인용(갈 3:13)은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관찰에서 해석하지 않음.
- 포로 신부 규례를 현대 윤리 틀로 평가하지 않고, '팔지 못함'의 약자 보호 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1장은 따로 노는 다섯 규례가 책임 모를 피·약한 자리의 사람·땅의 정결이라는 한 결로 모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들에 엮드러진, 누가 죽였는지 모를 시신으로 연다. 가까운 성읍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며 속죄를 빈다. 이어 포로 신부에게 한 달의 애도를 주고 결코 팔지 못하게 하며,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권을 감정이 뒤집지 못하게 지키고, 패역한 아들을 부모의 손이 아니라 성문 공동체로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처형되어 나무에 달린 자조차 밤을 넘기지 않고 당일애 거둔다. 흩어진 규례들은 약한 자리에 선 사람과 땅의 정결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다섯 무대 — 들·골짜기 시내·집(포로 신부)·두 아내의 집·성문·나무. 소품 — 명예 미치지 않은 암송아지, 흐르는 시내, 깎은 머리·손톱.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다섯으로 끊긴 장면이 "피"와 "약한 자리의 사람"으로 이어짐. 막막함→여러 규례→정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책임 모를 들의 피(1절). 끝 — 나무에 달린 자·땅을 더럽히지 말라(23절). '당일'·'땅 정결'이 양끝을 감싼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장로·제사장·포로 신부·두 아내·장자·패역한 아들·처형된 자. 사사로움을 공동체로 옮기는 결이 반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미해결 살인·속죄(1~9). 컷 2 포로 신부(10~14). 컷 3 장자권(15~17). 컷 4 패역한 아들(18~21). 컷 5 나무에 달린 자(22~2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암송아지 '목 꺾음'의 결. 패역한 아들 규례의 적용. 정보 — dam naqi·kaphar·"두 뭇"·qelalat Elohim.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책임 모를 피를 씻음 → 약한 자리의 사람을 지키 → 사사로움을 성문으로 → 시신을 당일에 거둠의 한 흐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책임 모를 피를 씻는 손". 초별 부제 — "흩어진 규례가 피·약자·땅의 정결로 모이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골짜기 시내 결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책임 모를 피까지 그냥 두지 않으시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책임 모를 피도 그냥 두지 않는다:**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도 공동체가 의식과 기도로 피를 다룬다. 책임의 공백을 비워 두지 않는다.

2. **결 2 — 약한 자리의 사람을 지킨다:** 포로 신부를 팔지 못하게 하고,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권을 감정이 뒤집지 못하게 한다. 권리가 감정보다 앞선다.

3. **결 3 — 사사로움을 공동체로 옮긴다:** 패역한 아들을 부모의 손이 아니라 성문 장로 앞으로 가져간다. 처분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9장** (무죄한 피·도피성, 직전 장의 결을 잇는다). **신 15:12-18** (종 해방의 결과 포로 신부 규례가 마주 본다).
- 다른 권 — **민 35:33** (피가 땅을 더럽힘). **창 48-49** (장자 축복의 역전). **갈 3:13** ("나무에 달린 자" 인용, 신약의 결).
- 정경 흐름 — 약한 자리의 사람과 책임 모를 피를 다루는 결은, 정경이 '가장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두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들에 엎드려진 책임 모를 시신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속죄를 비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권이 지켜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처형된 시신마저 당일에 거두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흠어진 규례가 약자와 땅의 정결로 모인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책임의 공백과 약한 자리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책임 모를 피를 의식과 기도로 다룬다
- [x] 암송아지는 제사가 아니라 목을 꺾는 별도 동작이다
- [x] 포로 신부에게 한 달을 주고 팔지 못하게 한다
- [x]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권을 감정이 뒤집지 못한다
- [x] 패역한 아들을 성문 공동체로 가져간다
- [x] 처형 시신을 당일에 내려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
- [x] 흠어진 규례가 '피·약자·땅의 정결'로 모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약자.

미해결 질문

신명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미해결 살인에서 암송아지 '목을 꺾는' 동작이 제사가 아닌 까닭은?

- 관찰 사실: 제단에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시내에서 목을 꺾는 별도 동작(4절).
- 본문은 그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책임 없는 가까운 성읍이 '손을 씻고' 속죄를 비는 의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 직접 죄를 짓지 않은 공동체가 피의 책임을 다루는 절차(6-8절).
- 공동 책임의 결이 어디까지인지는 본문이 길게 말하지 않음. 보존.

Q3. 포로 신부를 '팔지 못하게' 한 까닭(14절)은?

- 싫어 보낼 때에도 종으로 여기거나 팔 수 없음. 이유는 "네가 그를 욕보였음이라"(innah).
- 약자를 거래 대상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결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권을 지키는 규례(15-17절)는 무엇을 막는가?

- 아버지의 사랑(ahavah)이 출생 순서를 뒤집지 못하게 함.
- 감정과 권리의 관계를 본문은 규례로만 둬. 해석 보류.

Q5. 패역한 아들 규례(18-21절)는 실제 시행인가, 극단적 경고인가?

- 부모가 성문 장로에게 데려가 공동체가 처리하는 절차.
- 시행 여부·적용 한계를 본문 표면만으로는 확정 어려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처형된 시신을 '당일에' 내려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까닭(23절)은?

- 죄로 죽은 자에게도 시간 제한과 '땅의 정결'이 붙음.
- 사람의 일과 땅의 정결이 연결된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2장

DEU-022 · 오경 · 히브리어

잃은 것을 못 본 체하지 말고,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며, 지붕에 난간을 두라. 종류를 섞지 않고, 옷단에 술을 단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일상 곳곳: 길가(잃은 짐승), 새 둥지(나무·땅), 집 지붕(난간), 밭·포도원, 몸의 옷, 성문 재판 자리.
- 소품 — 잃은 소·양·나귀, 떨어진 옷(simlah), 어미 새와 알·새끼, 지붕 난간(maaqeh), 두 씨앗, 소와 나귀, 혼방 옷(shaatnez), 옷단 술(gedilim).
- 강조 표현: "못 본 체할 수 없다"(lo tukhal lehitalem, 3절)는 강한 부정.
- 구조 표지: 1-4절 "형제의 잃은 것 회복" 묶음, 5절 이하 "구별·금지" 묶음.
- 배경 — 정착한 가정·마을의 일상(짐승·평지붕·밭·혼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손에 잡히는 일상 소품으로 가까이 열렸다가, 혼인·정조 단락에서 공기가 팽팽해짐. 참가자 다수가 "따뜻함→무거움"의 전환을 공유.
- "못 본 체하지 말라"·"섞지 말라"·"형제"가 청각적으로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못 본 체하지 말고... 돌려줄 것이요" — 회복으로 시작.
- 30절(MT 23:1):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 경계의 금지로 단함.
- 한 축은 '경계': 잃은 것을 제자리로 돌림(회복)과 섞지/취하지 말라(보존)가 같은 결.
- 옷자락(knaph)이 12절(옷단 술)과 30절(아버지의 옷자락)에 양끝 가까이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형제(이웃)·잃은 짐승 주인·어미 새·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신랑·신부·신부 부모·성문 장로.
- 앞부분의 주인공은 "형제"(1-4절, 네 번 반복), "돌려주라"가 후렴.
- 어미 새(em)와 새끼(banim): 어미를 놓아 주면 "잘 되고(tov) 장수하리라"의 동기절(7절).
- 작은 규례에 큰 결과: 어미 새→복, 지붕 난간→"피 흘림이 집에 돌아오지 않게"(8절).
- 혼인 분쟁(13-21절)이 성문 장로 재판으로 이관 — 가정의 일이 공동체로.
- 평가어 "가증한 것"(toevah, 5절)이 한 번 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형제의 잃은 것 회복, 넘어진 짐승 일으킴

- 컷 2 (5-12절): 작은 구별의 규례 — 의복·어미 새·지붕 난간·혼합 금지·옷단 술
- 컷 3 (13-21절): 신부 모함 — 처녀의 표·성문 재판
- 컷 4 (22-29절): 간음·약혼녀·미혼녀 규례 — 들/성안 구분
- 컷 5 (30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경계 금지)
- 밀도: 컷 2가 가장 뻑뻑 — '구별'과 '생명 돌봄'이 섞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avedah(אָוֵדָה) — 잃은 것(3절). hitalem(חִתְּלֶמָה) — 숨다/외면하다, "못 본 체"(1·3·4절).
- shor(שׁוֹר)/seh(שֶׁח) — 소/양(1절).
- qen tsippor(קֵן צִפּוֹר) — 새 둥지(6절). em(אִמּ)/banim(בָּנִים) — 어미/새끼(6-7절).
- maaqeh(מַאֲקֵה) — 지붕 난간(8절). gag(גָּג) — 지붕. damim(דָּמִים) — 피 흘림(8절).
- kilayim(כִּלְיִים) — 섞은 것(9·10절). shaatnez(שְׂאֵתֶנֶז) — 양털·베 혼방(11절).
- gedilim(גְּדִילִים) — 옷단 술(12절). knaph(כְּנָפִי) — 옷자락/날개(12·30절).
- betulah(בְּתוּלָה) — 처녀. besulim(בְּסוּלִים) — 처녀의 표(13-20절).
- simlah(סִמְלָה) — 옷(겂옷, 17절).
- tov(טוֹב) — 좋게/잘됨(7절 동기절).
- zaqenim(זָקֵנִים) — 장로들(15·1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회복(1-4절)에서 구별·금지(5-30절)로의 흐름. '경계'가 두 묶음을 잇는 축.
- 작은 규례에 큰 동기절이 붙음: "잘 되리라"(7절), "피가 돌아오지 않게"(8절).
- 혼합 삼중 금지: 씨앗·교배(소나귀)·옷감(shaatnez)의 병렬(9-11절).
- 옷자락(knaph)의 양끝 반복(12·30절).
- 가정 분쟁의 공동체(성문 장로) 이관 구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종류를 섞지 않는' 정결 관념이 고대 근동 여러 문헌에 보고됨. 혼합 금지(9-11절)와 병행 관찰.
- 평지붕 주거의 낙상 방지 난간 관습이 지붕 규례(8절) 정황.
- 혼인 시 처녀의 표(besulim) 증거와 성문 장로 재판이 고대 근동 가족법 정황.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2 ↔ 출 23:4-5 (원수의 잃은 짐승 돌려줌 — 더 넓은 걸)
- 신 22 ↔ 레 19:19 (혼합 금지 — 씨앗·교배·옷감)
- 신 22 ↔ 민 15:37-41 (옷단 술 tsitsit 규례)
- 신 22 ↔ 신 24:1-4 (이혼 증서, 다음 장과 연결)
- 신 22 ↔ 레 18:8·20:11 (아버지의 아내)
- 신 22 ↔ 마 23:5 ("옷술을 크게 하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에서 형제의 잃은 소나 양을 본다. 못 본 체할 수 없다. 끌어다 돌려주고, 주인을 모르면 집에 두었다가 찾아준다. 떨어진 옷도, 넘어진 나귀도 그냥 두지 않는다. 이어 작은 구별의 규례가 줄지어 온다 — 남녀 의복, 어머니 새는 놓아 주고 새끼만 취함("잘 되고 장수하리라"), 지붕에 난간을 둘러 피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함, 씨앗·소나귀·옷감을 섞지 않음, 옷단에 술을 닦음. 장면이 무거워져 신부를 포함한 남편의 일이 성문 장로 재판으로 올라가고, 정조 침해의 경우들이 들과 성안으로 나뉘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경계의 금지로 닫힌다. 잃은 것을 못 본 체하지 않는 회복에서 작은 구별과 생명 돌봄을 지나, 분쟁을 공동체로 가져가고 경계를 지키는 흐름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못 본 체할 수 없는 자리"
- 초벌 부제: "일상의 작은 결마다 회복과 구별을 두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여 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혼합 금지·지붕 난간·가족법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혼인·정조 규례(13-29절)·"가증한 것"(5절)이 현대 윤리·성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본문 표면까지만 기록.
- 혼합 금지(kilayim·shaatnez)의 상징 해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종류 구별'까지만 관찰.
- 옷단 술과 민 15장의 연결은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2장은 일상의 작은 결마다 잃은 것을 돌려주는 회복과 종류·경계를 지키는 구별을 나란히 두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길에서 마주친 형제의 잃은 짐승을 "못 본 체할 수 없다"는 데서 연다. 떨어진 옷, 넘어진 나귀까지 외면할 수 없는 자리가 넓어진다. 이어 작은 구별의 규례가 줄지어 온다 — 어미 새는 놓아 주고, 지붕에는 난간을 두르며, 씨앗·소나귀·옷감을 섞지 않고, 옷단에 술을 단다. 작은 규례마다 "잘 되리라"·"피가 돌아오지 않게" 같은 큰 결과가 매달린다. 후반의 혼인·정조 분쟁은 가정을 떠나 성문 장로 재판으로 올라가고, 장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경계의 금지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일상 무대 — 길·새 동지·지붕·밭·옷·성문. 소품 — 잃은 짐승, 어미 새, 난간, 두 씨앗, 혼방 옷, 옷단 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손에 잡히는 일상으로 가까이 열려 혼인·정조 단락에서 팽팽해짐. "못 본 체하지 말라"의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잃은 것을 돌려줌(1절). 끝 —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30절). '경계'와 옷 자락(knaph)이 잇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형제·잃은 짐승·어미 새·신랑·신부·성문 장로. 작은 규례에 큰 동기절("잘 되리라"·"피가 돌아오지 않게")이 붙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잃은 것 회복(1~4). 컷 2 작은 구별(5~12). 컷 3 신부 포함·재판(13~21). 컷 4 정조 규례(22~29). 컷 5 경계 금지(3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못 본 체"의 확장. 혼합 금지의 공통 기준. 정보 — hitalem·maaqeh·shaatnez·옷단 술(민 15장 연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잃은 것 회복 → 작은 구별·생명 돌봄 → 분쟁의 공동체 이관 → 경계 금지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못 본 체할 수 없는 자리". 초벌 부제 — "일상의 작은 결마다 회복과 구별을 두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길과 지붕과 밭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모른 척하고 싶은 자리마다 못 본 체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외면할 수 없는 자리:** 잃은 짐승·떨어진 옷·넘어진 나귀까지 "못 본 체할 수 없다"가 넓어진다. 회복의 책임이 일상 곳곳으로 번진다.

2. **결 2 — 작은 일에 매달린 큰 결과:** 어미 새를 놓아 주는 작은 자비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가, 지붕 난간에 "피가 돌아오지 않게"가 붙는다. 작은 규례가 생명·복과 이어진다.

3. **결 3 — 종류와 경계의 구별:** 씨앗·교배·옷감을 섞지 않고, 가족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회복과 구별이 같은 장에 나란히 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24:1-4** (이혼 증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혼인 규례). **신 21장** (약한 자리의 사람을 다룬 직전 장과 마주 본다).
- 다른 권 — **출 23:4-5**(원수의 잃은 짐승). **레 19:19**(혼합 금지). **민 15:37-41**(옷단 술). **마 23:5**("옷술을 크게 하고").
- 정경 흐름 — 일상의 작은 결마다 회복과 구별을 두는 결은, 정경이 '작은 것'에 큰 무게를 실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길에서 형제의 잃은 짐승을 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외면할 수 없는 자리가 옷·나귀로 넓어지는 데서 멈춘다.
- **멈춤 2:** 작은 자비에 "잘 되리라"가 매달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가정의 분쟁이 성문 공동체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작은 일마다 회복과 구별이 함께 있다는 결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모른 척하고 싶은 자리와 경계를 지키는 자리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잃은 것을 못 본 체하지 않고 돌려준다
- [x] 외면할 수 없는 자리가 일상으로 넓어진다
- [x] 어미 새는 놓아 주고 새끼만 취한다
- [x] 지붕에 난간을 둘러 피 책임을 막는다
- [x] 씨앗·소나귀·옷감을 섞지 않는다
- [x] 작은 규례에 큰 결과가 매달린다
- [x] 회복과 구별이 한 장에 나란히 있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구별.

미해결 질문

신명기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못 본 체하지 말라"가 짐승·옷·넘어진 나귀로 자꾸 넓혀지는 까닭은?

- 관찰 사실: 외면할 수 없는 대상을 1-4절에서 계속 확장.
- 본문은 그 확장의 끝을 명시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작은 규례(어미 새)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7절)는 큰 약속이 붙은 까닭은?

- 동물에게 한 작은 자비에 사람의 복이 매달림.
- 작은 일과 큰 결과의 연결 방식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3. 혼합 금지(씨앗·소나귀·옷감)를 함께 묶은 기준은?

- 세 가지 '섞음'(kilayim·shaatnez)이 병렬로 금지됨(9-11절).
- 공통 원리가 무엇인지 본문 표면만으로는 확정 어려움. 한 방향으로 굳히지 않고 보존.

Q4. 22-29절의 들/성안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는가?

- 표면적으로 '소리쳐 도울 자가 있었는가'로 보임.
- 그 기준의 정확한 적용은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음. 보존.

Q5. 지붕 난간(8절)에 "피 흘림이 집에 돌아오지 않게"가 붙은 까닭은?

- 타인의 안전을 미리 책임지게 하는 구조물 규례.
- 집주인의 '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회복(1-4절)으로 열려 경계 금지(30절)로 닫히는 배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 적극적 돌려줌과 단호한 금지가 한 장의 양끝.
- '경계'라는 한 축으로 묶이는 결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3장

DEU-023 · 오경 · 히브리어

총회에 드는 자격과 진영의 거룩,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않음,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음, 서원은 더디 갚지 말 것.

관찰된 사실

신명기 2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셋: 여호와와 총회(qahal YHWH, 예배 공동체, 1-8절), 군대 진영(machaneh, 9-14절), 마을의 일상(15-25절).
- 진영 소품 — 진영 밖 한 곳(12절), 도구의 말뚝/삽(yated, 13절), 흙으로 덮는 동작, 배설물(tsoah).
- 세대 표지: 거세된 자·사생자·암몬·모압 "십 대까지", 에돔·애굽 "삼 대"(2·3·8절).
- 거룩의 근거: "네 하나님은 진영 가운데로 행하심이라"(14절).
- 배경 — 출애굽·광야 기억(암몬·모압이 떡과 물로 맞지 않음, 발람 고용, 4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들어오지 못한다"의 단함으로 열려, 도망친 종 보호·이웃 밭의 정겨움으로 풀림. 참가자 다수가 "가림→ 품음"의 전환을 공유.
- "거룩"·"부정"이 진영 단락에 집중되어 청각적 인상을 만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 거룩한 공동체 '들어옴'의 자격(단함)으로 시작.
- 25절: 이웃 밭에서 "손으로 따 먹되 그릇·낮은 안 됨" — '무엇을 취할지'의 경계(허용)로 단함.
- 양끝 모두 '경계'를 다루되, 시작은 단함·끝은 허용 쪽.
- 총회(qahal, 1절)와 진영(machaneh, 14절)이 '거룩한 공간'을 표시. 사람의 자격과 공간의 정결이 짝.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부류: 총회에 들거나 못 드는 부류(거세된 자·사생자·암몬·모압·에돔·애굽), 진영 군인, 도망친 종, 서원하는 자, 이웃 밭을 지나는 자. 여호와와 "진영 가운데로 행하시는 분".
- 도망친 종(15-16절): "돌려보내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기뻐하는 곳에 살게 하라" — 받아들임.
- 이자(neshekh): 동족(ah)에게 금지, 이방인(nokri)에게 허용(19-20절).
- 서원(neder): 강요 없음("서원하지 않으면 죄 없음"),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킴(21-23절).
- 두 결의 공존: '들임/내보냄'(가림)과 '받아들임/보호'(품음)가 한 장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총회 자격 — 거세된 자·사생자·암몬·모압(십 대)·에돔·애굽(삼 대)

- 컷 2 (9-14절): 진영의 정결 — 배설물 처리, "진영이 거룩할지니"
- 컷 3 (15-16절):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
- 컷 4 (17-23절): 성전 매춘 금지·이자 규제·서원
- 컷 5 (24-25절): 이웃 밭 — 손으로 따 먹되 그릇·낮은 금지
- 대비: 컷 1(달고 가림) ↔ 컷 3(품고 보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qahal YHWH(קהל יהוה) — 여호와와의 총회(1·2·3·8절).
- machaneh(מחנה) — 진영(9-14절).
- qadosh(קדוש) — 거룩한, 진영이 거룩해야 함(14절). tame(טמא) — 부정한(10절).
- yated(יָתַד) — 말뚝/삽(도구, 13절). tsoah(צוא) — 배설물(13절).
- dor(דור) — 대(세대), "십 대"·"삼 대"(2·3·8절).
- eved(עבד) — 종, 도망친 종(15절). lo tone — 학대하지 말라(16절, 약자 보호 어휘).
- nesekh(נשך) — 이자('무는 것', 19절). nokri — 이방인(20절).
- neder(נדב) — 서원(21-23절).
- kerem(כרם)/qamah(קמה) — 포도원/곡식밭(24-25절). keli(כלי) — 그릇(24절).
- mechir kelev(מכיר כלב) — "개의 값/개 같은 자의 소득"(18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단핍(총회 자격) → 품음(도망친 종·이자 면제)의 대비 구조.
- 세대 절(dor)로 자격을 매기는 형식(2·3·8절).
- 거룩의 동기절: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행하심이라"(14절).
- 동족/이방의 구별(이자, 19-20절)과 형제 보호의 결.
- 허용과 한계가 동작(손 ↔ 그릇·낮)으로 갈림(24-25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신전·군진의 정결·위생 규정이 진영 거룩(9-14절)과 병행 관찰.
- 이자(nesekh) 관행과 동족/이방 차등이 여러 법전에 보고됨.
- 도망친 종 송환이 일반적이던 고대 근동 조약과 대조되는 신23:15-16의 보호 규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3 ↔ 민 22-24 (발람과 모압·발락, 8절 배경)
- 신 23 ↔ 출 22:25·레 25:35-37 (이자 금지)
- 신 23 ↔ 신 15:1-11 (면제년·꾸어줌, 가난한 형제)
- 신 23 ↔ 전 5:4-5 (서원은 지체 말라)
- 신 23 ↔ 마 5:33-37 (맹세하지 말라, 다른 권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총회의 문 앞에서 누구는 들어오지 못한다 — 거세된 자·사생자, 그리고 길에서 떡과 물로 맞지 않고 발람을 고용한 암몬·모압은 십 대까지, 형제였고 나그네였던 에돔·애굽은 삼 대에 들어올 수 있다. 장면이 군대 진영으로 옮겨, 부정이 생기면 진영 밖에서 정결을 기다리고 배설물은 흙으로 덮는다 — 하나님은 진영 가운데로 다니시기에 거룩해야 한다. 마을로 바뀌어, 도망쳐 온 종을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기뻐하는 곳에 살게 한다. 성전 매춘의 소득은 예물로 가져오지 못하고,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자를 물리지 않으며, 서원은 더디 갚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웃의 밭에서 배고프면 손으로 따 먹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지 않는다. 총회를 가리는 데서 진영을 거룩으로 지키고 도망친 종을 품으며 이웃 밭의 손길까지 닿는 흐름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가리는 문과 품는 손"
- 초벌 부제: "문에서는 가리고, 도망친 자는 품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여 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진영 정결·이자·종 송환 대조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총회 자격 배제 규례(1-8절)가 차별·포용 신학 논쟁으로 변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본문 표 면까지만 기록.
- 18절 "개 같은 자의 소득"의 정확한 지시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 도망친 종 보호(15-16절)를 사회 제도 비판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약자를 품는 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3장은 거룩한 공동체의 문에서 자격을 가리는 결과, 그 안에서 도망쳐 온 약자를 품고 형제의 짐을 더는 결이 한 장에 나란히 서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자격의 단핍으로 연다. 거세된 자·사생자·암몬·모압은 닫히고, 에돔·애굽은 세대를 두고 열린다. 이어 군대 진영의 거룩을 다루는데, 그 거룩은 멀리 있지 않고 배설물을 흙으로 덮는 가장 일상적인 위생에까지 닿는다 —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다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이 바뀐다. 도망쳐 온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기뻐하는 곳에 살게 하며,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고,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는 따 먹게 하되 거두어 가지는 못하게 한다. 가림과 품음이 한 흐름에 함께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세 무대 — 총회(예배 공동체)·군대 진영·마을 일상. 소품 — 진영 밖 한 곳, 흙 덮는 도구(yated), 이웃의 포도·곡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들어오지 못한다"의 단핍으로 열려 도망친 종·이웃 밭의 정겨움으로 풀림. 가림→품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총회 자격의 단핍(1절). 끝 — 이웃 밭 손길의 허용(25절). 둘 다 '경계'를 다루되 방향이 다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가려지는 여러 부류·진영 군인·도망친 종·서원하는 자·밭을 지나는 자. '들입/내보냄'과 '받아들임/보호'가 공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총회 자격(1~8). 컷 2 진영 정결(9~14). 컷 3 도망친 종(15~16). 컷 4 매춘·이자·서원(17~23). 컷 5 이웃 밭(24~25).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대수 차이의 기준. 단핍과 품음의 공존. 정보 — qahal·machaneh·neshekh:"개의 값".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총회 자격 가림 → 진영 거룩 → 도망친 종 품음 → 서원·이자·이웃 밭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가리는 문과 품는 손". 초벌 부제 — "문에서는 가리고, 도망친 자는 품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진영과 마을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가려지던 자리에서도 도망쳐 온 자를 품으시는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문에서 가리는 거룩:** 총회의 자격을 세대로 매기고, 진영의 정결을 일상의 위생까지 요구한다. 거룩이 공동체의 문과 진영을 가른다.
- 결 2 — 도망쳐 온 자를 품음:** 고대 근동이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던 것과 달리, 본문은 돌려보내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한다. 가림 한가운데 품음이 박힌다.

3. **결 3 — 동작 하나로 갈리는 경계:** 이웃 밭에서 손으로는 되고 그릇·낮으로는 안 된다. 시장기를 채우는 것과 거두어 가는 것을 작은 동작으로 가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5:1-11** (가난한 형제에게 꾸어줌, 이자 면제의 결을 잇는다). **신 24장** (약자 보호 규례로 이어진다).
- 다른 권 — **민 22-24**(발람·모압). **출 22:25·레 25:35-37**(이자 금지). **전 5:4-5**(서원)·**마 5:33-37**(맹세).
- 정경 흐름 — 문에서 가리되 도망쳐 온 자를 품는 결은, 정경이 거룩과 긍휼을 함께 붙드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총회의 문 앞에서 가려지는 부류를 보며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거룩이 진영의 흠 한 줌까지 닿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도망쳐 온 종을 돌려보내지 않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이웃 밭에서 손은 되고 낮은 안 되는 경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가림과 품음이 한 거룩 안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문에서 가려지는 자리와 도망쳐 온 자를 품는 자리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총회의 자격을 세대로 매긴다
- [x] 진영의 거룩이 일상의 위생까지 닿는다
- [x] 거룩의 근거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행하심"이다
- [x] 도망쳐 온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품는다
- [x]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 [x] 서원은 강요 없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킨다
- [x] 이웃 밭에서 손은 되고 그릇·낮은 안 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품음.

미해결 질문

신명기 2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암몬·모압(십 대)과 에돔·애굽(삼 대)의 대수 차이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 관찰 사실: 과거 행적(떡·물·발람 ↔ 형제·나그네)이 근거로 제시됨(4·7절).
- 왜 대수가 다른지는 본문이 길게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거세된 자·사생자가 총회에 들지 못하는 규례(1-2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몸의 상태·출생이 자격에 걸림.
- 기준의 근거를 본문 표면만으로는 확정 어려움. 한 방향으로 굳히지 않고 보존.

Q3.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규례(15-16절)가 자격을 가리던 앞부분과 결이 다른 까닭은?

- 같은 장에서 단핍(총회)과 품음(종)이 걸림.
- 두 결의 공존을 어떻게 읽을지는 본문이 답하지 않음. 보존.

Q4. 동족에게는 이자를 금하고 이방인에게는 허용하는 구별(19-20절)의 결은?

- '형제'와 '타인'을 다르게 둠.
- 그 구별이 향하는 곳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진영의 거룩이 가장 일상적인 위생(배설물 처리)에까지 닿는 까닭(14절)은?

-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로 행하심"이 근거로 붙음.
- 거룩과 일상의 연결 방식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이웃 밭에서 손은 되고 그릇·낮은 안 되는 동작의 경계(24-25절)는 무엇을 가르는가?

- 시장기 채움(허용)과 거두어 감(금지)이 동작 하나로 걸림.
- 그 경계의 정밀함이 향하는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4장

DEU-024 · 오경 · 히브리어

이혼 증서와 신혼 일 년의 면제, 맷돌·겉옷을 잡지 않음, 품삯을 당일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긴다. 애굽을 기억하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2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일상 곳곳: 집(이혼·재혼, 1-4절), 신혼의 집(5절), 빛진 자의 문 앞(10-13절), 일터(품꾼, 14-15절), 추수하는 밭·감람나무·포도원(19-22절).
- 소품 — 이혼 증서(sefer keritut), 맷돌(rechayim), 가난한 자의 겉옷, 품꾼의 하루 샅, 잊고 둔 단(shichechah), 감람·포도.
- 맷돌에 '생명'(nefesh)이 붙음: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니라"(6절).
- 시간 표지: 신혼자 "일 년"(5절), 품삯 "그 날애·해 지기 전에"(15절).
- 배경 — 애굽의 종 되었던 기억(18·22절)이 자비의 근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약자(객·고아·과부·품꾼·가난한 자)가 거듭 호명됨. 참가자 다수가 "복잡한 시작→단순하고 따뜻한 결말"의 흐름을 공유.
- "전당잡다"."기억하라"."객과 고아와 과부"가 청각적으로 반복.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것이요" — 한 가정의 깨어짐·절차로 시작.
-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 약자 규례의 근거인 기억으로 닫힘.
- 사적인 데서 열려 공동의 자비로 닫힘. 한 축은 '묶음과 풀림'.
- "수치되는 일"(ervat davar, 1절)과 "기억하라"(zakhar, 22절)가 양끝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이혼·재혼하는 부부, 신혼부부, 빛진 자와 꾸어 준 자, 품꾼, 객(ger)·고아(yatom)·과부(almanah). 여호와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심(15절).
- 객·고아·과부가 세 짝으로 반복(17·19·20·21절) — 재판·전당물·이삭/감람/포도의 남김.
- "잊은 단"(shichechah)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19절): 잊음이 약자의 몫이자 '복'의 통로.
- 채무자의 집·존엄 침범 금지: 밖에 서서 전당물을 받음(10-11절).
- 약자가 '생명이 달린' 자리: 맷돌=생명(6절), 겉옷=유일한 의복(13절), 품꾼=샅을 의지(15절).
- 책임의 개별성: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일 것"(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이혼 증서와 재혼 — 보냈다가 다시 맞이하지 못함
- 컷 2 (5절): 신혼자 일 년 면제
- 컷 3 (6-15절): 전당물(맷돌·겂옷)·납치 금지·문둥병 주의·품삯 당일 지급
- 컷 4 (16절): 책임의 개별성
- 컷 5 (17-22절): 약자(객·고아·과부) 보호와 이삭/감람/포도의 남김, "애굽을 기억하라"
- 모임: 컷 5에 객·고아·과부가 집중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efer keritut(סֵפֶר כְּרִיתוּת) — 이혼 증서('끊음의 문서', 1절).
- ervat davar(עֲרֵוַת דָּבָר) — "수치되는 일"(난해 사유어, 1절).
- rechayim(רְחַיִּים) — 맷돌(6절). nefesh(נֶפֶשׁ) — 생명, 맷돌에 붙음.
- chavol(חָבַל) — 전당잡다(6·10·12·13·17절).
- sakhir(שָׁכִיר) — 품꾼(14·15절). 그 삯을 "그 날에" 줌.
- ger(גֵּר)/yatom(יָתוּם)/almanah(אַלְמָנָה) — 객/고아/과부(17·19·20·21절).
- shichechah(שִׁיחַחָה) — 잊은 (단)(19절).
- tsedaqah(צְדָקָה) — 의, 겂옷을 돌려줌이 '의'가 됨(13절).
- zakhar(זָכַר) — 기억하라(18·22절).
- zayit(זַיִת) — 감람나무(20절). pe'ah/올레롯 결 — 남겨 두는 몫.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사적 가정사(1-5절) → 채무·노동(6-15절) → 책임 개별성(16절) → 약자 보호(17-22절)의 흐름.
- 기억 절(zakhar)의 후렴: 약자 규례마다 "애굽을 기억하라"(18·22절).
- 동기절: 맷돌=생명(6절), 겂옷 돌려줌=의(13절), 잊은 단=복(19절).
- 객·고아·과부 삼중 반복.
- 1-4절의 긴 조건절 구문(난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에 이혼 증서를 발급해 재혼 가능성을 명시하는 관행이 보고됨. 1절과 병행 관찰.
- 생계 필수품(맷돌·겂옷)을 담보로 잡는 것을 제한하는 관념이 여러 문헌에 나타남.
- 일용직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는 임금 관행(14-15절 정황).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4 ↔ 신 23장 (도망친 종·약자 보호, 직전 장)
- 신 24 ↔ 출 22:21-27 (객·과부·고아·전당물·이자)
- 신 24 ↔ 레 19:9-10 (이삭·열매 남기기)
- 신 24 ↔ 신 5:14-15·16:11-12 (안식·절기와 애굽 기억)
- 신 24 ↔ 마 19:7-8 (이혼 증서 논쟁)

- 신 24 ↔ 룯 2장 (이삭 줍기의 실제 장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한 가정에서 남편이 "수치되는 일"을 보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낸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보냄 받거나 사별하면, 처음 남편은 그를 다시 맞이하지 못한다. 장면이 신혼의 집으로 바뀌어, 갓 결혼한 남자는 일 년 동안 군대·공무에서 면제되어 아내를 즐겁게 한다. 채무자의 문 앞에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전당물을 받으며, 맷돌은 생명이므로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겂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준다. 일터에서는 가난한 품꾼의 삯을 그 날 해 지기 전에 준다 — 그가 그 삯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책임은 대물림되지 않고 각자 자기 죄로만 진다. 추수하는 밭에서 잇고 둔 단을 다시 가지러 가지 않고, 감람과 포도의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둔다. 그 모든 자비의 끝에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가 놓인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잇은 이삭은 그들의 몫"
- 초벌 부제: "생존이 걸린 자리마다, 기억이 자비의 근거가 되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여 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이혼 증서·전당물·품삯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혼 규례(1-4절)가 결혼·이혼 신학 논쟁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본문 표면(절차·재혼 금지)까지만 기록.
- "수치되는 일"(ervat davar)을 한 방향(넓게/좁게)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 약자 보호 규례를 현대 복지 담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생존·존엄·기억'의 결까지만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4장은 가정·채무·노동·추수의 자리마다 약자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 그 모든 자비의 근거로 애굽의 기억을 두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한 가정의 이혼과 재혼이라는 사적이고 복잡한 절차로 연다. 그러다 결이 점점 단순하고 따뜻해진다. 신혼자는 일 년을 면제받고, 채무자의 집은 침범되지 않으며, 맷돌은 '생명'이라 잡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겂옷은 해 지기 전에 돌아오며, 품꾼의 삯은 그 날에 지급된다. 책임은 대물림되지 않고 각자 자기 죄로만 진다. 마지막으로 추수의 밭에서 잇고 둔 이삭마저 객과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남겨진다. 규례마다 생존이 걸려 있고, 그 끝에는 "너도 애굽에서 종이였음을 기억하라"가 놓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일상 무대 — 집·신혼방·채무자 문 앞·일터·추수 밭. 소품 — 이혼 증서, 맷돌, 겂옷, 하루 삯, 잇은 이삭.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약자가 거둬 호명됨. 복잡한 시작에서 단순하고 따뜻한 결말로. "기억하라"의 후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한 가정의 이혼 절차(1절). 끝 — "애굽을 기억하라"(22절). 사적인 데서 공동의 자비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부부·신혼부부·채무자·품꾼·객·고아·과부. 약자가 '생명이 달린' 자리에 있음(맷돌·겂옷·삯).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이혼·재혼(1~4). 컷 2 신혼 면제(5). 컷 3 전당물·품삯(6~15). 컷 4 책임 개별성(16). 컷 5 약자 보호·이삭 남김(17~2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수치되는 일"의 범위. 1-4절 구문. 정보 — 맷돌=생명·겂옷=의(tsedaqah)·잇은 단=복.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정사 → 신혼·채무·노동 → 책임 개별성 → 잇은 이삭을 약자에게 남김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잇은 이삭은 그들의 몫". 초벌 부제 — "생존이 걸린 자리마다, 기억이 자비의 근거가 되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남겨 둔 이삭 겂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잇은 것조차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 두라 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생존이 걸린 자리:** 맷돌은 '생명'이라 잡지 못하고, 겂옷은 '유일한 의복'이라 돌려주며, 품삯은 '그 날'에 준다. 규례마다 약자의 생존이 걸려 있다.
- 결 2 — 잇은 것조차 남김:** 추수하다 잇고 둔 이삭을 다시 가지러 가지 않는다. 잇음마저 약자의 몫이 되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

3. **결 3 — 기억이 자비의 근거:** 약자를 향한 규례마다 "애굽에서 종이였음을 기억하라"가 따른다. 자비의 명령이 추상적 의무가 아니라 자기 기억에 뿌리내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23장** (도망친 종·약자 보호의 결을 잇는다). **신 5:14-15·신 16:11-12** (안식·절기와 '애굽 기억'의 같은 후렴).
- 다른 권 — **출 22:21-27**(객·과부·전당물). **레 19:9-10**(이삭 남기기). **룻 2장**(이삭 줍기의 실제). **마 19:7-8**(이혼 증서 논쟁).
- 정경 흐름 — 잇은 이삭을 약자에게 남기는 결은, 정경이 '가난한 자의 몫'을 거룩한 의무로 두는 결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가정의 복잡한 이혼 절차 앞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멧돌이 '생명'으로 불리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겹옷을 해 지기 전에 돌려주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잇은 이삭이 약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기억이 자비의 근거가 된다는 결을 손에 진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자기 생존이 걸렸던 기억과 약자의 생존 사이에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혼 증서와 재혼 금지의 절차가 있다
- [x] 신혼자는 일 년 면제받는다
- [x] 멧돌은 생명이라 전당잡지 못한다
- [x] 가난한 자의 겹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준다
- [x] 품삯은 그 날 해 지기 전에 준다
- [x] 책임은 각자 자기 죄로만 진다
- [x] 잇은 이삭은 객·고아·과부의 몫으로 남긴다
- [x] 자비의 근거는 '애굽의 기억'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기억.

미해결 질문

신명기 2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림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1절의 이혼 사유 "수치되는 일"(ervat davar)은 정확히 무엇인가?

- 관찰 사실: 난해한 사유어로, 넓게도 좁게도 읽힘.
- 본문은 그 범위를 확정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1-4절은 '이혼하라'는 명령인가, '다시 맞이하지 말라'는 조건문인가?

- 히브리어 구문상 긴 조건절로 읽는 견해가 있음.
- 문장 구조의 방향을 본문 표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한 방향으로 굳히지 않고 보존.

Q3. 맺들·겔옷에 '생명'·'의'가 붙는 까닭(6·13절)은?

- 생계 필수품을 잡는 것이 "생명을 잡음", 겔옷을 돌려줌이 "의"로 셈해짐.
- 약자 돌봄과 '의'의 연결 방식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보존.

Q4. 잇고 둔 단을 다시 가지려 가지 말라는 규례(19절)는 무엇을 뜻하는가?

- '잇음'이 약자의 몫이자 복의 통로가 됨.
- 의도적 '남김'과 '잇음'의 결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책임의 개별성(16절)이 약자 보호 규례 사이에 박힌 까닭은?

- 대물림되지 않는 책임이 약자를 향한 결과 나란히 놓임.
- 두 결이 한 자리에 모인 배치 의도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보존.

Q6. 약자 규례마다 "애굽을 기억하라"(18·22절)가 근거로 붙는 까닭은?

- 자비의 근거가 명령이 아니라 '기억'으로 제시됨.
- 기억과 자비의 연결이 향하는 곳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5장

DEU-025 · 오경 · 히브리어

매질에도 한도가 있고, 곡식 떠는 소도 먹으며, 저울은 정직해야 한다. 약자와 짐승까지 셈에 든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여섯 자리로 옮겨 다닌다: 법정(1-3) → 타작마당(4) → 집안·성문(5-10) → 싸움터(11-12) → 시장(13-16) → 광야의 기억(17-19).
- 소품 — 매(채찍), 곡식 떠는 소(shor), 신발 한 짝, 침, 주머니 속 두 추(even), 집 안의 두 되(eyphah).
- "성문"과 "장로들"이 공적 무대로 등장(계대결혼 거절의 처리 자리).
- 마지막 컷만 광야(애굽에서 나오던 길)로 시체가 뒤로 물러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짧은 규례가 툭툭 끊겨 이어지는 일상의 구석들. 참가자 다수가 "한도/경계가 자꾸 그어진다"는 인상을 공유함.
- 17절부터 톤이 바뀌어 "아말렉을 기억하라"의 무거운 회상으로 닫힌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 옳은 자(tsaddiq)와 악한 자(rasha)를 가리는 법정으로 시작.
- 19절: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 한 민족을 향한 기억으로 닫힘.
- 1-16절(규례) → 17-19절(회상)으로 결이 꺾인다. 작은 시비에서 큰 기억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 재판관, 매 맞는 자(형제로 불림), 죽은 형제와 미망인, 살아 있는 형제(yabam), 성문의 장로들, 싸우는 두 남자와 한 여인, 아말렉.
- 짐승 — 곡식 떠는 소(4절)가 인물처럼 규례 사이에 끼어 먹을 몫을 받음.
- 매질의 동기절: "네 형제(ach)가 네 눈앞에서 천히(qalah) 여겨질까 하노라"(3절).
- 계대결혼(5-10절): 거부하면 미망인이 성문에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음 → 그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림.
- 11-12절: 싸움에 끼어든 여인의 행위에 손을 자르는 규례. 본문이 짧고 단호.
- 13-16절: "온전하고 공정한(tsedeq) 추와 되"를 두라. 속이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법정 — 태형의 한도(사십까지), 형제가 천해지지 않게
- 컷 2 (4절): 타작마당 —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 컷 3 (5-10절): 집안·성문 — 계대결혼과 신 벗기는 의식
- 컷 4 (11-12절): 싸움터 — 손을 자르는 규례
- 컷 5 (13-16절): 시장 — 정직한 추와 되
- 컷 6 (17-19절): 광야의 기억 — 아말렉을 기억하라·지워버리라·잊지 말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arbaim(3, אַרְבַּיִם절) — 사십. 본문은 "사십까지"의 상한만 정함.
- qalah(3, קָלָה절) — 가볍게/천하게 되다. 매질 한도의 동기절 핵심어.
- chasam(4, חָסַם절) — 입에 망을 씌우다. shor(소)의 입을 막지 말라.
- yibbum/yabam — 계대결혼/대를 잇는 형제(5-10절). 신 벗기는 의식은 chalitsah 계열.
- even(עֵבֶן, 추)/eyphah(עֵפָה, 되) — 13-15절. "크고 작은 두 종류"를 금함.
- tsedeq(צֶדֶק) — 공정한/온전한. 추·되에 두 번 붙음.
- zakhor(זָכַר, 부정 "lo tishkach"/잊지 말라, 19절) — 단락을 감싸는 기억 명령.
- machah(מָחָה, 지워버리다. "잊지 말라"와 한 절에 맞붙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규례 모음(1-16절)이 "이렇게 하라/하지 말라"의 결의법·정언법 혼합으로 짧게 이어짐.
- 여러 규례에 동기절이 붙음: 매질("형제가 천해지지 않게"), 추·되("여호와께 가증하다").
- 17-19절은 zakhor(기억하라)~lo tishkach(잊지 말라)의 봉투 구조(inclusio)로 닫힘.
- 약자 보호의 결이 24장(고아·과부·나그네)에서 이어져 25장(매 맞는 형제·일하는 소·뒤쳐진 약자)으로 흐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법전 중 태형 횡수에 상한을 둔 조항은 드물. 본문의 40대 상한 + "천히 여김 방지" 동기절이 특징으로 관찰됨.
- 계대결혼(레비레이트)은 ANE 여러 사회에 보고된 관습. 룯 4장·창 38장이 같은 결의 실제 장면.
- 두 종류의 추·되 금지는 고대 근동 상거래 윤리와 맞닿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5 ↔ 신 24:17-22 (약자 보호 율법의 연속)
- 신 25:5-10 ↔ 룯 4:1-12 (계대결혼·신 벗기 의식의 실제 사례)
- 신 25:5-10 ↔ 창 38장 (유다·다말, 계대결혼 배경)
- 신 25:13-16 ↔ 레 19:35-36 / 잠 11:1, 20:10 (정직한 저울)
- 신 25:4 ↔ 고전 9:9 / 딤페전 5:18 (곡식 떠는 소 인용)
- 신 25:17-19 ↔ 출 17:8-16 (아말렉과의 첫 전투) / 삼상 15장 (진멸 명령)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매에는 형제가 천해지지 않을 한도가 놓인다. 타작마당의 소에게도 먹을 몫이 보장된다. 한 집안에서는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일이 다뤄지고, 거절은 성문에서 공적으로 표시된다. 싸움터의 거친 규례, 시장의 정직한 추와 되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시제가 광야로 물러나 "뒤쳐진 약한 자를 친아말렉을 기억하라"로 닫힌다. 작은 자리마다 약자·짐승·형제가 셈에 들고, 옳고 그름을 다는 결이 한 기억으로 봉인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법정에서 광야까지 — 여섯 자리의 규례**"
- 초벌 부제: "매에도 소에게도 저울에도, 한도를 두시는 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ANE 태형 상한·계대결혼 + 문학 봉투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절 소 규례의 신약 인용(고전 9:9 등)은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본문은 짐승을 말한다는 선까지만.
- 11-12절·19절(진멸)을 윤리·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의 표면 진술만 기록.
- "지워버리라/잊지 말라"의 긴장은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5장은 일상의 여섯 자리(법정·타작마당·집안·싸움터·시장·광야의 기억)마다 한도와 셈을 놓아, 매 맞는 형제와 일하는 소와 뒤쳐진 약자까지 셈에 두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작은 시비를 가리는 법정으로 열린다. 그러나 벌에조차 "사십까지"라는 상한과 "형제가 천해 지지 않게"라는 동기절이 붙는다. 타작마당의 소에게는 먹을 몫이, 죽은 자에게는 이름을 잇는 길이, 시장에는 정직한 추와 되가 놓인다. 짧은 규례들이 툭툭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시제가 광야로 물러나 "뒤쳐진 약한 자를 친 아말렉을 기억하라"로 닫힌다. 옳고 그름을 다는 일과 약자를 셈하는 일이 한 장 안에서 맞물린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여섯 자리 — 법정·타작마당·집안과 성문·싸움터·시장·광야의 기억. 소품 — 매·소·신발·침·두 추·두 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짧은 규례가 끊겨 이어지며 "한도/경계"가 자꾸 그어짐. 17절부터 무거운 회상으로 톤이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사람 사이 시비를 가리는 법정(1절). 끝 —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잊지 말라"(19절). 작은 시비→큰 기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재판관·매 맞는 형제·미망인·살아 있는 형제·장로들·아말렉, 그리고 일하는 소. 별받는 자도 "형제"(ach)로 불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법정(1~3). 컷 2 소(4). 컷 3 계대결혼(5~10). 컷 4 싸움(11~12). 컷 5 저울(13~16). 컷 6 아말렉 기억(17~1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매질 동기절의 까닭. 소 규례의 배치. 정보 — zakhor(17)~lo tishkach(19) 봉투 구조, machah(지움)와 기억의 맞붙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법정→타작마당→집안→싸움터→시장→광야 기억의 흐름. 자리마다 약자·짐승·형제가 셈에 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법정에서 광야까지". 초벌 부제 — "매에도 소에게도 저울에도, 한도를 두시는 결".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여러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뒤쳐진 약한 자를 셈에 두시는 결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벌에도 한도:** 매질에 "사십까지"의 상한과 "형제가 천히 여겨질까"의 동기절이 함께 놓인다. 벌의 목적이 형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음을 본문이 표면에 적는다.
- 결 2 — 셈에 드는 약자와 짐승:** 일하는 소(4절)와 뒤쳐진 약자(18절)가 사람 규례들 사이에 함께 셈된다. 작은 자리마다 몫이 보장된다.
- 결 3 — 기억의 봉투:** 17절 zakhor(기억하라)와 19절 lo tishkach(잊지 말라)가 마지막 단락을 감싼다. "지워버리라"와 "잊지 말라"가 한 짝에 맞붙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24:17-22 (약자 보호 율법의 직전 연속). 신 27장 (저주의 "아멘"으로 이 규례들이 언약 의식으로 묶임).
- 다른 권 — 룻 4:1-12 (계대결혼·신 벗기 의식의 실제 사례). 창 38장 (유다·다말). 고전 9:9 (곡식 떠는 소의 확대 인용). 출 17:8-16 / 삼상 15장 (아말렉).
- 정경 흐름 — 율법의 마무리 단락이 작은 규례에서 한 민족의 기억으로 넓어지며, 다음 26~30장의 언약 의식·갱신·선택 권고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법정의 작은 시비 앞에서 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셈하기 시작한다.
- 멈춤 1: 벌받는 자에게도 "형제"라 부르며 한도를 두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한 줄에서 멈춘다.
- 멈춤 3: "뒤쳐진 약한 자를 친 것을 기억하라"는 마지막 회상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작은 자리마다 셈이 있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약자와 짐승까지 셈하시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무대가 여섯 자리로 옮겨 다닌다
- [x] 벌에도 상한과 동기절이 붙는다
- [x] 일하는 소에게 먹을 몫이 보장된다
- [x] 정직한 추와 되가 명령된다
- [x] 벌받는 자도 "형제"로 불린다
- [x] 마지막에 시제가 광야로 물러난다
- [x] zakhor~lo tishkach가 단락을 감싼다
- [x] 약자를 친 것이 기억의 이유로 적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셈.

미해결 질문

신명기 2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굽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매질에 "사십까지"의 상한을 두고 "형제가 천해지지 않게"를 동기로 단 까닭은?

- 관찰 사실: 벌의 규례에 사람을 보호하는 동기절이 붙음(3절).
- 본문은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곡식 떠는 소 규례(4절)가 사람 규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까닭은?

- 법정·집안·시장의 규례 사이에 짐승 한 줄이 놓임.
- 본문은 배치의 이유를 말하지 않음. 신약의 확대 인용은 교차 참조로만 표시.

Q3. 계대결혼 거절에 신 벗기고 침 뱉는 공적 표시가 따르는 까닭은?

-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이름이 집에 붙음(10절).
- 그 표시의 무게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4. 11-12절의 단호한 규례(손을 자름)는 왜 이 자리에 놓이는가?

- 짧고 강한 한 절이 여러 규례 사이에 끼어 있음.
- 본문은 정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5. "지워버리라"(machah)와 "잊지 말라"(lo tishkach)가 한 절에 같이 놓인 의미는?

- 지우는 명령과 기억하는 명령이 19절에 맞붙음.
- 두 동사의 긴장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아말렉을 기억하는 이유가 "약한 자를 쳤다"인 까닭은?

- 18절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것을 기억의 이유로 적음.
- 강한 군대가 아닌 약자를 섬하는 시선의 방향이 질문으로 남음.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6장

DEU-026 · 오경 · 히브리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고백한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받은 자가 그 받음의 내력을 소리내어 외운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의 제단 앞(1-15절), 그리고 온 백성이 서는 언약의 자리(16-19절).
- 소품 — 광주리(tene), 첫 열매(bikkurim), 땅의 소산, 삼 년째 십일조(maaser).
- "젓과 꿀이 흐르는 땅"(eret zavat chalav udvash)이 9·15절에 두 번. 출 3장의 약속이 이뤄진 자리에서 재낭송.
- 직전 율법들(십일조 14장, 약자 보호 24-25장)이 배경으로 깔려 "고백"으로 매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손에 광주리를 들고 나아가 입을 열어 옛 내력을 외우는 결. 참가자 다수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의 인상을 공유함.
- 16절부터 행렬이 두 편의 "오늘" 선언으로 톤이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하여 거주할 때에" — 받은 자리에서 시작.
- 19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 신분으로 닫힘.
- 1-15절(제단 앞 고백) → 16-19절(언약 선언)으로 결이 둘. natan(주다)이 1·19절 양쪽에 걸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 첫 열매 드리는 자(일인칭 "나"), 제사장, 고백 속 "내 조상"(아람 사람), 레위인·나그네·고아·과부, 그리고 16-18절의 여호와와 백성 두 편.
- 5-9절 고백의 동사 연쇄: yarad(내려감)→gur(거류)→anah(압제당함)→tsaaq(부르짖음)→shama(들으심)→yad chazaqah(강한 손).
- 받은 자가 겪지 않은 옛일을 "우리를 괴롭혔다/우리가 부르짖었다"로 일인칭으로 외움.
- 12-15절 십일조 고백: 거룩한 것(qodesh)을 떼어 약자에게 줌 +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의 자기 진술.
- 16-18절: he'emarta(백성이 인정)/he'emirkha(여호와가 인정) — 같은 어근의 마주 선 두 동사. "보배로운 백성"(am segullah).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 나아감

- 컷 2 (5-10절):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의 고백, 광주리를 내려놓음
- 컷 3 (11절): 레위인·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함
- 컷 4 (12-15절): 삼 년째 십일조 고백
- 컷 5 (16-19절): 두 편의 "오늘" 언약 선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bikkurim(בִּכּוּרִים) — 첫 열매. tene(טֵנֶה) — 광주리.
- Arami oved avi(5, אָרָמִי אוֹבֵד אָבִי 절) — "내 조상은 유리하는/멸망할 뻔한 아람 사람". oved의 다의성, 70 인역은 다른 방향.
- anah(6, אָנָה 절) — 괴롭히다/낮추다. 신명기 여러 곳의 "압제" 어근.
- tsaq(7, צָעַק 절) — 부르짖다. shama(שָׁמָע) — 들으시다.
- yad chazaqah(יָד חֲזָקָה) — 강한 손. 출애굽의 표지.
- maaser(מַעֲשֵׂר) — 십일조. qodesh(קֹדֶשׁ) — 거룩한 것.
- am segullah(אִם סְגוּלָה 절) — 보배로운/특별한 소유의 백성.
- he'emir 어근(17-18절) — "인정/선언하다"가 백성→여호와, 여호와→백성 두 방향으로 쓰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두 개의 전례적 고백(낭송)이 짝을 이룸: 첫 열매 고백(5-10절)과 십일조 고백(13-15절).
- 5-9절은 역사 신경(historical creed) 형식 — 압제→부르짖음→들으심→인도→땅의 한 줄 회고.
- 16-19절은 언약 공식 — "오늘(ha-yom)"의 반복과 마주 선 두 인정.
- 받은 자의 일인칭 낭송이 옛 사건을 현재의 자기 고백으로 가져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ANE·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첫 소산 봉헌은 고대 농경 사회의 추수 관행과 닿음. 본문은 그것에 "역사 고백"을 결합한 점이 특징으로 관찰됨.
- 5절의 "아람"은 야곱이 거류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결될 수 있으나, 본문은 출처를 길게 설명하지 않음.
- 유월절 하가다가 26:5-9을 핵심으로 인용하는 것은 후대 전례 전통(해석 영역).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6 ↔ 신 6:20-25 (자녀에게 들려주는 내력 고백)
- 신 26:5-9 ↔ 출 3:7-8 (고통을 보시고 들으심·강한 손) / 수 24:2-13 (역사 회고)
- 신 26:1-4 ↔ 레 23:9-14 (첫 이삭 단)
- 신 26:12-15 ↔ 신 14:28-29 (삼 년째 십일조와 약자)
- 신 26:18-19 ↔ 출 19:5-6 (보배로운 백성·제사장 나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만들기

한 사람이 땅의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 두면, 그가 입을 열어 옛 내력을 외운다 — 유리하던 조상, 애굽의 압제, 부르짖음, 들으심, 강한 손의 인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주리를 내려놓고 레위인·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한다. 삼 년째 십일조의 자리에서 거룩한 것을 약

자에게 떼어 주고 다시 결백을 아뢰다. 마지막에 장면이 온 백성으로 넓어져, "오늘" 두 편이 서로를 향해 선다 —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 초벌 부제: "광주리와 입술로 드리는, 받음의 내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역사 신경 + 언약 공식 + 첫 소산 봉헌)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절 oved의 다의성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보존.
- 14절의 세 부인(초상·부정·죽은 자)을 당시 관습으로 단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남김.
- 16-19절 언약 공식을 신학 프레임으로 확장하지 않고, 마주 선 두 동사의 어휘 분포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6장은 받은 자가 첫 소산을 손에 들고 그 받음의 내력을 입으로 외우다가, 마지막에 두 편이 "오늘" 서로를 향해 서는 고백과 선언의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땅에 들어가 받은 자리에서 열린다. 한 사람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단 앞으로 나아가 입을 연다 —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의 압제 속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해 이 땅을 주셨다." 겪지 않은 옛일을 일인칭으로 외우는 낭송이다. 삼 년째 십일조의 자리에서

거룩한 것을 약자에게 떼어 주고 다시 결백을 아뢰다. 그리고 장면이 온 백성으로 넓어져, "오늘" 백성과 여호와와 같은 어근으로 서로를 인정한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제단 앞(택하신 곳)과 온 백성의 언약 자리. 소품 — 광주리(tene)·첫 열매 (bikkurim)·십일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2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손에 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옛 내력을 외우는 결. 16절부터 "오늘"의 선언으로 톤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주시는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때"(1절). 끝 —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19절). 받음→신분. natan이 양쪽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일인칭 "나"·제사장·"내 조상"·레위인·약자, 그리고 두 편(백성·여호와). 5-9절 동사 연쇄: 내려감→압제→부르짖음→들으심→인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봉헌(1~4). 컷 2 역사 고백(5~10). 컷 3 즐거워함(11). 컷 4 십일조 고백(12~15). 컷 5 언약 선언(16~1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일인칭 낭송의 까닭. oved의 다의성. 정보 — tsaaq→shama의 부르짖음·들으심, "오늘"의 반복, 마주 선 두 인정.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광주리→입으로 외운 내력→즐거워함→십일조 고백→"오늘"의 마주 선 선언의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 초벌 부제 — "광주리와 입술로 드리는, 받음의 내력".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제단 앞 광주리의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받은 것의 내력을 제 입으로 외우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손과 입의 짝:** 첫 열매를 손에 들고(소품), 그 받음의 내력을 입으로 외운다(낭송). 드림과 고백이 한 동작으로 묶인다.
- 결 2 — 일인칭의 내력:** 겪지 않은 옛일을 "우리를 괴롭혔다·우리가 부르짖었다"로 자기 입에 담는다. 부르짖음(tsaaq)과 들으심(shama)이 자기 고백의 줄이 된다.
- 결 3 — "오늘"의 마주 섬:** 16-18절에 ha-yom(오늘)이 몰리고, 백성과 여호와와 같은 어근으로 서로를 인정한다. 옛 회고가 현재의 선언으로 닫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6:20-25 (자녀에게 들려주는 같은 결의 내력). 신 14:28-29 (삼 년째 십일조와 약자). 신 27-30장 (언약 의식·갱신·선택으로 이어짐).
- 다른 권 — 출 3:7-8 (고통을 보시고 들으심). 수 24:2-13 (역사 회고). 출 19:5-6 (보배로운 백성).
- 정경 흐름 — 율법의 본문(12-26장)이 "고백"으로 매듭되며, 다음 장(27장)의 예발 산 돌·제단·저주 의식으로 언약이 의식화된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받은 땅의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을 자기 입으로 외우는 순간 멈춘다.
- **멈춤 2:** 거룩한 것을 약자에게 떼어 주고 결백을 아뢰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오늘" 두 편이 서로를 향해 서는 선언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받음에는 외울 내력이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받은 것의 내력을 입에 담은*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첫 열매를 손에 들고 나아간다
- [x] 받은 자가 옛 내력을 일인칭으로 외운다
- [x] 부르짖음과 들으심이 고백의 줄이 된다
- [x] 십일조를 약자에게 떼어 주고 아뢰다
- [x] 두 고백이 짝을 이룬다
- [x] "오늘"이 후반에 몰린다
- [x] 백성과 여호와가 같은 어근으로 서로를 인정한다
- [x] 받음에서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달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고백.

미해결 질문

신명기 2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받은 자가 겪지 않은 옛일을 "내 조상"."우리"로 일인칭으로 외우는 까닭은?

- 관찰 사실: 5-9절이 개인의 낭송인데도 민족의 역사를 자기 입에 담음.
- 본문은 그 까닭을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5절)의 정확한 뜻은?

- oved가 '유리하는'과 '멸망할 뻔한'의 두 결을 다 품음. 70인역은 또 다른 방향.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의 다의성을 보존.

Q3. 십일조 고백에서 자기 결백을 입으로 아뢰는(13-14절) 결은 무엇인가?

-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의 일인칭 진술.

- 그 자기 진술의 결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4. 14절의 세 부인(초상 중·부정 중·죽은 자를 위함)은 왜 이 세 가지인가?

- 본문이 세 가지를 꼭 집어 부인하나 배경을 주지 않음.
- 당시 관습과의 연결은 추정이므로 보류. 답하지 않고 보존.

Q5. 16-18절에 "오늘"(ha-yom)이 몰려 반복되는 까닭은?

- 옛 고백 끝에 현재 시점의 "오늘"이 뻑뻑이 놓임.
- 과거 회고와 현재 선언의 맞물림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백성과 여호와가 같은 어근으로 서로를 "인정"하는(17-18절) 마주 선 선언의 결은?

- he'emarta(백성)/he'emirkha(여호와)의 두 방향 동사.
- 두 편의 마주 섬은 관찰까지. 언약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7장

DEU-027 · 오경 · 히브리어

에발 산에 큰 돌을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 레위인이 저주를 외치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받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그리심 산(Gerizim)과 에발 산(Eval) 사이의 골짜기. 한 산은 복, 한 산은 저주를 위한 자리.
- 소품 — 큰 돌(avanim gedolot)에 석회(sid)를 발라 올법 기록, 다듬지 않은 통돌(avanim shlemot)로 쌓은 제단(mizbeach), 철 연장(barzel) 금지, 번제(olot)·화목제(shelamim).
- 열두 지파가 여섯·여섯으로 두 산에 나뉘어 섬(12-13절).
- 본문 전송: 마소라(에발) ↔ 사마리아 오경(그리심)의 4절 차이가 보고됨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의식의 동선을 세우는 지시로 열리고, 후반은 "저주받을지로다 ... 아멘"의 메아리로 묵직해짐.
- 참가자 다수가 "복을 외칠 산과 저주를 외칠 산을 나뉘는데 글로 남은 건 저주뿐"이라는 서늘함을 공유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명령을 다 지키지니라" — 긍정 명령으로 시작.
-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 아멘" — 부정 경고로 닫힘.
- 1-8절(돌·제단) → 9-10절(신분 선언) → 11-26절(두 산 의식·열두 저주)의 세 결.
- 26절만 개별 죄가 아닌 "율법 전체"를 감싸는 봉투. 갈 3:10이 70인역 형태로 인용.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 모세·장로들·제사장 레위 사람들, 열두 지파, 외치는 레위인, 응답하는 "온 백성".
- 외침과 응답의 짝: 레위인이 "qol ram"(높은 소리)으로 외치고, 온 백성이 "amen"으로 받음(열두 번).
- amen은 '굳건하다·진실하다' 어근 — "그렇게 되기를/참이다"의 동의.
- 저주 목록(15-26절): 우상·부모·경계표·맹인·약자(나그네·고아·과부)·여러 근친·짐승·은밀한 살해·뇌물과 무죄한 피 + 율법 전체.
- "은밀히"(seter)가 반복(15·24절) —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을 짚음.
- 9-10절: "오늘 네가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 선언이 의식 한가운데 박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
- 컷 2 (5-8절): 에발 산에 다듬지 않은 돌 제단, 번제·화목제·즐거워함

- 컷 3 (9-10절): "오늘 네가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
- 컷 4 (11-13절): 여섯 지파 그리심(복) / 여섯 지파 에발(저주)
- 컷 5 (14-26절): 레위인의 열두 저주와 온 백성의 "아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Gerizim(גרִיזִים)/Eval(עֵבָל) — 복과 저주의 두 산.
- avanim gedolot(אֲבָנִים גְּדוֹלוֹת) — 큰 돌. sid(סִיד) — 석회.
- avanim shlemot(אֲבָנִים שְׁלֵמוֹת, 6절) — 온전한/다듬지 않은 통돌. barzel(בַּרְזֵל) — 철(연장).
- olot(עֹלוֹת) 번제 / shelamim(שְׁלָמִים) 화목제.
- arur(אָרַר) — 저주받을지로다. 12번 반복.
- amen(אָמֵן) — 아멘. '굳건/진실' 어근. 12번 응답.
- qol ram(קוֹל רָם, 14절) — 높은 소리.
- seter(סֶטֶר, 24·15절) — 은밀한 곳/숨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의식 대본(ceremony script) 형식 — 동선·배치·낭송 순서가 차례로 적힘.
- 교창(antiphonal) 구조 — 레위인 외침 ↔ 온 백성 "아멘"의 부름·응답.
- 열둘(dodecad)의 반복 — arur~amen이 12번 떨어짐.
- 26절이 앞 열한 저주를 감싸는 봉투(전체화) — 개별 죄 → 율법 전체.
- 복(그리심)과 저주(에발)의 쌍이 세워지나, 본문에 글로 남은 항목은 저주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다듬지 않은 돌·철 연장 금지는 출 20:24-25 제단 규례와 같은 결.
- 그리심·에발은 가나안 중부 세겔 인근의 마주 보는 두 산으로 알려짐(지리 배경).
- 여호수아 8:30-35이 이 명령을 실제로 실행한 장면으로 보고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7 ↔ 수 8:30-35 (에발 산 의식의 실행)
- 신 27:5-6 ↔ 출 20:24-25 (다듬지 않은 돌 제단)
- 신 27 ↔ 신 11:26-32 (그리심·에발 복·저주 예고) / 신 28장 (복·저주 상술)
- 신 27:26 ↔ 갈 3:10-13 ("율법의 저주" 인용)
- 신 27:9-10 ↔ 신 26:16-19 (직전 언약 선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강을 건너 백성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을 기록한다. 에발 산에 다듬지 않은 통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화목제를 드리며 둘러앉아 먹고 즐거워한다. 그 가운데 "오늘 네가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 울린다. 백성은 두 산으로 나뉘어 마주 서고, 골짜기 가운데서 레위인이 높은 소리로 저주를 외친다. 우상·부모·경계표·맹인·약자·근친·은밀한 살해·뇌물... 열한 번이 외쳐지고 열한 "아멘"이 골짜기를 채운다. 마지막에 "율법을 다 실행하지 않는 자"의 저주가 전체를 감싸고, 열두 번째 아멘이 의식을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두 산 사이에 세우는 언약"
- 초벌 부제: "돌과 아멘으로 새기는, 두 산 사이의 의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그리심·에발 지리 + 의식 대본·교창 구조 + 수 8장 실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절 마소라/사마리아 전승 차이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배경으로만 기록.
- 26절의 갈 3:10 인용은 신약의 읽기이므로 교차 참조 노트로만 표시. 본문은 의식의 "아멘"으로 닫힘.
- 저주 목록의 죄들을 도덕·윤리 프레임으로 단정하지 않고, "은밀히"의 어휘 반복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7장은 두 산 사이에 돌과 제단을 세우고, 레위인의 외침과 온 백성의 "아멘"이 열두 번 오가며 언약을 의식으로 새기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강을 건너 백성이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통돌로 제단을 쌓는 데서 열린다. 그 가운데 "오늘 네가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 박힌다. 백성은 그리심·에발 두 산으로 나뉘어 마주 서고, 골짜기 가운데서 레위인이 높은 소리로 저주를 외친다. 우상·부모·경계표·맹인·약자·근친·은밀한 살해·뇌물이 차례로 불리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받는다. 마지막에 "율법을 다 실행하지 않는 자"의 저주가 전체를 감싸며 열두 번째 아멘으로 닫힌다. 복과 저주의 쌍이 세워졌으며, 본문에 글로 남은 항목은 저주뿐이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그리심·에발 두 산. 소품 — 석회 바른 큰 돌(율법 기록),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철 연장 금지, 번제·화목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의식의 동선을 세우는 지시로 열려 "저주 ... 아멘"의 메아리로 목직해짐. 글로 남은 건 저주뿐인 서늘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1절). 끝 —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 아멘"(26절). 긍정 명령→부정 경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제사장·레위인·열두 지파·온 백성. 외침(qol ram)과 "아멘"(amen)의 교창. "은밀히"(seter) 반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돌·율법(1~4). 컷 2 제단·제사(5~8). 컷 3 신분 선언(9~10). 컷 4 두 산 배치(11~13). 컷 5 열두 저주·아멘(14~26).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복이 글로 비어 있음. 다듬지 않은 돌의 까닭. 정보 — arur~amen 열두 박자, 26절의 전체화, 약자(19절)가 저주 항목에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돌·율법→제단·제사→신분 선언→두 산 배치→외침과 아멘의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두 산 사이에 세우는 언약". 초벌 부제 — "돌과 아멘으로 새기는, 두 산 사이의 의식".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두 산 사이 골짜기에서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은밀한 곳까지 그 소리가 닿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외침과 아멘:** 레위인의 높은 소리(qol ram)와 온 백성의 "아멘"(amen)이 열두 번 짝지어 떨어진다. 부름과 응답이 의식의 골격이다.
- 결 2 — 비어 있는 복:** 복(그리심)과 저주(에발)가 둘 다 세워지나, 본문에 글로 남은 항목은 저주뿐이다. 본문이 답하지 않는 빈자리다.
- 결 3 — 은밀에서 전체로:** 저주가 "은밀히"(seter) 하는 일을 짚다가, 26절에서 "율법 전체를 실행하지 않는 자"로 감싼다. 숨은 한 가지에서 전부로 넓어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1:26-32 (그리심·에발 복·저주 예고). 신 28장 (복과 저주의 상술로 이어짐). 신 26:16-19 (직전 언약 선언).
- 다른 권 — 수 8:30-35 (에발 산 의식의 실제 실행). 출 20:24-25 (다듬지 않은 돌 제단). 갈 3:10-13 (27:26 인용).
- 정경 흐름 — 26장의 "고백"이 27장에서 "의식"으로 새겨지고, 28장의 복·저주 상술, 29~30장의 언약 갱신·선택으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율법을 새긴 돌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다듬지 않은 통들로 쌓은 제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은밀히 하는 자"를 부르는 저주에서 멈춘다.
- **멈춤 3:** "율법을 다 실행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저주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자기 입이 "아멘"으로 받은 것*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은밀한 곳까지 부르는 소리*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한다
- [x]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
- [x] 두 산으로 지파가 나뉘어 선다
- [x] 외침은 레위인, 응답은 온 백성
- [x] "아멘"이 열두 번 반복된다
- [x] 복은 글로 비어 있고 저주만 적힌다
- [x] "은밀히"가 반복된다
- [x] 마지막 저주가 율법 전체를 감싼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아멘.

미해결 질문

신명기 2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복(그리십)과 저주(에발)를 둘 다 세웠는데 글로 남은 건 저주뿐인 까닭은?

- 관찰 사실: 12-13절은 둘을 말하나 14-26절은 저주만 열거됨.
- 본문은 복의 항목을 글로 남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목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제단을 다듬지 않은 통돌로, 철 연장 없이 쌓으라는 까닭은?

- 출 20:25와 같은 걸이나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음.
- 그 명령의 까닭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저주 항목에 "은밀히"(seter)가 반복되는 까닭은?

- 15절(은밀한 우상)·24절(은밀히 침)에 같은 어근.
-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짚는 걸은 관찰까지. 의미는 목상으로 이월.

Q4. 마지막 26절만 개별 죄가 아닌 "율법 전체"를 감싸는 까닭은?

- 앞 열한 저주는 구체적 죄, 26절은 전체화.
- 개별에서 전체로 넓어지는 결은 관찰까지. 갈 3:10 인용은 교차 참조로만.

Q5. 의식 한가운데(9-10절)에 신분 선언이 박힌 까닭은?

- "오늘 내가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가 돌·제단과 저주 사이에 놓임.
- 의식 안의 선언 위치는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외침은 레위인, 응답("아멘")은 온 백성으로 나뉜 까닭은?

- 한쪽이 외치고 온 백성이 받는 교창 구조.
- 외침과 응답의 나뉘는 관찰까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8장

DEU-028 · 오경 · 히브리어

순종에 복이, 불순종에 저주가 점층한다. 가장 긴 장에서 저주가 복보다 길게 쌓이며 출애굽이 거꾸로 돌아간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2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삶 전체. 성읍(ir)과 들(sadeh), 태·가축·토지, 광주리(tene)와 반죽 그릇(mishneret).
- 소재 — 곡식·포도주·기름, 비, 종기·열병(shiddafon·yeraqon), 메뚜기, 칼, 포위된 성, 명예·사슬.
- "애굽의 질병"이 27·60절에 되돌아오고, 68절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 — 출애굽의 역전.
- 직전 27장(에발 산 저주 의식)의 내용을 길게 펼치는 자리. 레 26장이 짝되는 복·저주 단락(교차 참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복은 짧고(1-14절) 저주는 길다(15-68절). 분량의 비대칭이 첫인상.
- 저주가 한 계단씩 점층하며 끝에서 "애굽으로 거꾸로 돌아감"으로 서늘하게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삼가 듣고 또 들으면(shamoa tishma)" — 순종을 조건으로 복이 시작.
- 68절: "배에 싣고 ...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리니 ... 사려는 자가 없으리라" — 출애굽의 역전으로 닫힘.
- 1-14절(복) / 15-68절(저주)의 두 결. 저주 안이 또 점층(일상→포위→역전).
- "애굽"이 27·60·68절에 박혀 시작(출애굽한 백성)과 끝(애굽으로 회귀)이 마주 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주어는 단수 "너"(백성)와 여호와. 저주 단락에 멀리서 오는 "한 민족"(49절), 포위하는 적.
- 복(3-6절)과 저주(16-19절)가 같은 항목 위의 거울: 성읍·들·광주리·반죽·들어옴·나감.
- baruch(복) 6회, arur(저주) 6회 병행. 27장의 arur ... amen과 이어짐.
- 점층: 가뭄·질병(20-24) → 패배·곤궁(25-46) → 포위·기근(47-57) → 질병 회귀·감소(58-63) → 흠어짐·역전(64-68).
- 47절: "풍부할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이 저주의 이유로 적힘(태도의 결핍).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조건 — "삼가 들으면"
- 컷 2 (3-14절): 복의 목록 — 성읍·들·태·소산,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됨
- 컷 3 (15-19절): 거울 저주의 시작
- 컷 4 (20-46절): 일상의 재앙 — 질병·가뭄·패배·소산 빼앗김

- 컷 5 (47-57절): 포위 — 멀리서 온 민족, 양식 끊김
- 컷 6 (58-63절): 애굽의 질병 회귀, 수가 줄어들
- 컷 7 (64-68절): 흠여짐·떨리는 마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shamoah tishma(1, תִּשְׂמָה וְתִשְׂמָה) — 부정사 강조형, "듣고 또 들으면".
- baruch(בָּרַךְ) — 복을 받을 것이요. 6회. arur(אָרַר) — 저주를 받을 것이요. 6회.
- ba-ir/ba-sadeh(בְּעֵיר / בְּשָׂדֵה) — 성읍에서/들에서. 복·저주 양쪽에 쌍으로.
- tene(טֵנֶה) 광주리 / mishneret(מִשְׁנֵרֶת) 반죽 그릇.
- shiddafon(שִׁדְדָפוֹן) 곡식 마름 / yeraqon(יֵרָקוֹן) 곰팡이·황달(22절).
- mashal(מָשַׁל) 속담 / sheninah(שֵׁנִינָה) 이야깃거리(37절).
- boqer/erev(בֹּקֶר / עֶרֶב) — 아침/저녁의 역전.
- Mitsraim(מִצְרַיִם) — 애굽. 출애굽의 역전 표지.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복·저주 목록 형식 — 같은 항목 위의 거울 병행(3-6절 ↔ 16-19절).
- 아나포라(anaphora) — baruch/arur의 절두 반복.
- 점층(climax) — 저주가 일상→포위→유배→역전으로 깊어짐.
- 역전(reversal) — 출애굽이 거꾸로(애굽의 질병 회귀, 애굽으로 회귀), 시간(아침↔저녁)의 역전.
- 복(11절)과 저주(54절)의 비대칭 — 거울이되 분량이 약 다섯 배.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조약문의 "축복과 저주" 결말 형식과 닮은 결로 알려짐(배경 자료로만).
- 레 26장이 같은 복·저주 단락. 토라 안의 두 큰 책망 단락으로 묶임.
- 후대 회당 전통에서 저주 단락을 낮은 소리로 빨리 낭독한 관습(전례 영역, 주입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8 ↔ 레 26장 (복·저주 병행 단락)
- 신 28 ↔ 신 27장 (직전 예발 산 저주 의식)
- 신 28 ↔ 신 30:1-10 (저주 이후 회복의 약속)
- 신 28:12 ↔ 신 11:13-17 (이른 비·늦은 비의 복)
- 신 28 ↔ 단 9장 / 느 9장 (이 저주의 성취를 인정하는 기도)
- 신 28:68 ↔ 출 1-15장 (역전되는 출애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삼가 듣고 또 들으면"의 조건 위에 복이 임한다 — 성읍·들·태·소산·들어옴·나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음. 그러나 같은 틀이 거꾸로 돌아 같은 자리마다 저주가 떨어진다. 거기서부터 한 계단씩 내려간다. 가뭄과 질병, 적에게의 패배, 빼앗기는 소산. 멀리서 독수리 같은 민족이 날아와 성을 에워싸고 양식이 끊긴다. 애굽

의 질병이 되돌아오고 수가 줄며, 끝내 만민 중에 흩어져 어느 때에도 쉴 곳이 없다. 마지막에 배에 실려, 나왔던 그 길로, 애굽으로 거꾸로 돌아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같은 자리, 반대의 거울"
- 초벌 부제: "순종 위의 복과, 거꾸로 돌아가는 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복·저주 목록 구조 + 출애굽 역전 + 레 26 병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저주(15-68절)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점층의 구조·방향(역전)과 분량의 비대칭만 관찰로 기록.
- 죄와 벌의 인과를 도덕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47절 등 본문의 표면 진술만 남김.
- 레 26장·역사서(단 9·느 9)의 성취 읽기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8장은 순종 위의 짧은 복과 불순종 위의 긴 저주를 같은 자리의 거울로 세우되, 저주가 한 계단씩 점층하여 끝내 출애굽이 거꾸로 도는 역전으로 닫히는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삼가 듣고 또 들으면"의 조건 위에 복을 쌓는다 — 성읍·들·태·소산·들어옴·나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음. 그러나 같은 틀이 거꾸로 돌아 같은 자리마다 저주가 떨어진다. 거기서부터 가뭄·질병, 패배, 포위와 기근으로 한 계단씩 내려가고, 애굽의 질병이 되돌아오며 수가 줄어든다. 끝내 만민 중에 흩어

저 어느 때에도 쉴 곳이 없고, 배에 실려 나왔던 길로 애굽으로 거꾸로 돌아간다. 복은 짧고 저주는 길다. 거울은 비대칭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삶 전체가 무대 — 성읍·들·태·가축·광주리·반죽 그릇. 소재 — 비·질병·메뚜기·칼·포위된 성. "애굽의 질병" 회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복은 짧고 저주는 길다. 한 계단씩 점층하며 "애굽으로 거꾸로 돌아감"으로 서늘하게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삼가 듣고 또 들으면"(1절). 끝 — "애굽으로 돌려보내시리니 … 사려는 자가 없으리라"(68절). 순종의 복→출애굽의 역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단수 "너"와 여호와, 멀리서 온 민족. baruch 6회·arur 6회의 거울. 47절 "풍부할 때 기쁨으로 섬기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조건(1~2). 컷 2 복(3~14). 컷 3 거울 저주(15~19). 컷 4 일상 재앙(20~46). 컷 5 포위(47~57). 컷 6 질병 회귀(58~63). 컷 7 흠어짐·역전(64~68).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복·저주 비대칭. 67절 시간 역전. 정보 — baruch/arur 병행, mashal-sheninah(37절), 68절 출애굽 역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조건→복→거울 저주→점층(재앙·포위·질병·흠어짐)→애굽으로 회귀의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같은 자리, 반대의 거울". 초벌 부제 — "순종 위의 복과, 거꾸로 돌아가는 길".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복과 저주가 길게 펼쳐진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나온 곳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길이 마지막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같은 자리의 거울:** 복(3-6절)과 저주(16-19절)가 성읍·들·광주리·들어옴·나감의 똑같은 항목 위에 마주 선다. baruch와 arur가 6번씩 거울로 떨어진다.
- 결 2 — 점층과 비대칭:** 저주가 일상→포위→유배→역전으로 한 계단씩 깊어지며, 복(11절)보다 저주(54절)가 약 다섯 배 길다. 거울이되 비대칭이다.
- 결 3 — 거꾸로 도는 출애굽:** 애굽의 질병이 되돌아오고(27·60절), 끝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68절)으로 닫힌다. 나온 길이 되돌아오는 역전이 본문 곳곳에 박힌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27장** (직전 예발 산 저주 의식). **신 30:1-10** (이 저주 이후의 회복 약속). **신 11:13-17** (이른 비·늦은 비의 복).
- 다른 권 — **레 26장** (병행 복·저주 단락). **단 9장 / 느 9장** (이 저주의 성취를 인정하는 기도). **출 1-15장** (역전되는 출애굽).
- 정경 흐름 — 27장의 의식이 28장에서 복·저주의 내용으로 펼쳐지고, 29~30장의 언약 갱신과 "생명을 택하라"의 선택 권고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삼가 들으면"의 조건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복과 저주가 같은 자리에 거울로 놓인 데서 멈춘다.
- 멈춤 2: 저주가 한 계단씩 깊어지는 점층에서 멈춘다.
- 멈춤 3: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이라는 마지막 역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나온 길이 거꾸로 돌 수도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복과 저주가 같은 자리에 마주 선*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 [x] 복과 저주가 같은 자리의 거울이다
- [x] 저주가 한 계단씩 점층한다
- [x] 복은 짧고 저주는 길다
- [x] 애굽의 질병이 되돌아온다
- [x] 시간(아침·저녁)이 역전된다
- [x] 마지막은 애굽으로의 회귀다
- [x] 가장 긴 장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역전.

미해결 질문

신명기 2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복(1-14절)은 짧고 저주(15-68절)는 훨씬 긴 비대칭의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거울 틀인데 분량이 약 다섯 배 차이.
- 본문은 그 비대칭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저주가 한 계단씩 점층하며 끝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까닭은?

- 일상의 재앙 → 포위 → 유배 → 역전으로 단계가 내려감.
- 점층의 방향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47절이 "풍부할 때에 기쁨으로 섬기지 않음"을 이유로 드는 까닭은?

- 결핍이 아니라 풍부함 속 태도가 저주의 이유로 적함.
- 그 진술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67절의 시간 역전("아침엔 저녁을, 저녁엔 아침을")은 무엇을 그리는가?

- 어느 때에도 머물 곳이 없는 마음을 시간으로 그림.
- 그 구체적 묘사의 결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Q5. 마지막 저주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감"(68절)인 까닭은?

- 출애굽이 통째로 거꾸로 도는 역전이 마지막에 놓임.
- 27·60절의 "애굽 질병 회귀"와 이어지는 방향 역전은 관찰까지.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백성이 "속담·이야깃거리"(mashal-sheninah, 37절)가 된다는 결은?

- 저주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표적이 됨.
- 그 표적됨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29장

DEU-029 · 오경 · 히브리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 다시 맺힌다. 보지 못하던 눈과 듣지 못하던 귀, 그리고 숨은 일과 나타난 일의 경계.

관찰된 사실

신명기 2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모압(Moav) 땅. 강을 건너기 직전, 호렙 언약 "외에" 다시 맺는 언약의 자리(1절).
- 소품 — 사십 년 닳지 않은 옷(simlah)과 신(naal, 5절), 황폐의 그림인 유황·소금(gofrit melach, 23절).
- 회고로 들어온 소재 — 애굽의 표적(otot)·기사(mofetim), 만나, 시혼·옥과의 싸움.
- 18절 "쓴 썩과 독초"(laanah 계열)가 숨은 배교의 표지로 등장. 히 12:15이 인용(교차 참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언약을 맺는 자리. 참가자 다수가 "낮은 자리·없는 자까지 묶음"의 인상을 공유함.
- "보았으나 깨닫지 못함"의 결, 그리고 마지막 "숨은 일·나타난 일"의 경계로 톤이 바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압 땅에서 ... 세우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니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또 세우신 것이라" — 언약 선언으로 시작.
- 29절: "숨은 일(nistarot)은 우리 하나님께, 나타난 일(niglot)은 우리와 자손에게 ... 행하게 하심이니라" — 두 영역의 경계로 닫힘.
- 2-9절(광야 회고) / 10-15절(언약 진입) / 16-29절(배교 경고·황폐·미래 물음)의 세 결.
- 본문 전송: 히브리어 성경은 29:1을 28:69로 붙임 — 장 경계가 번역본마다 다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 모세와 온 이스라엘. 10-11절 명단: 두령·장로·지도자·남자·아이·아내·나무 패는 자·물 길는 자·진 중의 나그네(가장 낮은 자리까지).
- 15절: "오늘 함께 선 자"와 "오늘 여기 없는 자"를 함께 언약에 넣음.
- 3-4절: "큰 시험·표적·기사를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lev ladaat)·보는 눈(einayim lirot)·듣는 귀(oznayim lishmoa)를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
- 18-19절: 마음이 돌아서 "독초의 뿌리"가 된 자가 저주를 듣고도 "나는 평안하리라"(shorer libo)고 자위함.
- 24-28절: 미래의 후대·이방인이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묻고 그 답이 함께 적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2-4절): 광야 회고 —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눈·귀를 주지 않으심
- 컷 2 (5-9절): 닳지 않은 옷·신, 시혼·옥, "언약의 말씀은 지키라"
- 컷 3 (10-15절): 오늘 다 같이 서서 언약 진입 — 낮은 자리·없는 자까지
- 컷 4 (16-21절): 숨은 마음의 경고 — 독초의 뿌리, "나는 평안하리라"
- 컷 5 (22-29절): 황폐한 땅·후대의 물음, "숨은 일과 나타난 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Moav(מוֹאָב) — 모압. 갱신 언약의 무대.
- brit(בְּרִית) — 언약. 본장에 거듭 반복.
- otot(אוֹתוֹת) 표적 / mofetim(מִפְתֵּימַיִם) 기사.
- lev ladaat(לֵב לְדַעַת) 깨닫는 마음 / einayim lirot(עֵינַיִם לְרֹאשׁוֹת) 보는 눈 / oznayim lishmoa(אָזְנַיִם לְשִׁמּוֹעַ) 듣는 귀(4절).
- simlah(שִׁמְלָה) 옷 / naal(נָעַל) 신 / lo balah(לֹא בָלָהָה) 헤어지지 않음(5절).
- laanah(לֹאנָה, 18절) — 쓴 쑥. "독을 맺는 뿌리".
- shorer libo(שׁוֹרֵר לִבּוֹ, 19절) — 완악한 마음으로 행함.
- nistarot(נִסְתָּרוֹת) 숨은 일 / niglot(נִגְלוֹת) 나타난 일(29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언약 갱신(covenant renewal) 형식 — 호렙 언약을 모압에서 다시 세움(1절).
- 역사 회고로 열어(2-9절) 현재의 진입(10-15절)으로 이음.
- "오늘(ha-yom)"과 "서다(omdim)"의 반복이 현재성을 강조.
- 컷 1("보았으나 못 깨달음")과 컷 5("숨은 일은 하나님께")가 봄/숨음으로 마주 섬.
- 24-28절의 미래 물음·답이 본문 안에 미리 적힘(수사적 문답).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호렙(시내) 언약의 갱신은 출 19-24 시내 언약을 원형으로 함(배경).
- "여기 없는 자"까지 포함은 후대 세대를 언약에 넣는 것으로 읽혀 왔으나, 본문은 정체를 명시하지 않음.
- 29절 두 단어 위에 점을 찍은 후대 사본 표기 전통(사본학 영역, 주입 아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29 ↔ 신 5:2-3 (호렙 언약을 "오늘 여기 산 우리와")
- 신 29 ↔ 신 28장 (직전 복·저주) / 신 30장 (이어지는 회복·선택)
- 신 29:4 ↔ 사 6:9-10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결)
- 신 29 ↔ 출 19-24 (시내 언약의 원형)
- 신 29:18 ↔ 히 12:15 ("쓴 뿌리"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압 평지에 온 백성이 모인다. 모세가 광야를 회고한다 — "너희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 사십 년 닳지 않은 옷과 신, 시혼·옥의 승리를 떠올리고, 언약을 지키라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부터 "여기 없는 자"까지 다 세워 언약에 들인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 "나는 평안하리라" 자위하는 숨은 배교를 경고하고, 미래의 황폐한 땅과 후대의 물음을 미리 적는다. 끝내 "숨은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자손에게"의 경계로 닫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보았으나 깨닫지 못한, 그리고 숨은 일과 나타난 일"
- 초벌 부제: "모압의 갱신 — 보는 눈과, 두 영역의 경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모압 갱신 언약 + 사 6:9-10 절 + 장 경계 전승)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절 "보는 눈·듣는 귀를 주지 않으심"을 신학(예정·책임)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문 진술까지만.
- 29:1의 장 경계 전승(히브리어 28:69)은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배경으로만 기록.
- 29절 점 표기 등 사본 전통은 주입하지 않고 두 영역의 경계 관찰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29장은 모압 평지에서 호렙 언약을 다시 세우며, "보았으나 깨닫지 못함"의 회고로 열어 "숨은 일과 나타난 일"의 경계로 닫는 갱신과 경계의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온 백성을 세워 호렙 언약을 다시 맺는 자리다. 모세는 광야를 회고하되, "큰 표적을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한다. 사십 년 닳지 않은 옷과 신을 떠올리고,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부터 "여기 없는 자"까지 다 언약에 들인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 "나는 평안하리라" 자위하는 숨은 배교를 경고하고, 미래의 황폐한 땅과 후대의 물음을 미리 적는다. 끝내 "숨은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자손에게"의 경계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모압 땅(호렙 언약 "외에"). 소품 — 닳지 않은 옷·신, 유황·소금의 황폐. 회고 소재 — 표적·기사·만나·시혼·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온 백성이 모여 다시 언약을 맺음. "보았으나 못 깨달음"과 마지막 "숨은 일·나타난 일" 경계로 톤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 ... 호렙 외에"(1절). 끝 — "숨은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자손에게"(29절).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온 이스라엘(낮은 자리·없는 자까지). 마음·눈·귀(lev/einayim/oznayim)의 묶음, 독초의 뿌리·자위하는 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회고(2~4). 컷 2 닳지 않은 옷·언약(5~9). 컷 3 언약 진입(10~15). 컷 4 숨은 마음 경고(16~21). 컷 5 황폐·미래 물음·경계(22~2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눈·귀를 주지 않으심"의 결. "없는 자" 포함. 정보 — 사 6:9-10 결, 미래 문답의 선기록, 29절 두 영역 경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고→닳지 않은 옷→언약 진입→숨은 마음 경고→황폐·미래 물음→경계의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보았으나 깨닫지 못한, 그리고 숨은 일과 나타난 일". 초벌 부제 — "모압의 갱신 — 보는 눈과, 두 영역의 경계".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모압 평지에 서서 멈춘다. 주께 아뢴다 — "보고도 깨닫지 못하던 제게 보는 눈을 주시는지요."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봄과 깨달음의 갈라짐:** "큰 표적을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눈·귀가 "오늘까지" 주어지지 않았다(3-4절). 봄과 깨달음이 한 문장에서 갈라진다.
- 결 2 — 낮은 자리와 없는 자까지:** 나무 패는 자·물 길는 자에서 "여기 없는 자"(10-15절)까지 언약에 묶인다. 언약의 테두리가 가장 낮은 곳과 부재하는 자까지 넓어진다.

3. **결 3 — 숨은 일과 나타난 일**: 마지막 절(29절)이 두 영역을 가른다. "보았으나 못 깨달음"의 회고와 "숨은 일은 하나님께"의 결말이 봄/숨음으로 마주 선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5:2-3** (호렙 언약을 "오늘 여기 산 우리와"). **신 28장** (직전 복·저주). **신 30장** (회복과 "생명을 택하라"로 이어짐).
- 다른 권 — **사 6:9-10**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결). **출 19-24** (시내 언약 원형). **히 12:15** ("쓴 뿌리" 인용).
- 정경 흐름 — 28장의 저주를 받은 자리에서 29장이 언약을 다시 세우고, 30장이 그 너머의 회복과 선택 권고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너희가 보았다"는 회고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그러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한 문장에서 멈춘다.
- **멈춤 2**: "여기 없는 자와도"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숨은 일은 하나님께"라는 마지막 경계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보는 것과 숨은 것 사이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던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압에서 호렙 언약을 다시 세운다
- [x] "보았으나 깨닫지 못함"을 회고한다
- [x] 옷과 신이 사십 년 닳지 않았다
- [x] 낮은 자리·없는 자까지 언약에 든다
- [x] 숨은 배교의 마음을 경고한다
- [x] 미래의 물음과 답이 미리 적힌다
- [x] "숨은 일과 나타난 일"로 닫힌다
- [x] "오늘"과 "서다"가 거듭 반복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경계.

미해결 질문

신명기 2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보았으나 깨닫는 마음·눈·귀를 오늘까지 주지 아니하셨다"(3-4절)는 결은?

- 관찰 사실: 봄과 깨달음이 갈라지고, 눈·귀를 "주신다"는 표현이 쓰임.
- 본문은 누가 그것을 주는지를 설명 없이 뒀.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여기 없는 자"(15절)까지 언약에 넣는 까닭은?

- 자리에 없는 사람도 언약 안에 묶임.
- 그 포함의 결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언약 안에 서서도 "나는 평안하리라"(19절) 자위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 저주를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자위하는 숨은 배교.
- 그 마음의 가능성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미래의 후대·이방인의 물음과 답(24-28절)이 본문에 미리 적힌 까닭은?

- 아직 오지 않은 대화를 본문이 앞당겨 기록함.
- 그 미래 시점의 삽입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Q5. "숨은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자손에게"(29절)의 경계는 무엇을 가르는가?

- 두 영역(nistarot/niglot)이 마지막에 나뉨.
- 그 경계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6. 회고(봄, 2-4절)와 결말(숨음, 29절)이 양 끝에서 마주 서는 까닭은?

- "보았으나 못 깨달음"과 "숨은 일은 하나님께"가 봄/숨음으로 마주함.
- 그 마주 섬의 결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0장

DEU-030 · 오경 · 히브리어

저주 너머에 회복이 약속된다. 말씀이 멀지 않고 입과 마음에 가까우니, 생명과 사망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

관찰된 사실

신명기 3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시간 위에 펼쳐짐 — 1-10절은 미래(흩어진 먼 땅에서의 돌아옴·회복), 11-20절은 현재(모압 평지의 권고).
- 거리감이 소재 — 하늘(shamayim)·바다가 등장했다가 부정되고 "입과 마음"의 가까움으로 멧힘(11-14절).
- 배경 — 28장 저주("복과 저주가 임한 후에", 1절)를 전제로 그 너머를 말함.
- 마지막에 "하늘과 땅"(hashamayim vехаarets)이 증인으로 불림(1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8장 저주 뒤라 숨통이 트이는 회복의 공기. 참가자 다수가 "돌아오다"의 양방향 반복을 인상으로 공유함.
- "멀지 않다"의 따뜻함과 "생명을 택하라"의 단호함이 한 장에 같이 놓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고 ... 마음으로부터 기억하고" — 저주 다음의 미래 가정으로 시작.
- 20절: "그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arikhut yamim)시니" — 현재의 권고로 닫힘.
- 1-10절(돌아옴·회복) / 11-14절(멀지 않은 명령) / 15-20절(생명·사망의 선택)의 세 결.
- "마음(levav)"이 1·6·14·17절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 모세·"너"(백성)·여호와, 그리고 증인으로 불린 하늘과 땅.
- shuv(돌아키다/돌아오다)가 1-10절에 약 7회 어근 반복 — 백성의 돌아옴(2·10)과 여호와의 돌이키심(3)이 같은 동사로 오감.
- 6절: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mul levav)" — 신 10:16의 "너희가 하라"에서 주어가 여호와로 옮겨감.
- 11-14절: "어렵지도(niflet) 멀지도(rechoqah) 않다 ... 말씀이 가까워(qarov) 네 입과 마음에 있다."
- 15-19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들씩 세움. 19절 "생명을 택하라(uvacharta bachayyim)". 동사 사랑(ahavah)·의지(davaq, 붙어 있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저주 후의 돌아옴과 모으심·회복
- 컷 2 (6-10절): 마음의 할례, 사랑하게 하심, 다시 번성
- 컷 3 (11-14절): "이 명령은 멀지 않다 — 입과 마음에 있다"
- 컷 4 (15-18절): 생명·복과 사망·저주를 앞에 둠
- 컷 5 (19-20절):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생명을 택하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shuv(שׁוּב) — 돌이키다/돌아오다. 1-10절 어근 반복(양방향).
- mul levav(6, מוּל לְבָבָא) — 마음에 할례를 행함. 주어와 여호와.
- qarov(14, קָרוֹב) — 가까운. rechoqah(רְחוֹקָה) 멀다 / niflet(נִפְלֵט) 어렵다(둘 다 부정됨).
- befikha uvilvavekha(בְּפִיְכָה וּבִלְוָבֶיךָ) — 네 입에·네 마음에. 롬 10:6-8 인용.
- chayyim(חַיִּים) 생명 / mavet(מָוֶת) 사망 — 15·19절에 짝.
- uvacharta bachayyim(19, וּבַחַיִּים תִּבְחָרְתָּ) — "생명을 택하라".
- ahavah(אָהָבָה) 사랑 / davaq(דָּבַק) 붙어 있음·의지함(20절).
- hashamayim vehaarets(19, הַשָּׁמַיִם וְהָאָרֶץ) — 증인으로 부른 하늘과 땅.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2) 문학 구조

- 조건적 약속(conditional promise) — "돌아오면 ... 돌이키시리라"의 상호 구조(1-10절).
- 거리의 역점층 — 하늘 → 바다 → 입과 마음으로 좁혀짐(12-14절).
- 대립(antithesis) — 생명/사망, 복/저주의 양자 세움(15·19절).
- 증인 형식(witness formula) — 하늘과 땅을 증인 삼음(19절, 신 4:31장과 같은 결).
- 봉투 — "생명"이 19절 명령에서 20절 "그가 네 생명"으로 되돌아옴.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3)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마음의 할례"는 신 10:16에서 명령(백성), 30:6에서 여호와의 행위로 — 주어 이동이 관찰됨.
- 예레미야 31장·에스겔 36장의 "새 마음·새 영"이 같은 결의 후대 메아리(교차 참조).
-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 것은 고대 언약·조약의 증인 형식과 닿음(배경).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0 ↔ 신 28장 (회복이 뒤집는 저주) / 신 29장 (직전 언약 갱신)
- 신 30:6 ↔ 신 10:16 (마음의 할례 — 주어 이동)
- 신 30:12-14 ↔ 롬 10:6-8 (가까운 말씀 인용)
- 신 30:6 ↔ 렘 31:31-34 / 겔 36:26-27 (마음에 새긴 언약·새 마음)
- 신 30:19 ↔ 신 4:26 / 31:28 (하늘과 땅 증인) / 수 24:15 ("택하라"의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 또는 앞의 사진을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장면이 먼저 미래로 간다. 복과 저주가 다 임한 뒤, 흩어진 먼 땅에서 백성이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 포로를 돌이키시고 하늘 끝에서부터 모으신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사랑하게 하시

고 다시 번성케 하신다. 장면이 현재로 돌아와, "이 명령은 멀지도 어렵지도 않다 — 하늘에도 바다 건너에도 있지 않고 네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명·복과 사망·저주의 두 길을 앞에 세우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생명을 택하라" 명한다. 그 생명은 결국 "여호와 그분이 네 생명"으로 맺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생명을 택하라"
- 초벌 부제: "가까운 말씀과, 생명·사망 앞의 선택"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마음의 할례 주어 이동 + 증인 형식 + 롬 10 인용 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절 "마음의 할례"의 주어 이동을 은혜·자유의지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휘·주어 변화의 관찰까지만.
- "생명을 택하라"의 명령과 양자택일의 자유 사이 긴장은 open_questions에 보존, 목상 단계로 이월.
- 롬 31·겔 36·롬 10의 메아리는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 본문은 "그가 네 생명"으로 닫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0장은 저주 너머의 돌아옴과 마음의 새로워짐을 약속하고, "멀지 않은 말씀"을 지나 하늘과 땅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로 닫는 회복과 선택의 결이다.

한 문단: 본문은 복과 저주가 다 임한 뒤의 미래로 먼저 간다. 흠어진 먼 땅에서 백성이 마음을 다해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 포로를 돌이키시고 모으신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사랑하게 하신다.

장면이 현재로 돌아와, "이 명령은 멀지도 어렵지도 않다 — 네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명·복과 사망·저주의 두 길을 세우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생명을 택하라" 명한다. 그 생명은 끝내 "여호와 그분이 네 생명"으로 맺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시간 위의 무대 — 미래(1-10)와 현재(11-20). 거리(하늘·바다↔입·마음)가 소재. 증인으로 선 하늘과 땅(1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28장 저주 뒤 숨통이 트이는 회복. "돌아오다"의 양방향 반복, "멀지 않다"의 뜻함과 "택하라"의 단호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복과 저주가 임한 후에"(1절). 끝 —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20절). 미래 회복→현재 선택. "마음"이 이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너"·여호와, 증인 하늘·땅. shuv의 양방향,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하리라"(6절)의 주어 이동, 생명/사망의 양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돌아옴·회복(1~5). 컷 2 마음의 할례(6~10). 컷 3 멀지 않은 명령(11~14). 컷 4 두 길(15~18). 컷 5 증인·택하라(19~2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마음의 할례 주어 이동. 가까운과 못 지킴의 긴장. 정보 — 거리의 역점층, 명령과 자유의 긴장, "그가 네 생명"의 봉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미래 돌아옴·마음의 할례→가까운 말씀→두 길→하늘·땅 증인·"생명을 택하라"의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생명을 택하라". 초벌 부제 — "가까운 말씀과, 생명·사망 앞의 선택".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생명과 사망이 앞에 놓인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그 말씀이 제 입과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돌아옴의 양방향:** shuv가 백성의 돌아옴(2·10절)과 여호와의 돌이키심(3절) 사이를 같은 동사로 오간다. 회복은 두 방향의 움직임이 맞물린 자리다.
- 결 2 — 주어가 옮겨가는 마음의 할례:** 신 10:16의 "너희가 하라"가 30:6에서 "내가 하리라"로 바뀐다. 같은 일의 주어가 사람에서 여호와로 이동한다.
- 결 3 — 가까운과 선택:** 거리가 하늘·바다에서 "입과 마음"으로 거꾸로 좁혀지고(11-14절), 하늘과 땅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가 떨어진다. 그 생명은 "여호와 그분"으로 맺힌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28장 (회복이 뒤집는 저주). 신 29장 (직전 언약 갱신). 신 10:16 (마음의 할례 — 주어 이동의 짝).
- 다른 권 — 롬 10:6-8 (가까운 말씀 인용). 렘 31:31-34 / 겔 36:26-27 (마음에 새긴 언약·새 마음). 수 24:15 ("택하라"의 메아리).
- 정경 흐름 — 27~28장의 의식과 복·저주, 29장의 갱신을 지나 30장이 회복과 선택으로 율법 단락을 닫고, 31장 이후 모세의 마지막 위임과 노래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복과 저주가 임한 후에"라는 미래 가정 앞에서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라는 주어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과 마음에 있다"는 데서 멈춘다.
- 멈춤 3: 하늘과 땅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택할 생명이 결국 그분 자신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까운 말씀과 두 길 사이*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저주 너머에 돌아옴과 회복이 약속된다
- [x] "돌아오다"가 양방향으로 오간다
- [x] 마음의 할례를 여호와가 행하신다
- [x] 말씀이 입과 마음에 가깝다
- [x] 생명·사망, 복·저주를 둘씩 세운다
- [x] 하늘과 땅을 증인 삼는다
- [x] "생명을 택하라"가 명령으로 떨어진다
- [x] 그 생명이 "여호와 그분"으로 맺힌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택하라.

미해결 질문

신명기 3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마음의 할례"를 신 10:16은 백성에게, 30:6은 여호와께 돌리는 주어 이동의 까닭은?

- 관찰 사실: 같은 표현의 주어가 "너희가 하라"에서 "내가 하리라"로 바뀐.
- 본문은 그 이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돌아오다"(shuv)가 백성과 여호와 사이를 같은 동사로 오가는 결은?

- 2:10절(백성)과 3절(여호와)이 같은 어근으로 맞물림.
- 그 양방향의 결은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말씀이 "가깝다"는데 본문(신명기 전체)에서 백성이 끝내 지키지 못하는 긴장은?

- 30장은 "가까워 행할 수 있다"(14절)고 함.
- 가까움과 지키지 못함의 긴장은 30장 안에서 설명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4. 거리가 하늘 → 바다 → 입과 마음으로 거꾸로 좁혀지는(12-14절) 까닭은?

- 먼 데를 돌 부정하고 가장 가까운 데로 데려옴.
- 그 역점층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5. "생명을 택하라"는 명령과 두 길을 다 둔 자유가 한 자리에 있는 까닭은?

- 명령(19절)과 양자택일의 여지가 동시에 놓임.
- 그 긴장은 관찰까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생명을 택하라"의 생명이 끝에 "그가 네 생명"(20절)으로 되돌아오는 결은?

- 택할 생명이 결국 여호와 자신으로 맺힘.
- 그 봉투의 결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1장

DEU-031 · 오경 · 히브리어

위임과 기록과 노래. 한 사람이 떠나기 전,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노래가 되어 뒤에 남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3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둘로 좁혀진다: 모압 평지의 온 이스라엘 진영(1-13절, 23-30절) → 회막(14-22절, 구름 기둥 가운데).
- 소품: 율법을 기록한 "책"(9·24·26절), 언약궤(aron ha-brit, 26절 — 책을 궤 "궤"에 둠), 구름 기둥(15절).
- 시간 표지: "내가 오늘 백이십 세"(2절),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shemittah)의 초막절(Sukkot)"(10절).
- 요단 도하 직전, 모세는 건너지 못함이 전제된 무대.
- "모이게 하라"의 동사 hakhel(13절) — 후대 7년 낭독 규례의 이름이 됨(배경 자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작별을 정돈하는 공기로 열린다. 든든한 위임과 16절 이후의 어두운 예고가 한 장에 공존하여 그들이 깔림.
- "강하고 담대하라"·"두려워 말라"의 반복이 다독이는 청각 인상을 남김. "증거"가 책과 노래 양쪽에 걸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 말로 시작(마소라 바엘레크 / 일부 사본·70인 역 바예칼, 자음 하나 차이).
- 30절: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읽어 들리니라" — 노래로 닫힘.
- 매체의 옮겨감: 말(1절) → 글(9절 "기록하여") → 노래(30절 "읽어 들리니라").
- 시작도 끝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다"는 동작 — 대상은 같고 매체가 바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 / 여호수아 / 온 이스라엘 / 레위 자손 제사장·장로 / 여호와(14·16·23절 직접 등장).
- 모세의 발화 대상 이동: 백성(2-6절) → 여호수아(7-8절) → 제사장·장로(9-13절) → 총회(28-30절).
- "강하고 담대하라"(chazaq we'emats) — 7절(모세→여호수아)·23절(여호와→여호수아) 두 입에서 같은 말.
- "두려워 말라"(lo tira / al tira) — 6절(백성)·8절(여호수아).
- 16-18절: 여호와의 배반 예고 — "음행하여 나를 버리고... 얼굴을 숨기리니"(hester panim, 18절).

- 27절: 모세의 자기 백성 진단 — "내가 살았어도 거역하였거든 죽은 후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 백이십 세·도하 위임·"강하고 담대하라".
- 컷 2 (7-8절): 회중 앞 여호수아 공개 위임.
- 컷 3 (9-13절): 율법 기록·제사장 위탁·7년 면제년 초막절 낭독 명령(hakhel).
- 컷 4 (14-15절): 회막으로 전환, 구름 기둥, 두 사람 호출.
- 컷 5 (16-22절): 배반 예고·노래를 증거로 기록 명령·모세가 노래를 씀.
- 컷 6 (23-30절): 여호와와 여호수아 위임·율법책을 께 곁에·노래를 총회에 읽어 들림.
- 전환점: 컷 4에서 진영→회막. 사람의 위임(컷 1-2)과 하나님의 위임(컷 6)이 회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봄.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chazaq we'emats(חַזַּק וְאִמַּץ) — "강하고 담대하라". 7:23절. 수 1:6-9에 재청.
- lo tira / al tira(לֹא תִירָא / אַל תִּירָא) — "두려워 말라". 6:8절.
- Torah(תּוֹרָה) — 율법/가르침. 9·11·12·24·26절.
- ed(עֵד) — 증거/증인. 19·21절(노래)·26절(율법책). 법정 증인의 어감.
- shemittah(שְׁמִטָּה) — 면제·농아춤의 해(7년). 10절.
- Sukkot(סֻכּוֹת) — 초막절. 10절.
- hakhel(הַקְּהֵל) — "모이게 하라". 12절. 후대 7년 낭독 규례명.
- hester panim(הִסְתֵּר פָּנָיו) — "얼굴 가림/숨김". 18절(또 17절 "숨기리니").
- aron ha-brit(אֲרוֹן הַבְּרִית) — 언약궤. 25-26절.
- shirah(שִׁירָה) — 노래. 19·21·22·30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위임 정형구의 삼중 겹침: 백성(6절)·여호수아 모세 입(7-8절)·여호수아 하나님 입(23절).
- 매체의 삼단 이동: 말(1절) → 글(9절) → 노래(30절).
- "증거"(ed)가 두 물건(노래·율법책)에 동일 적용 — 두 증인 구조.
- 회막 장면(14-22절)을 축으로 사람의 위임과 하나님의 위임이 대칭.
- 든든한 동행 약속("떠나지 아니하리라")과 어두운 예고("얼굴을 숨기리라")의 병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고대 근동 종주권 조약은 조약문을 성소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했음 — 9-13절 율법 보관·정기 낭독과 형식 병행 관찰.
- 지도자가 후계자를 회중 앞에서 공개 위임하는 의례 관행 — 7-8, 14-15, 23절 위임 장면과 병행.
- 본문은 이 형식들의 배경만 비추며, 조약 신학으로의 해석은 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1 ↔ 민 27:18-23 (여호수아 위임의 첫 명령)
- 신 31 ↔ 수 1:5-9 ("강하고 담대하라" 재청 — 다음 책으로 건너가는 다리)

- 신 31 ↔ 신 17:18-20 (율법 등사와 낭독)
- 신 31 ↔ 신 32 (이 장에서 기록·낭독된 노래의 본문)
- 신 31 ↔ 출 25:10-22 (언약궤)
- 신 31 ↔ 히 13:5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압 평지,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진영. 백이십 세의 모세가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자신은 못 건너며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고 여호수아가 인도할 것을 알린다 — "강하고 담대하라."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를 공개로 위임하고, 율법을 글로 써서 제사장·장로에게 맡기며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에게 낭독하라 명한다. 무대가 회막으로 좁혀지고, 구름 기둥 가운데 여호와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다. 거기서 배반의 예고가 무겁게 내려지고, 잊히지 않을 증거로 노래를 써서 백성의 입에 두라 명하신다. 모세가 그 날 노래를 적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위임하시고,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노래를 총회 앞에서 끝까지 읽어 들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노래가 되다"
- 초벌 부제: "위임과 기록과 노래 — 한 사람이 떠나기 전에 뒤에 남기는 것"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종주권 조약 낭독·후계 위임 의례 + 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6-18절 배반 예고가 예정·자유의지 신학으로 번질 위험 → open_questions에 보존, 묵상 단계로 이월.

- "강하고 담대하라"를 자기계발 격언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주의. 본장에선 위임 정형구의 삼중 겹침까지만 기록.
- "얼굴을 숨기심"(hester panim)을 신정론으로 끌고 가지 않음. 어휘·위치만 표시.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1장은 떠날 사람이 손에 쥘 것을 사람과 글과 노래 셋으로 나누어 뒤에 남기는 결이다.

한 문단: 백이십 세의 모세는 자신이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전제로 장을 연다. 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인도를 위임하고, 다음으로 율법을 글로 써서 제사장에게 맡기며 7년마다 온 백성 앞에서 읽게 하고, 마지막으로 잊히지 않을 증거로 노래를 써서 백성의 입에 둔다. 회막 장면을 축으로 사람의 위임과 하나님의 위임이 같은 말("강하고 담대하라")로 마주 보고, 든든한 동행 약속과 어두운 배반 예고가 같은 입에서 병치된다. 말로 열린 장이 노래를 읽어 주는 것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두 무대 — 모압 평지 진영과 회막(구름 기둥). 소품 — 율법책, 언약궤(책을 궤 곁에), 백이십 세·7년 면제년의 시간 표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작별을 정돈하는 공기. 든든한 위임과 16절 이후의 어두운 예고가 한 장에 공존하여 그들이 깔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베푸니라"(1절). 끝 —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30절). 말→글→노래의 매체 이동.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여호수아·온 이스라엘·제사장·여호와. "강하고 담대하라"가 모세 입(7절)과 하나님 입(23절)에 겹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백성에게(1~6). 컷 2 여호수아 공개 위임(7~8). 컷 3 율법 기록·낭독 명령(9~13). 컷 4 회막·구름 기둥(14~15). 컷 5 배반 예고·노래 기록(16~22). 컷 6 하나님의 위임·궤 곁·총회 낭독(23~3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노래를 따로 두라(19절)는 까닭. 동행 약속과 배반 예고의 병치. 정보 — "증거"(ed)가 노래·율법책 둘에 걸림, hakhel 7년 낭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도하 직전 위임→율법 위탁→회막의 무거운 예고→노래 기록→하나님의 위임→총회 낭독의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노래가 되다". 초벌 부제 — "위임과 기록과 노래".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모압 평지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떠나는 손에서 남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매체의 삼단 이동:** 말(1절)이 글(9절)이 되고, 글이 노래(30절)가 된다.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것이 세 매체로 펼쳐진다.

2. **결 2 — 두 입에서 같은 말:** "강하고 담대하라"가 모세 입(7절)과 하나님 입(23절)에 겹친다. 회막이 두 위 입 사이에 놓인다.

3. **결 3 — 두 증인:** "증거"(ed)가 노래(19:21절)와 율법책(26절) 두 물건에 함께 걸린다. 본문이 한 단어를 두 곳에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17:18-20 (율법 등사와 낭독). 신 32 (이 장에서 기록·낭독된 노래의 본문이 다음 장에 펼쳐짐).
- 다른 권 — 민 27:18-23 (여호수아 위임의 첫 명령). 수 1:5-9 ("강하고 담대하라"가 다음 책에서 다시 올림). 히 13:5 ("떠나지 아니하라"의 인용).
- 정경 흐름 — 오경의 끝자락에서 위임 정형구가 다음 책(여호수아)으로 손을 내민다. 한 권의 마지막이 다음 권의 첫머리와 같은 말로 잇닿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백이십 세, 나는 못 건넌다"는 첫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같은 격려가 두 입에서 나오는 자리(7절·23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동행 약속과 배반 예고가 나란히 놓인 회막 장면에서 멈춘다.
- 멈춤 3: 율법책이 궤 "결"에, 노래가 입에 두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떠나는 손에서 사람과 글과 노래가 남는다는 결을 손에 준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떠남을 앞둔 자가 무엇을 남기는지 바라보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함이 전제다
- [x] 위임이 사람(여호수아)에게 건네진다
- [x] 말이 글로 기록된다(9절)
- [x] 글이 노래로 옮겨진다(19:30절)
- [x] "강하고 담대하라"가 두 입에 겹친다
- [x] 동행 약속과 배반 예고가 병치된다
- [x] "증거"가 노래와 율법책 둘에 걸린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노래.

미해결 질문

신명기 3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궤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율법책으로 충분하지 않고 따로 "노래"를 두라(19절) 하신 까닭은?

- 관찰 사실: 21절 "그 후손의 입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니" — 노래는 안 잊힌다고 함.
- 왜 노래가 더 오래 남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같은 "강하고 담대하라"가 모세 입(7절)과 하나님 입(23절)에 나뉘어 놓인 까닭은?

- 사람의 위임과 하나님의 위임이 같은 말로 겹침. 회막 장면이 그 사이에 놓임.
- 두 위임의 관계는 관찰까지. 해석은 뒤로.

Q3. 든든한 동행 약속과 어두운 배반 예고(16-18절)가 한 장에 같이 놓인 까닭은?

- "떠나지 아니하리라"와 "얼굴을 숨기리라"가 같은 입에서 나옴.
- 둘의 병치를 본문은 설명 없이 나란히 둬. 답하지 않고 보존.

Q4. "증거"(ed)가 노래와 율법책 두 물건에 다 걸린 의미는?

- 19·21절은 노래가 증거, 26절은 율법책이 증거. 두 증인 구조.
- 두 증인이 무엇을 향한 증언인지는 묵상으로 이월.

Q5. 율법책을 궤 "안"이 아니라 "결"(26절)에 두라 한 까닭은?

- 본문이 위치를 콕 집어 "결"이라 함. 십계명 돌판(궤 안)과의 위치 차이가 눈에 걸림.
- 위치의 차이만 관찰로 기록. 의미는 답하지 않음.

Q6. 모세가 자기 백성의 미래 배반을 이렇게 단정(27절)할 수 있던 근거는?

- "내가 살았어도 거역하였거든 죽은 후라" — 과거 경험에 근거한 진단처럼 보임.
- 본문은 그 확신의 근거를 직접 설명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2장

DEU-032 · 오경 · 히브리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른 노래. 반석은 변함없는데 그를 낳은 백성이 잇는다. 운문이 고발과 회복을 한 호흡에 담는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3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온 창조로 확장된다: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석에 호출(언약 소송 rib 양식). 이후 광야 황무지(10절), 높은 곳·들의 소산(13절)으로 장소 이동.
- 소품이 부드러움→거침으로 바뀐: 비·이슬·단비(2절), 독수리(11절), 꿀·기름·젖·포도주(13-14절) → 불·화살·독사(22-24·33절).
- "반석"(Tsur)이 노래의 골조 소품 — 4·15·18·30절(하나님), 31·37절(대적의 신).
- "여수룬"(Yeshurun, 15절) — 이스라엘의 시적 별칭('올곧은 자' 어감).
- 시간 배경 — "옛날을 기억하라"(7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업을 나누실 때"(8절)의 먼 과거.
- 장르가 운문(시) — 행이 짝(평행법)으로 진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산문에서 운문으로 전환되며 두 행씩 출렁이는 걸. 법정처럼 열림(증인 호출).
- "반석"의 반복이 단단함의 인상을 줌. 중반의 거친 이미지(불·화살)가 후반에서 속죄로 풀림. 시간이 옛날 → 지금 → 마지막 날로 크게 움직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 증인 호출(고발)로 시작.
- 43절: "민족들이 그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땅과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 속죄·기쁨으로 닫힘.
- 노래(1-43)를 산문 틀(44-52: 모세의 낭독·노보산 명령)이 양쪽에서 감쌌.
- 43절은 사본별 길이 차이(70인역·쿰란이 더 김, 히 1:6 인용 연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는 모세, 노래 안에서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 인칭이 3인칭("그", 4절)과 1인칭("나", 20절~)을 오감.
- 백성의 이름: 여수룬(15절)·야곱·이스라엘. 그 외 대적·민족들. 하늘과 땅은 증인.
- 4절 하나님 묘사 연쇄: "반석"(Tsur)·"완전함"·"진실하신 하나님"(El emunah)·"불의 없음".
- 상황의 역전: 광야의 찾으심·독수리 양육·풍요(10-14절) → 15절 "여수룬이 기름지매 밭로 참" → 낳으신 반석을 잇음(18절).

- 사상의 대조: 변함없는 반석(4절) ↔ 비뚤어진 세대(5절). 단단함과 흔들림의 병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서두 — 하늘·땅 증인 호출, 가르침이 비처럼.
- 컷 2 (4-6절): 반석의 완전함 ↔ 비뚤어진 세대.
- 컷 3 (7-14절): 옛 기억 — 광야의 찾으심·독수리 양육·풍요.
- 컷 4 (15-18절): 여수론의 배역 — 발로 참·반석을 잇음.
- 컷 5 (19-27절): 얼굴 숨기심·진노, 대적의 교만 경계.
- 컷 6 (28-42절): 분별 없음 한탄, 두 반석 비교, 신원(보복) 선언.
- 컷 7 (43절): 민족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속죄.
- 전환점: 컷 3→컷 4의 15절("그런데 여수론이...")에서 한 행에 뒤집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shamayim wa'arets(שָׁמַיִם וָאָרֶץ) — 하늘과 땅. 1절 증인 호출.
- Tsur(צֹר) — 반석. 4·15·18·30·31·37절. 하나님과 대적의 신 양편에 쓰임.
- El emunah(אֱלֹהֵי אֱמוּנָה) — 진실하신 하나님. 4절.
- Yeshurun(יֵשׁוּרֻן) — 여수론, 이스라엘의 시적 별칭. 15절.
- Elyon(עֵלְיוֹן) — 지극히 높으신 자. 8절.
- nesher(נֶשֶׁר) — 독수리. 11절. 출 19:4와 같은 이미지.
- qana(קָנָה) — 사다/낳다/지으심. 6절 "너를 사신/지으신". 어머니 해산 어감과 인접.
- naqam(נָקַם) — 신원/보복. 35·41·43절.
- dor(דּוֹר) — 세대/대. 5·7·20절.
- kipper(כִּפֶּה) — 속죄하다. 43절.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운문)

- 평행법(parallelism): 2절 "교훈은 비처럼 / 말은 이슬처럼" 등 두 행이 같은 뜻을 다른 이미지로 겹침.
- "반석"(Tsur)을 우리 편과 대적 편에 같이 두고 견주는 대조(31절).
- 은혜(컷 3)에서 배역(컷 4)으로의 15절 단일 행 전환.
- 인칭 전환(3인칭↔1인칭)이 화자 모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를 오감.
- 고발(1절)→속죄(43절)의 톤 반전. 산문 틀(44-52)이 노래를 감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언약 소송(rib) 양식 —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법정 고발 형식. 사 1:2가 동일 형식. 1절과 병행 관찰.
-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치는 양육 이미지(11절) — 고대 근동 보호·양육 모티프.
- 본문은 이 형식·이미지의 배경만 비추며 신학적 단정은 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2 ↔ 신 31:19-22 (이 노래의 기록·낭독 명령 — 직전 배경)

- 신 32 ↔ 신 30:19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 같은 호출 형식)
- 신 32 ↔ 출 19:4 (독수리 날개로 업어 — 같은 이미지)
- 신 32 ↔ 사 1:2 (소송 양식의 첫머리)
- 신 32 ↔ 롬 10:19; 12:19 (32:21-35 인용)
- 신 32 ↔ 히 1:6 (32:43 LXX 인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모세가 입을 열어 하늘과 땅을 증인석에 부른다.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기를 구하고, 첫 선언으로 "완전하신 반석"을 세운다. 그러나 곧 백성을 "비뚤어진 세대"로 가리킨다. 노래는 옛 기억으로 거슬러, 광야 황무지에서 찾으시고 독수리처럼 업으시며 기름진 것으로 먹이신 일을 그린다. 풍요의 정점에서 노래가 한 행에 뒤집힌다 —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차고" 낳으신 반석을 잊는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진노가 일지만, 대적의 교만을 경계하여 그 진노가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신다. 후반에 두 반석이 견주어지고 신원의 칼이 번쩍인다. 마지막 행에서 노래가 풀린다 — 민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가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신다. 노래가 끝나면 산문으로 돌아와, 모세가 이를 백성에게 들려주고, 그 날 느보산에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잊었도다"
- 초벌 부제: "모세의 노래 — 변함없는 반석, 잊은 백성, 그리고 마지막의 속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언약 소송 양식·독수리 모티프 + 운문 평행법)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7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보복/신원"(naqam, 35·41절)을 윤리·심판 신학으로 끌고 가지 않음. 단어 분포와 43절 속죄로의 풀림까지만 기록.
- 8절 본문 차이(마소라 benei Yisrael vs 70인역·쿰란 benei Elohim)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보존.
- "여수론"을 알레고리로 확장하지 않음. 시적 별칭·15절 전환 관찰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2장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른 운문이, 변함없는 반석과 그를 잊은 백성을 견주며 고발로 열려 속죄로 닫히는 노래다.

한 문단: 모세의 노래는 온 창조를 증인석에 세우는 법정 형식으로 열린다. 첫 선언은 "완전하신 반석"이고, 곧장 "비뚤어진 세대"가 맞세워진다. 노래는 광야의 찾으심과 독수리 양육과 풍요를 회상하다가, 풍요의 정점인 15절에서 한 행에 뒤집힌다 — 여수론이 기름지매 발로 차고 낳으신 반석을 잊는다. 진노가 일지만 대적의 교만을 경계하여 끝까지 가지 않고, 두 반석이 견주어진 뒤 신원의 칼이 번쩍인다. 그러나 마지막 행은 풀린다 — 민족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그가 땅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신다. 운문(1-43)을 산문 틀(44-52)이 감싸고, 노래의 끝은 한 사람을 느보산으로 부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하늘과 땅의 법정(rib 양식) + 광야·풍요의 땅. 소품 — 비·이슬·독수리·꿀·기름(부드러움)에서 불·화살·독사(거침)로. 골조 소품은 "반석"(Tsur).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산문→운문 전환, 두 행씩 출렁임. 법정처럼 열려 거친 중반을 지나 속죄로 풀림. 시간이 옛날→마지막 날로 크게 움직임.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하늘이여 들으라"(1절, 고발). 끝 — "그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43절, 기쁨). 산문 틀(44-52)이 노래를 감쌌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화자 모세,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3인칭↔1인칭 오감). 백성은 여수론·야곱. 변함없는 반석(4절)과 비뚤어진 세대(5절)의 대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증인 호출(1~3). 컷 2 반석↔세대(4~6). 컷 3 옛 은혜(7~14). 컷 4 여수론의 배역(15~18). 컷 5 진노·경계(19~27). 컷 6 두 반석·신원(28~42). 컷 7 속죄(43).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두 반석 비교(31절). 8절 본문 차이. 보복(35·41절)과 속죄(43절)의 공존. 정보 — 평행법, 독수리 이미지(출 19:4), naqam·kipper.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증인 호출→옛 은혜→풍요의 정점에서 배역(15절)→진노와 경계→두 반석→속죄의 기쁨→느보산 명령으로 이어지는 한 흐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잊었도다". 초벌 부제 — "변함없는 반석, 잊은 백성, 그리고 마지막의 속죄".

단계	핵심 발견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선 법정을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배부른 자리에서 잊지 않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반석:** "반석"(Tsur)이 하나님과 대적의 신 양쪽에 쓰여,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다"(31절)로 견주어진다. 한 단어가 두 편을 가른다.
2. **결 2 — 한 행의 뒤집힘:** 가장 배부른 자리(15절 "기름지매")에서 발로 차고 잇는다. 은혜의 정점이 배역의 출발점이 된다.
3. **결 3 — 고발과 속죄의 한 호흡:** 신원의 칼(35·41절)과 민족들의 즐거움·속죄(43절)가 같은 노래에 함께 놓인다. 운문이 두 결을 한 호흡에 담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31:19-22 (이 노래를 기록·낭독하라는 직전 명령). 신 30:19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 같은 호흡).
- 다른 권 — 출 19:4 (독수리 날개 이미지). 사 1:2 (같은 소송 양식). 롬 10:19; 12:19·히 1:6 (이 노래의 신약 인용).
- 정경 흐름 — 오경의 끝자락에서 한 노래가 온 창조를 증인으로 세운다. 이 소송 양식은 후대 예언서(사 1장 등)의 첫머리로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불리는 첫 행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완전하신 반석"과 "비뚤어진 세대"가 맞세워진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풍요의 정점에서 한 행에 뒤집히는 15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두 반석이 견주어지는 자리(31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변함없는 반석은 잊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가장 배부른 자리에서도 낳으신 분을 기억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불린다(1절)
- [x] 노래가 운문(평행법)으로 진행된다
- [x] "반석"이 골조 단어로 반복된다
- [x] 풍요의 정점에서 배역이 시작된다(15절)
- [x] 같은 단어로 두 반석이 견주어진다(31절)
- [x] 고발로 열려 속죄로 닫힌다
- [x] 산문 틀(44-52)이 노래를 감싼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반석.

미해결 질문

신명기 3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같은 "반석"(Tsur)이 하나님과 대적의 신 양쪽에 쓰인(31절) 까닭은?

- 관찰 사실: 4:15·18:30절은 하나님, 31:37절은 대적의 신. 같은 단어로 두 편을 견중.
- 왜 같은 단어를 두 편에 두고 비교하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Q2.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의 본문 차이는 어느 쪽인가?

- 마소라 benei Yisrael vs 70인역·쿰란 benei Elohim(하나님의 아들들).
- 본문 자체가 갈리는 난해 구절.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존.

Q3. 풍요의 절정에서 한 행에 뒤집히는(15절) 까닭은?

- 가장 배부른 자리("기름지매")에서 발로 차고 잇음. 은혜의 정점이 배역의 출발점이 됨.
- 왜 풍요가 망각으로 이어지는지는 본문이 단정하지 않음. 관찰까지.

Q4. 진노("얼굴을 숨기리라")가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신(26-27절) 까닭은?

- 대적이 "우리 손이 높다" 교만할까 봐 진노를 거두심. 심판의 동기에 대적의 오해 방지가 들어 있음.
- 그 동기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보복(naqam, 35·41절)과 기쁨·속죄(43절)가 한 노래에 함께 놓인 의미는?

- 같은 노래가 신원의 칼과 민족들의 즐거움을 같이 담음.
- 둘의 공존을 본문은 나란히 둘 뿐. 답하지 않고 보존.

Q6. "여수룬"이라는 낯선 별칭(15절)이 하필 배역의 자리에 놓인 까닭은?

- '울곧은 자' 어감의 이름이 발로 차는 장면에서 쓰임. 이름과 행동의 어긋남.
- 그 어긋남이 의도된 결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3장

DEU-033 · 오경 · 히브리어

떠나는 사람이 지파마다 다른 복을 얻는다. 시내에서 비춘 빛으로 열려, "여수룬 같은 이 없도다"로 닫히는 운문.

관찰된 사실

신명기 3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액자 무대: 우주적 도입(1-5절, 시내·세일·바란 신현) → 지파별 축복 명단(6-25절) → 우주적 마무리(26-29절, 하늘을 타고 오심).
-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ish ha-Elohim, 1절)으로 호명 — 드문 호칭.
- 지명 — 시내(Sinai)·세일(Seir)·바란(Paran), 남쪽 광야의 산들(2절). 샷 5:4-5와 같은 행진 이미지.
- 제의 소품 — 우림과 둠뫼(Urim we-Tummim, 8절, 레위 단락). 출 28:30 연결.
- 자연물 소품 집중 — 요셉 단락(13-16절): 이슬·샘·해·달·옛 산·영원한 언덕의 "가장 좋은 것".
- 시간 배경 — "죽기 전에"(1절). 다음 장에서 모세 죽음.
- 장르 — 운문(시)·임종 축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32장의 무거움과 대조되는 다정함 — 한 명씩 호명하며 복을 빚. 도입은 빛이 산에서 솟는 웅장함.
- 가운데는 명단이되 운문이라 출렁임. 요셉 단락이 유독 풍성. 마지막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로 환하게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도입(2-5절): 하나님이 산에서 빛으로 오심 +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5절).
- 마무리(26-29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26절) +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29절, 질문형).
- "여수룬"(Yeshurun)이 5절·26절 양 끝에 걸려 지파 명단을 감쌌 — 액자(inclusio).
- 우주적 신현이 양 끝, 지파 명단이 가운데. 32장(고발로 열림)과 대조되어 33장은 축복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화자 모세("하나님의 사람"). 복받는 지파: 르우벤·유다·레위·베냐민·요셉(에브라임·므낫세)·스블론·잇사갈·갓·단·납달리·아셀. 도입·마무리에 하나님.
- 관찰 사실: 시므온이 명단에서 빠짐(창 49와 차이).
- 지파별 결이 다름 — 르우벤 "죽지 않기를"(6절), 유다 "그를 인도하시기를"(7절), 레위 우림·둠뫼·가르침(8-11절), 베냐민 "날개 사이에 품으심"(12절), 요셉 "가장 좋은 것" 집중(13-17절).

- 핵심 선언: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en ka-El Yeshurun, 26절) — 비교 불가.
- 상황: 임종 직전 한 사람이 무리를 한 명씩 호명하며 저마다 다른 복을 엮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도입 — 시내·세일·바란 신현, 여수론의 왕.
- 컷 2 (6-7절): 르우벤·유다.
- 컷 3 (8-12절): 레위(우림·둠뫼·가르침)·베냐민(날개 사이).
- 컷 4 (13-17절): 요셉 — 가장 풍성, 하늘·땅의 좋은 것, 수소·들소.
- 컷 5 (18-25절): 스블론·잇사갈·갓·단·납달리·아셀.
- 컷 6 (26-29절): 마무리 — 하늘을 타고 오심, "여수론 같은 이 없도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 틀: 컷 1·컷 6이 우주적 액자, 컷 2-5가 그 안의 명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berakhah / barak(בָּרַךְ / בָּרַכָה) — 복/복을 빌다. 1:20·23·24절.
- ish ha-Elohim(אִישׁ הָאֱלֹהִים) — 하나님의 사람. 1절(모세 호칭).
- Yeshurun(יֵשׁוּרֻן) — 여수론, 이스라엘의 시적 별칭. 5:26절(틀 양끝).
- Sinai · Seir · Paran(סִינַי · שֵׁעִיר · פָּרָן) — 신현의 산들. 2절.
- Urim we-Tummim(אֲוִרִים וְטֻמִּימִם) — 우림과 둠뫼. 8절. 출 28:30.
- meod(מְּוֹד) — 가장 좋은 것/진미. 요셉 단락(13-16)에 집중 반복. (* 표기상 메게드)
- melek(מֶלֶךְ) — 왕.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 meonah(מְּוֹנָה) — 처소/거처.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
- en ka-El(אֵין כְּאֵל) — "하나님 같은 이 없다". 26절.
- 2절 "에쉬다트"(אֶשְׁדָּד) — '불'과 '율법(다트)'의 난해 합성 어휘.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운문)

- 액자(inclusio): "여수론"(5:26절)이 지파 명단을 감쌌. 우주적 신현(2-5 / 26-29)이 명단을 둘러쌌.
- 평행법: 13-16절 요셉 단락의 "가장 좋은 것"이 하늘·깊음·해·달·산·언덕으로 겹겹이 병행.
- 지파별 길이의 불균형 — 요셉이 가장 김, 르우벤은 한 줄.
- 시므온의 누락(명단의 빈자리).
- 32장(고발)과 33장(축복)의 톤 대조, "여수론"이 두 장에 공통으로 등장.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임종 축복·유언 양식 — 족장이 죽기 전 자손의 미래를 선언하는 형식. 창 49(야곱)와 같은 갈래.
- 신현(theophany)의 빛·산 이미지 — 시내·세일·바란에서 비추어 오심(2절)의 고대 근동 신 출현 모티프. 사 5:4-5 병행.
- 본문은 이 형식·이미지의 배경만 비추며 해석은 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3 ↔ 창 49 (야곱의 임종 축복 — 같은 갈래·지파 순서 비교)

- 신 33 ↔ 신 32 (직전 모세의 노래 — "여수론" 공통)
- 신 33 ↔ 신 34 (축복 직후 모세의 죽음)
- 신 33 ↔ 출 19:18-20 (시내 신현)
- 신 33 ↔ 사 5:4-5 (세일·시내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 신 33 ↔ 출 28:30 (우림과 둠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입을 연다. 빛이 산에서 솟아 —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에서 비추신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호명한다. 르우벤에게 "죽지 말기를", 유다에게 "인도하시기를", 레위에게 우림·둠뭉과 가르치는 직임, 베냐민에게 "날개 사이에 품으심". 요셉 차례에 말이 풍성히 쏟아진다 — 하늘의 이슬, 깊은 샘, 해와 달의 소산, 옛 산의 가장 좋은 것, 수소와 들소의 힘. 이어 스불론·잇사갈·갓·단·납달리·아셀에게 저마다 다른 복이 얹힌다. 명단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하늘을 타고 너를 도우신다,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다." 마지막 행이 환하게 닫힌다 —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여수론으로 열려 여수론으로 닫히다"
- 초벌 부제: "모세의 마지막 축복 — 지파마다 다른 복,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임종 축복 양식·신현 모티프 + 운문 액자/평행법)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지파별 축복을 후대 역사·지정학으로 끌고 가지 않음. 본장에서 받는 말의 결 차이까지만 기록.

- 시므온 누락의 이유를 단정하지 않음. 명단의 빈자리만 관찰로 보존.
- 2절 "에쉬다트" 난해 어휘는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의 난해함으로 남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3장은 떠나는 사람이 지파마다 다른 복을 얻는 운문이, 우주적 신현의 액자에 감싸여 "여수룬 같은 이 없도다"로 닫히는 축복이다.

한 문단: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입을 연다. 빛이 시내·세일·바란에서 솟는 우주적 도입으로 열리고, 그 안에서 르우벤부터 아셀까지 지파가 한 명씩 호명되며 저마다 다른 복을 받는다. 요셉 단락에 "가장 좋은 것"이 겹겹이 쏟아지고, 시므온은 명단에서 빠진다. 명단이 끝나면 노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로 비교 불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는 환한 질문으로 닫힌다. 32장이 고발로 열렸다면, 33장은 같은 여수룬을 축복으로 감싼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액자 무대 — 우주적 신현(시내·세일·바란)이 지파 명단을 감쌌. 소품 — 우림·돛뭍(레위), 이슬·샘·해·달·산(요셉). 모세 호칭 "하나님의 사람".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2장의 무거움과 대조되는 다정함. 산에서 솟는 빛의 웅장한 도입, 요셉 단락의 풍성함, "너는 행복한 자로다"의 환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도입 — 산에서 빛으로 오심 + 여수룬의 왕(2-5절). 마무리 —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26절)·"너는 행복한 자로다"(29절). "여수룬"이 양 끝의 액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화자 모세("하나님의 사람"), 복받는 열한 지파(시므온 누락), 도입·마무리의 하나님. 지파마다 다른 결의 복. 핵심 —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신현 도입(1~5). 컷 2 르우벤·유다(6~7). 컷 3 레위·베냐민(8~12). 컷 4 요셉(13~17). 컷 5 스불론~아셀(18~25). 컷 6 우주적 마무리(26~29).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시므온 누락. 요셉 단락의 풍성함. 창 49와의 차이. 정보 — 2절 난해어 "에쉬다트", 액자(Yeshurun), 우림·돛뭍.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에서 솟는 빛→지파별 호명·축복→요셉의 풍성→하늘로 오르는 마무리→"너는 행복한 자로다"의 한 흐름.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별 제목 — "여수룬으로 열려 여수룬으로 닫히다". 초별 부제 — "지파마다 다른 복,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빛이 솟고 한 명씩 호명되는 자리를 걸으며 멈춘다. 주께 아뢰다 — "떠나는 입에서 복이 나오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여수룬의 액자:** "여수룬"(5:26절)이 지파 명단을 양 끝에서 감싼다. 우주적 신현이 그 바깥 틀을 이룬다.

2. **결 2 — 다른 복:** 같은 축복이 아니라 지파마다 다른 결의 말이 엮힌다. 요셉은 풍성하고 르우벤은 한 줄, 시므온은 비어 있다.

3. **결 3 — 비교 불가의 선언:**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26절). 32장에서 잊혔던 그분이, 33장 끝에서 "같은 이 없다"로 다시 높여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32** (직전 노래, "여수룬" 공통). **신 34** (이 축복 직후 모세의 죽음).
- 다른 권 — **창 49** (야곱의 임종 축복, 같은 갈래·지파 비교). **출 19:18-20** (시내 신현). **삿 5:4-5** (세일· 시내 행진 이미지).
- 정경 흐름 — 오경의 마지막 운문이 한 사람의 임종 축복으로, 창세기 49장의 임종 축복과 마주 본다. 첫 족장의 축복과 마지막 인도자의 축복이 같은 갈래로 잇닿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죽기 전에"라는 첫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빛이 산에서 솟는 우주적 도입에서 멈춘다.
- **멈춤 2:** 지파마다 다른 복이 엮히는 명단에서, 빈 시므온의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26절)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떠나는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복이라는 결을 손에 쥐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앞에서 행복한 자로 서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한다(1절)
- [x] 빛이 산에서 솟는 신현으로 열린다(2절)
- [x] 지파마다 다른 복이 엮힌다
- [x] 요셉 단락이 가장 풍성하다
- [x] 시므온이 명단에서 빠진다
- [x] "여수룬"이 양 끝의 액자를 이룬다(5·26절)
- [x]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로 비교 불가가 선언된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축복.

미해결 질문

신명기 3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김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시므온 지파가 이 명단(6-25절)에서 빠진 까닭은?

- 관찰 사실: 창 49에는 있는 시므온이 신 33 명단에 없음.
-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요셉 단락(13-17절)만 유독 풍성한 까닭은?

- "가장 좋은 것"이 다섯 번쯤 반복되며 하늘·땅을 다 끌어옴. 다른 지파는 한두 줄.
- 길이의 불균형이 의도된 결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관찰까지.

Q3. 창 49(야곱)와 신 33(모세)의 지파 축복이 다른 까닭은?

- 같은 갈래(임종 축복)지만 강조점·순서·누락이 다름.
- 두 본문의 관계는 교차 참조까지. 차이의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Q4. 2절 "에쉬다트"("불 같은 율법")의 정확한 뜻은?

- '불'과 '율법(다트)'의 난해 합성 어휘. 70인역은 다르게 옮김.
- 한 방향으로 확정하지 않고 본문의 난해함을 보존.

Q5. 명단이 끝나고 갑자기 우주적 선언(26-27절)으로 올라가는 까닭은?

- 지파별 복에서 "하늘을 타고 오심"."영원하신 팔"의 우주적 결로 도약.
- 명단과 신현의 연결을 본문은 설명 없이 둠. 답하지 않고 보존.

Q6. "여수룬"이 32장(배역)과 33장(축복) 두 장에 같이 놓인 의미는?

- 32장에서 잇은 그 여수룬을, 33장 끝("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에서 다시 높임.
- 두 장의 마주 봄은 관찰까지. 의미는 묵상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신명기 34장

DEU-034 · 오경 · 히브리어

땅을 보았으나 건너지 못한다. 한 사람이 산에서 죽고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른다. 오경이 "그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더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신명기 3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Nevo·Pisgah), 여리고(Yericho) 맞은편. 약속의 땅 경계 밖, 강 건너편에서 조망.
- 1-3절이 파노라마: 단·길르앗·납달리·에브라임·므낫세·유다·네페·여리고 골짜기를 한 바퀴 훑음.
- 소품이 거의 없음 — 사람·산·땅, 그리고 "골짜기의 무덤"(6절, 위치 비공개).
- 시간 표지 — "백이십 세"(7절), "삼십 일 애곡"(8절).
- 매장의 주체가 본문상 모호(마소라 "그가 장사하셨고" vs 70인역 복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고요하고 멍멍한 공기. 떠들썩한 사건 없이 한 사람이 산에서 조용히 죽음. 멀리 내다보는 파노라마 시선.
- "그러나 건너가지 못하리라"(4절)에서 멈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없었더라"는 기림으로 높아지며 닫힘. 화자 시점이 모세 밖으로 빠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보이시되" — 올라가 봄으로 시작.
-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이더라" — 회고·기림으로 닫힘.
- 10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대면하여(panim el panim) 아시던 자" — 후대 시점의 닫는 선언.
- 오경 전체의 닫힘: 창 1:1(창조)로 열린 오경이 신 34(한 사람의 죽음·무덤·기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세(침묵)·여호와·여호수아·애곡하는 이스라엘.
- 모세가 한마디도 하지 않음 — 33장까지 말하던 입이 마지막 장에서 침묵. 화자 시점이 모세 밖으로 전환.
- "여호와와 말씀대로/입대로"(al pi YHWH, 5절) 죽음 — 직역 "여호와와 입에 따라".
-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7절) — 노쇠가 아닌 죽음.
- 여호수아: 모세의 안수(semikhah, 9절)로 "지혜의 영이 충만", 백성이 순종 — 인도 의 이양.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느보산 등정, 땅 전체 파노라마.

- 컷 2 (4절): "이것이 그 땅... 그러나 건너가지 못하리라."
- 컷 3 (5-6절):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음, 골짜기 매장, 무덤 비공개.
- 컷 4 (7-8절): 백이십 세·쇠하지 않은 기력, 30일 애곡.
- 컷 5 (9-12절): 여호수아의 충만, 모세에 대한 기림("다시 없었더라").
- 무게중심: 컷 2의 "그러나 건너가지 못하리라". 닫힘: 컷 5의 후대 시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1) 원어 카드

- Nevo(נְבוֹ) / Pishgah(פִּישְׁגַּח) — 느보산·비스가 꼭대기. 1절.
- Yericho(יְרִיחוֹ) — 여리고. 1·3절(맞은편·골짜기).
- ra'ah(רָאָה) — 보다/보이다. 1·4절(보게 하심).
- al pi YHWH(עַל פִּי יְהוָה) — "여호와와의 말씀대로/입대로". 5절.
- qever(קֶבֶר) — 무덤. 6절(위치 비공개).
- panim el panim(פְּנֵים אֶל פְּנֵים) — 대면하여/얼굴을 마주. 10절. 출 33:11 병행.
- navi(נָבִיא) — 선지자. 10절("모세와 같은 선지자").
- ru'ach chokhmah(רוּחַ חֵכְמָה) — 지혜의 영. 9절(여호수아).
- semikhah(סְמִיכָה) — 안수(손을 얹음). 9절. 민 27:18-23 연결.
- mofet(מוֹפֵת) — 이적/위엄. 11절(애굽에서 행한 표징).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2) 문학 구조

- "보다"(1·4절)와 "건너가지 못하리라"(4절)의 대비 — 봄과 막힘의 병치.
- 부정사(lo)의 연쇄: 건너지 못함(4절)·무덤 모름(6절)·쇠하지 않음(7절)·다시 없음(10절). 부정이 결말의 골격.
- 화자 시점의 전환 — 모세 1인칭에서 후대 3인칭 회고로.
- 죽음(5-6절)을 기림(10-12절)이 감쌌 — 비문(epitaph)식 닫힘.
- 오경 전체의 inclusio — 창 1(창조)와 신 34(죽음·기림)가 양 끝.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3) ANE 배경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위대한 지도자 사후 무명(無名) 무덤 모티프 — 무덤 위치를 숨기는 처리(6절 "아무도 모르니라")와 병행 관찰.
-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조망하는 파노라마 시점(1-3절)의 구도.
- 본문은 이 배경만 비추며, 무덤 비공개 의도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신 34 ↔ 신 3:23-27 (땅을 보되 건너지 못함 — 첫 예고)
- 신 34 ↔ 신 32:48-52 (느보산에 올라가 죽으라는 직전 명령·이유 단서)
- 신 34 ↔ 민 27:18-23 (여호수아 안수 위임)
- 신 34 ↔ 수 1:1-2 (모세 죽은 후 — 다음 책의 시작)
- 신 34 ↔ 출 33:11 (대면하여 말씀하심 — panim el panim)
- 신 34 ↔ 마 17:1-3; 유 1:9 (모세의 후대 재등장·시신 관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노인이 모압 평지를 떠나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오른다. 여호와께서 땅 전체를 펼쳐 보이신다 — 단에서 길르앗, 납달리·에브라임·므낫세·유다, 네겟, 여리고 골짜기까지 카메라가 한 바퀴 돈다. 한 말씀이 내려온다 — "이것이 맹세한 그 땅이라. 보게 하였으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모세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는다. 골짜기에 장사되나 오늘까지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 백이십 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삼십 일을 애곡한다. 시선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백성이 순종한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멀찍이 빠지며 한 사람을 기린다 —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더라." 한 장의 닫힘이 오경 전체의 닫힘이 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보았으나 건너지 못하다"
- 초벌 부제: "오경의 닫힘 — 한 사람이 땅을 보고, 산에서 죽고, 기림으로 남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지리·문학 사실 최소 1개 (무명 무덤 모티프·파노라마 구도 + 부정사 연쇄·오경 inclusio)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오경 전체 닫힘 포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보았으나 건너지 못함"의 이유(므리바 사건, 신 32:51)를 신학적 인과로 단정하지 않음. 본장에선 사실과 교차 참조만 기록.
- "여호와와 입대로"(al pi YHWH)를 '입맞춤으로 죽음' 전승으로 확정하지 않음. 어휘 그대로 보존.
- 마지막 절들의 기록자 문제를 정경론으로 끌고 가지 않음. 화자 시점 전환의 관찰까지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신명기 34장은 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보았으나 건너지 못한 채 산에서 죽고, 그 죽음을 기림이 감싸며 오경 전체가 닫히는 결이다.

한 문단: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 여호와께서 펼쳐 보이시는 약속의 땅을 한 바퀴 바라본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봄과 막힘을 한 호흡에 둔다.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고, 골짜기에 장사되나 아무도 무덤을 모른다. 백이십 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삼십 일을 애곡한다. 인도는 안수받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시점이 후대로 멀찍이 빠지며 한 사람을 기린다 —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더라." 창세기 1장의 창조로 열린 오경이, 한 인도자의 죽음과 기림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 여리고 맞은편(땅 경계 밖). 1-3절 파노라마. 소품 거의 없음 + 위치 모르는 무덤(6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고요하고 먹먹한 공기, 멀리 내다보는 파노라마. "건너가지 못하리라"에서 멈춤. 죽음이 "다시 없었더라"는 기림으로 높아지며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 — 올라가 봄(1절). 끝 — 기림(12절). 10절 후대 시점의 닫는 선언. 오경 전체: 창 1(창조)↔신 34(죽음·기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모세(침묵)·여호와·여호수아·애곡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와의 입대로"(5절) 죽음, 쇠하지 않은 기력(7절). 인도의 이양(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등정·파노라마(1~3). 컷 2 "건너가지 못하리라"(4). 컷 3 죽음·무덤 비공개(5~6). 컷 4 기력·30일 애곡(7~8). 컷 5 여호수아·기림(9~12).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봄과 막힘. 매장 주체 모호·무덤 비공개. 모세의 침묵. 정보 — al pi YHWH, panim el panim, 부정사(lo) 연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 등정→파노라마→봄과 막힘→조용한 죽음·모르는 무덤→애곡→여호수아로 이양→"다시 없었더라"의 기림으로 닫힘.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 "보았으나 건너지 못하다". 초벌 부제 — "오경의 닫힘 — 땅을 보고, 산에서 죽고, 기림으로 남다".
9 동영상 안을 걸으며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음성에 귀 기울이기	느보산 꼭대기에서 땅을 바라보며 멈춘다. 주께 아뢴다 — "약속이 사람보다 멀리 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봄과 막힘:** "보게 하였으나 건너가지 못하리라"(4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같은 자리에 막힘이 놓인다. 약속의 봄과 한 사람의 한계가 한 호흡이다.

2. **결 2 — 모르는 무덤과 침묵:** 위대한 인도자가 위치 모를 골짜기에 묻히고, 말하던 입이 마지막 장에서 침묵한다. 본문이 기념비 대신 비밀을 둔다.

3. **결 3 — 죽음을 감싸는 기림:** "그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더라"(10절). 죽음의 장이 기림으로 닫히고, 그 닫힘이 오경 전체의 닫힘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신 3:23-27** (땅을 보되 건너지 못함의 첫 예고). **신 32:48-52** (느보산 등정 명령·이유 단서). **신 31:7-8,23** (여호수아 위임).
- 다른 권 — **창 1:1** (오경을 여는 창조 — 신 34와 양 끝). **민 27:18-23** (안수 위임). **수 1:1-2** (모세 죽은 후 — 다음 책의 시작). **출 33:11** (panim el panim).
- 정경 흐름 — 오경은 우주의 시작(창 1)으로 열려 한 인도자의 죽음(신 34)으로 닫힌다. 그러나 그 닫힘은 끝이 아니라 강 건너편(여호수아)으로 손을 내민다. 한 권의 마지막 절이 다음 권의 첫 절과 잇닿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산을 오르는 한 노인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잠시 멈춘다.
- **멈춤 1:** 땅이 펼쳐지는데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자리(4절)에서 멈춘다.
- **멈춤 2:** 위치를 아무도 모르는 무덤(6절)에서 멈춘다.
- **멈춤 3:** 말하던 입이 침묵으로 퇴장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약속은 한 사람보다 멀리 가고, 인도는 다음 손으로 넘어간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보았으나 건너지 못한 자리에서도 약속을 신뢰하는 곳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모세가 산에서 땅을 본다(1-3절)
- [x] 보게 하셨으나 건너지 못한다(4절)
- [x]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죽는다(5절)
- [x] 아무도 무덤을 모른다(6절)
- [x] 인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간다(9절)
- [x] "다시 없었더라"는 기림으로 닫힌다(10절)
- [x] 오경 전체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닫힌다

다음 책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건넌.

미해결 질문

신명기 3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LOCKED v2.0 가이드 원문 그대로의 결.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II, 10~26 / III, 27~30)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관련 LOCKED 단계 위치

- 6단계 —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중 *의문점*에 해당.

- 9단계 — 동영상 안을 걸으며 관찰 과정을 통해 알게된 것들을 주께 말씀드리고 내면의 감동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 의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정신 그대로.

Q1. 왜 땅을 보여만 주시고 건너지 못하게 하셨는가(4절)?

- 관찰 사실: 보게 하셨으나 막으심. 34장 본문은 이유를 다시 말하지 않음(단서는 신 32:51 프리바 사건).
- 봄과 막힘의 병치를 본문은 그대로 둠. 묵상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

Q2. 누가 모세를 장사했으며, 왜 무덤을 아무도 모르는가(6절)?

- 매장 주체가 본문상 모호(마소라 "그가" vs 70인역 복수). 위치는 "오늘까지" 비공개.
- 무덤 비공개 의도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답하지 않고 보존.

Q3. "여호와와 입대로"(al pi YHWH, 5절) 죽음은 무슨 뜻인가?

- 직역 "여호와와 입에 따라". 랍비 전통은 '입맞춤으로 죽음'으로 풀기도 함.
-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으므로 어휘 그대로 보존.

Q4. 말하던 모세가 마지막 장에서 침묵하는 것은 의도된 결인가?

- 33장까지 축복·노래하던 입이 34장엔 한마디도 없음. 화자 시점이 모세 밖으로 전환.
- 침묵의 의미는 관찰까지.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Q5. "그 후에는... 다시 없었더라"(10절)는 언제 시점에서 쓰인 회고인가?

- "그 후에는"이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을 전제. 마지막 절들의 기록자 문제와 연결됨.
- 기록 시점·주체는 본문이 밝히지 않음. 보존.

Q6. 오경이 창조(창 1)로 열려 한 사람의 죽음(신 34)으로 닫히는 결은 무엇을 두는가?

- 관찰 사실: 정경의 첫 단위가 우주의 시작과 한 인도자의 끝을 양 끝에 둠.
- 그 닫힘의 결은 묵상·정경 흐름에서 다시. 관찰에서는 양 끝의 대비만 기록.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